

제9회

무주산골 영화제

2021.6.03 - 6.06

6.11 - 6.13

영화소품을
위한
안내서

mjff

Muju
Film
Festival
2021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
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격전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주양수홍보관 관람안내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

- 개관시간 : 주중 09:00~17:00 주말, 공휴일 10:00~16:00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관람신청 : 전화 070-4000-2143, 2144 / 063-324-3665 / FAX : 0502-734-0543



Jinwoo Steel

이동식 극장의 선두주자

진우건설

www.jinwooct.com



ummafum

늘 엄마의 품에, 엄마프음



NABOM HOTEL & RESORT

무주 나봄리조트
총 2만평부지 객실 175실
지하 1,500m 천연암반수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최첨단 복합시설

청정자연 덕유산
무주 구천동
무주 063)322-6400

장수 푸른물
온천&승마체험
장수 063)333-8880

장수 나봄리조트
총 17천평부지 객실 90실
국내 유일 푸른물 온천수
웨딩 및 각종 연회
승마장, ATV 체험



향적봉의 봄, 월하탄의 여름, 덕유능선의 가을, 덕유산의 겨울일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나봄호텔&리조트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세요.



품격있는 휴식으로
삶의 균형의 완성
대전 042)936-1500

여행, 그 이상의 가치

altdif

We blend life

차를 마신다는 건 사소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순간들은 언제나
사소한 사건과 찰나의 시간에서 비롯되지요.
알디프의 심볼인 열린 알은 소설 '데미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하였습니다.
'데미안'에서 알의 껍질을 깨뜨리는 작은 행동이 곧 세계의 변화가 되듯,
알디프는 차를 마시는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삶의 가장 감각적이고 소중한 순간의 경험을 이끌어내며,
이로 인해 변화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조명하고 추구합니다.

다양한 회원가입 혜택과 함께 TEA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

altdif.com
instagram @altdif



K SHELTER

케이셸터 황사방역마스크 [KF-94]

의약외품



- 대한민국 KF94 식약처인증
- 미국 FDA 등록완료
- 유럽 CE인증 완료
- 한국산 자재 및 필터 사용
- 숨쉬기 편한 3D 입체공간
- 오래 착용해도 편안한 귀끈
- 관공서 납품 및 해외수출

사람을 노래하게 하는
아름답고
하얀 빛의 오브제,
복순도가 福順都家 손막걸리



손으로 직접 빚은 순수 생막걸리, 복순도가 손막걸리는
2021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합니다.

복순도가
福順都家



mjff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21



Jordan* supports REDUCE, REUSE, RECYCLE



RECYCLED
PLASTIC



BIO-BASED
BRISTLES



RECYCLED
PACKAGING

NEW!
GREEN CLEAN
COLLECTION







영화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곳

‘영화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곳’ 무주산골영화관은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작은 영화관으로, 무주군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영화 관람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2020년 9월 28일부터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한 무주산골영화관은 연중 최신 개봉작은 물론, 무주산골영화제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립, 예술 장르 등의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영상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채널**
카카오톡 > 무주산골영화관 검색 후 채널 추가

 **인스타그램**
@mujucinema 검색 후 팔로우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예체문화관 2층
TEL | 063-322-7053
MAIL | mujucinem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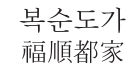
Presenting



Main



Festival



Partner



CONTENTS

MJFF 2021

-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시작하며 11
- 슬로건 12
- 포스터 & 로고 13
- 행사공간지도 및 교통정보 14
- 1일 관람권 구입안내 18
- 상영시간표 20
- 시상내역&심사위원 24

MJFF 2021 프로그램

- 개막작 28
- 창 31
- 판 41
 - 넥스트 액터 : 안재홍 56
 - 무주 셀렉트 :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61
 - 키즈스테이지 70
- 락 72
- 숲 79
- 길 86

MJFF 2021 이벤트

- 하이브로우 존 88
- 산골미술관 89
- 산골책방 90
- 산골콘서트 91



- 작품 색인 99
- 감독 색인 100
- 만든사람들 & 발행 정보 101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21

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전주 MBC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시작하며

2020년 2월 이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축제들은 취소되거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들은 달랐습니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의 형태로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영화제들은 모두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식을 오가며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영화제 개최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와 부딪쳐야 했습니다. 어디는 확진자 수가 많아도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었고, 어디는 확진자가 없어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상황, 영화제 주관 기관의 의지에 따라 행사의 개최 여부와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모두가 겪고 있었으므로 이런 상황이 때론 부조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분산개최 방식으로 개최되었던 2020년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상황도 다른 영화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역시 많은 분들의 응원과 비판을 함께 받으며 다행히도 8회 영화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확진자 수가 조금 감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2021년은 작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작년과 같은 막연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여전히 적지 않기에 영화제 개최에 대한 응원과 우려, 지지와 비판은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영화제란 무엇일까? 관객 여러분에게, 무주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그리고 영화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뒤따라왔습니다. 왜 무주산골영화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올해의 영화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좌절하고, 이해하고, 다시 고민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

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준비 과정을 돌이켜보면 올해 영화제에 대해 고민하며 행사를 준비한 시간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고,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바로 저희가 찾아낸 올해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엄중하고 불안한 이 팬데믹 시기에 2013년부터 시작된 무주산골영화제의 아홉 번째 영화 소풍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단기간에 많은 관객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일 관객 수를 제한하고 사전유료예약제를 도입하는 대신 행사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자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달리 온라인 프로그램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주산골영화제의 정체성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바로 '산골 무주'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그동안 어려운 물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편하고 쉬운 길보다 어렵고 힘들지만 의미있는 길을 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비판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 8년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원하는 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주산골영화제가 아슬아슬했을 때에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무주산골영화제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들과 영화인, 그리고 무주군민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산골 무주에, 영화가 찾아옵니다. 산과 숲과 하늘과 달과 별과 바람 그리고 영화와 관객 여러분이 어우러져 만들어낼 소란스럽지 않은 생기와 에너지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무주산골영화제가 계속되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초여름의 낭만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결국, 다시,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설렘·울림·어울림



‘설렘’ 가득한 영화 소풍길. 영화야! 소풍갈래?

‘소풍’은 잠시 일상을 뒤로 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설렘 가득한 작은 여행길입니다. 익숙한 일상의 관성에서 벗어난 이 소박한 여행을 통해 우리는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열린 공간을 스크린 삼아 무주의 주민들과 무주를 찾아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소풍 같은 영화제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새로운 시선의 영화와 조우하는 ‘울림’의 창. 무주산골영화제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담은 ‘창’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입니다. 사각의 프레임 속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세상은 우리 시선과 맞닿으며 마음속에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 충동과 울림은 깊이에 따라 ‘나’와 ‘너’의 세계에 머무르기도 하고, ‘우리’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를 찾는 모든 관객을 향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펼쳐 보이는 영화라는 ‘창’을 활짝 열어 젖혀보려고 합니다. 미지의 세상을 향해 열린 우리의 ‘창’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영화로, 즐거움과 외침의 영화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의 영화로 여러분과 마주할 것입니다.

자연 속 스크린, 청정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공간. 무주!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무주의 청정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특별한 영화 감상의 체험을 선사합니다. 반짝이는 별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푸른 산과 숲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무주는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남녀노소 모든 관객이 영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야외극장으로, 휴식과 치유를 위한 숲속 극장으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공감의 극장으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을의 작은 극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Poster

작년 무주산골영화제 포스터 그림 의뢰를 제안 받았을 때처럼 따뜻한 마음만 생각하며 2021년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포스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림과 움직임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에 불안과 고뇌가 묻어 나오면 어쩌나 조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작업실 라일락 나무의 아기 새싹을 바라보며 다시 아련한 생각에 잠깁니다. 지난날은 순탄치 않았지만, 항상 소중했고 그렇게 커져이 쌓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 요리책에서 많이 보이는 ‘숙성’의 과정이 가슴에 절실히 꽂히는 시기를 보내며 ‘성숙’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 그렇게 우린 다시 부둥켜안고 무주에서 만날 것을 알고 있기에 건강한 기다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 | 김영준

인스타그램 @youngjun_kim_



F·I Festival Identity

‘산’은 뽀족한 느낌을 주지만 ‘산골’이 주는 어감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다. 이 ‘산골’이라는 이름에 착안하여 둥글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나무 하나 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듯 둥글고 부드러운 원기둥 모듈 하나하나를 조각 맞추기처럼 형상화했다. 주 색깔은 숲을 보여주는 초록색으로 하되, 반딧불이의 빛을 상징하는 노랑색과 꽃들을 연상할 수 있는 진분홍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제작·디자인 | 구민재 page9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Logotype



Symbol Mark

무주등나무운동장 (일대)

도로명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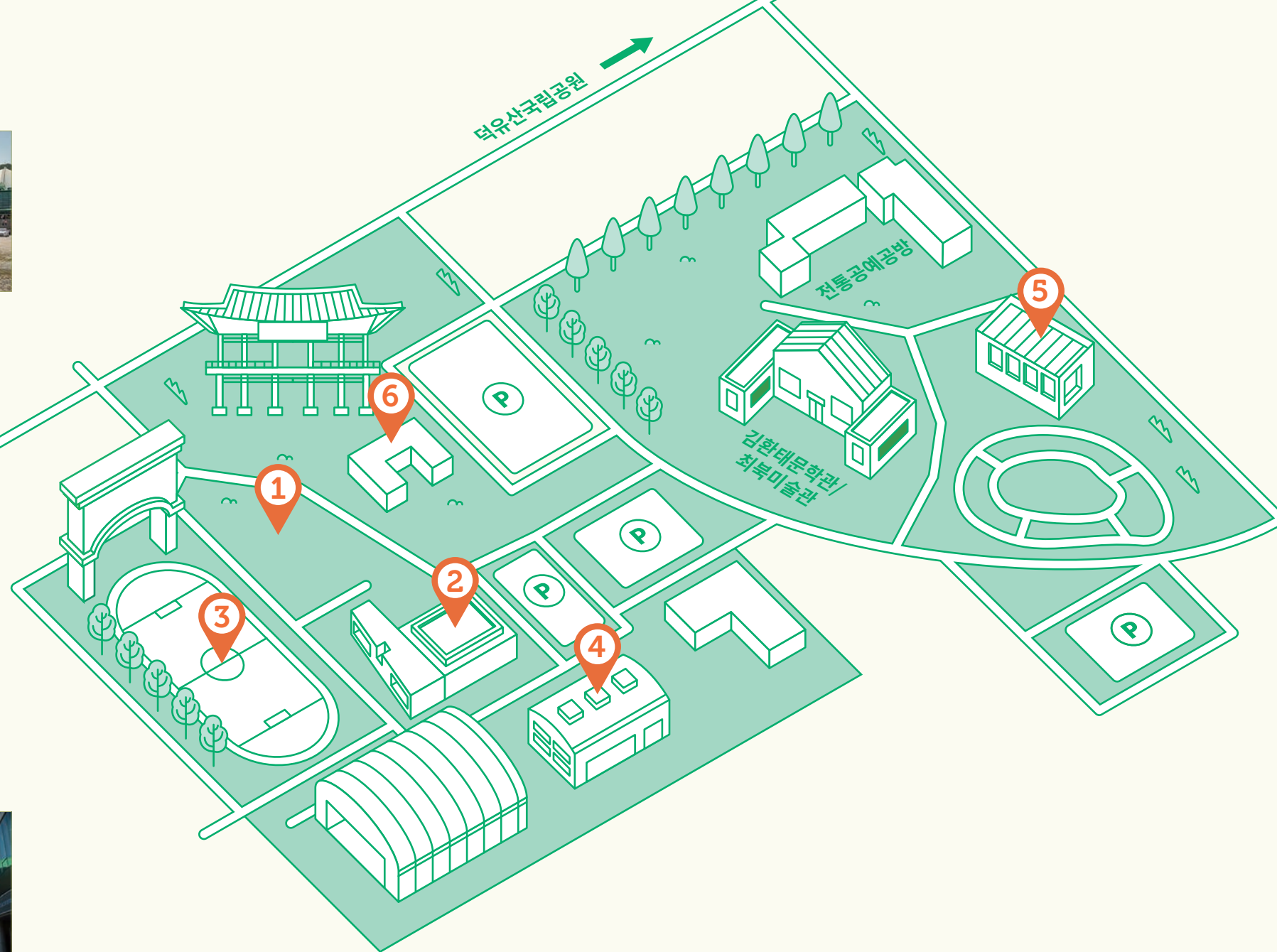
1 무주예체문화관 주차장

안내데스크



2 무주예체문화관

티켓부스, 물품보관소
무주산골영화관(반디관/태권관)
산골책방



3 무주등나무운동장

'락' 섹션 야외 상영장, 공연 및 토크,
하이브로우 존, 굿즈샵



4 무주청소년수련관

'판' 섹션 상영관



5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판' 섹션 상영관



6 무주지남공원(한풍루)

산골미술관



덕유산국립공원

도로명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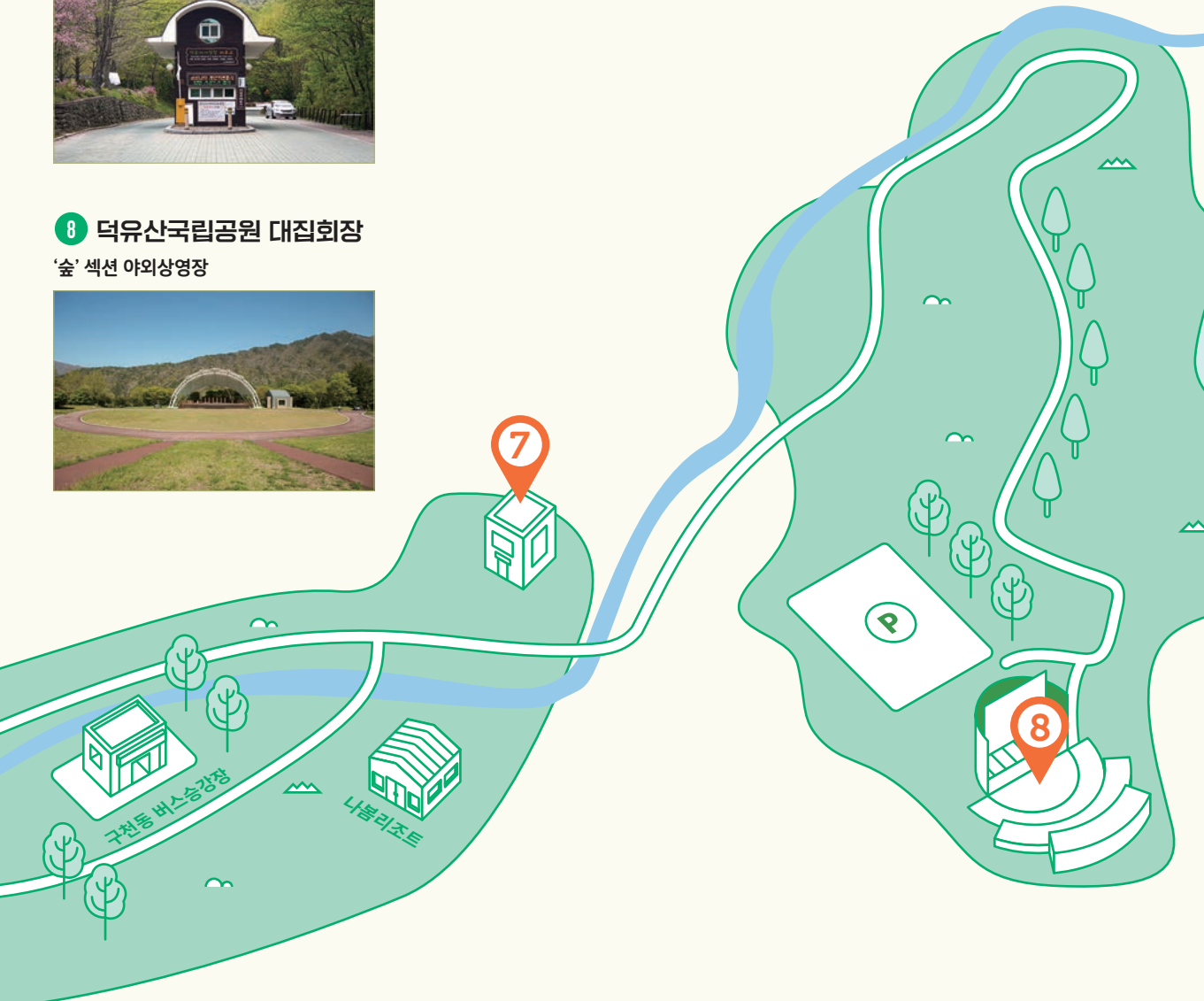
7 덕유대야영장 대표소

덕유산국립공원 입구



8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숲' 섹션 야외상영장



교통정보

기차

- 서울 서울 ↔ 대전 | 용산 ↔ 서대전
- 대구 대구 ↔ 대전
- 부산 부산 ↔ 대전
- 광주 광주송정 ↔ 서대전

※ 타 지역에서 '대전'까지 기차로 이동 후, 대전 ↔ 무주 간 이동은 대전북합터미널에서 무주공용버스터미널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시간표

| 서울남부 → 무주 | 무주 → 서울남부 | 전주시의 → 무주 | 무주 → 전주시의 | 대전북합 → 무주 | 무주 → 대전북합 |
|--------------------------------------|-----------|----------------------|-----------|------------------|-----------|
| 2시간 30분 소요 15,200원 / (우등) 19,800원 | | 1시간 50분 소요 9,600원 | | 50분 소요 5,000원 | |
| 09:20 | 08:00 | 07:20 | 07:55 | 07:20 | 07:00 |
| 10:40(우등) | 09:45 | 10:20 | 08:40 | 08:00 | 07:40 |
| 14:35 | 11:05(우등) | 12:00 | 10:10 | 09:00 | 08:35 |
| 16:00 | 15:35 | 13:00 | 13:10 | 09:40 | 09:00 |
| 18:00(우등) | 17:45(우등) | 16:30 | 15:00 | 10:30 | 09:50 |
| 광주종합 → 무주 | 무주 → 광주종합 | 18:30 | 17:50 | 11:10 | 10:30 |
| 3시간 30분 소요 17,500원 | | 20:00 | 19:30 | 12:20 | 11:30 |
| 07:05 | 06:45 | | | 13:30 | 12:00 |
| 11:10 | 12:05 | | | 14:00 | 13:25 |
| 13:20 | 15:45 | | | 14:50 | 14:35 |
| 17:00 | 17:40 | | | 16:10 | 15:30 |
| | | | | 16:50 | 16:10 |
| | | | | 17:40 | 16:40 |
| | | | | 18:30 | 17:45 |
| | | | | 19:30 | 19:30 |
| | | | | 20:30 | 20:40 |

※ 2021년 5월 기준. 상기 버스 시간표와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

2021년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는 관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1인당 1일 관람권 1매로 당일 영화제 실내와 야외를 포함한 모든 행사장 내 영화 및 이벤트를 모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1일 관람권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영화제 모든 행사 공간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기간중에는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QR 코드 또는 안심콜), 입장대기** 등을 거친 후 관람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영화제 행사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화제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에는 숲 섹션 영화들을 상영하는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야외상영 관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의 인원 수용 방침에 따라 숲 섹션(덕유산 대집회장) 영화 관람 사전 예약은 추후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별도로 안내됩니다.

예매 기간

2021.05.18.(화) 12:00 ~ 05.28.(금) 24:00

예매 항목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른 영화제 행사 방역 매뉴얼에 기준하여, 행사장 거리 두기를 적용한 관람권 수량을 제공하게 됩니다.(1인당 1일 최대 4매까지 예매 가능)

| 날짜 | 관람권 금액 | 예매방법 |
|---------|------------|---|
| 6/3(목) | 1인 10,000원 | 네이버예약 QR코드  or 영화제 공식홈페이지 (www.mjff.or.kr) 메인화면 킷메뉴 |
| 6/4(금) | 1인 10,000원 | |
| 6/5(토) | 1인 10,000원 | |
| 6/6(일) | 1인 10,000원 | |
| 6/11(금) | 1인 10,000원 | |
| 6/12(토) | 1인 10,000원 | |
| 6/13(일) | 1인 10,000원 | |

❖ 무주군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예매 기간 내 선착순으로 '무주산골영화관'에서 오프라인 현장 예매 서비스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현장 예매 시, 예매자 본인을 포함해 실제 영화제 관람 인원 각자가 무주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무주군민 대상 영화제 예매 서비스 안내 063-322-7053

예매 혜택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으로 무주 지역 주요 관광지(총 3곳)에 입장할 수 있는 투어패스 서비스를 특별 제공합니다.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 투어패스 서비스로 이용 가능한 무주 관광지 (중복 이용 불가)

-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천문과학관
- 머루와인동굴
- 태권도원(+모노레일)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 현장 수령 방법

온라인으로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을 사전 예매한 관객들은 행사 당일 무주예체문화관 1층에 마련된 무주산골영화제 티켓부스를 방문하여 발열 체크 및 전자출입명부 작성(QR 코드 또는 안심콜) 후 관람권을 수령 해야 합니다.

(행사장 내 방역 지침에 따라 참여 관객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 이용시 유의사항

- 영화제 모든 행사 공간은 규모에 따라 입장 인원이 제한적이므로, 각 행사장 입구에서 대기 후 입장해야 합니다. 선착순 입장이므로 원하는 영화의 관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람권은 카드와 팔찌 형태로 배부됩니다. 훼손·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영화제 1일 관람권으로 이용 가능한 무주 관광지 3곳 입장 시에는 반드시 카드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동일 시설 중복 이용 불가)
- 영화제는 행사 당일 이용만 가능하며, 투어패스 서비스는 관람권 수령 후 36시간 유효합니다.

6.3 목 개막일

| 공간 | 섹션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19:00 | 20:00 | 21:00 | 22:00 | 23:00 | 24:00 | 01:00 |
|-----------------|----|-------|-------|---------------------------------------|-------|-------------------------------|-----------------------------------|-------------------------|----------------------------|------------------------------|-----------------------------------|---|-------|-------|-------|-------|-------|
| 산골영화관 반디관 | 판 | | | | | 타인의 친절 ⑫ 115분 p.54 | | 베이비티스 ⑮ 117분 p.49 | | | |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⑮ 101분 p.53 | | | | | |
| 산골영화관 태권관 | 창 | | | | | | | | | | | | | | | | |
| 무주전통생활 문화체험관 | 판 | | | 스파이의 아내 ⑫ 116분 p.51 | | | 내 형제가 가르쳐준 노래 ⑮ 98분 p.47 | | | 더 파더 ⑫ 97분 p.47 | | | | | | | |
| 무주청소년 수련관 | 판 | | | 나는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 ⑮ 89분 p.46 | | 어느 소녀 이야기 ⑮ 93분 p.52 | | | 나의 작은 동무 ⑫ 103분 p.46 | | | | | | | | |
| 무주등나무 운동장 | 개막 | | | | | | | | | 개막식 + (공연) 이날치 p.91 | 개막작 <달이 지는 밤> ④ 70분 p.28 | | | | | | |

6.4 금

| 공간 | 섹션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19:00 | 20:00 | 21:00 | 22:00 | 23:00 | 24:00 | 01:00 |
|-----------------|----|-------|---------------------|-------------------------------|-------------------------|--|-------|------------------------------|----------------------------|--------------------------------|----------------------|----------------------------|-------|-------|-------|-------|-------|
| 산골영화관 반디관 | 창 | | 휴가 ④ 81분 p.40 | | 최선의 삶 ⑫ 110분 p.39 | | | 봉영주공 ④ 83분 p.34 | | | | 네이버링 사운즈 ⑮ 131분 p.64 | | | | | |
| 산골영화관 태권관 | 창 | | | | | | | | | | | | | | | | |
| 무주전통생활 문화체험관 | 판 | | | 메이드 인 루프탑 ⑮ 85분 p.43 | | 김중관 단편선⑫ 70분 p.45 | | 모굴 모굴리 ⑮ 90분 p.49 | | | | | | | | | |
| 무주청소년 수련관 | 판 | | | 소공녀⑮ 106분 p.60 | | 러브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⑮ 122분 p.48 | | | 아무도 없는 곳 ⑮ 82분 p.44 | | | | | | | | |
| 무주등나무 운동장 | 락 | | (공연) 김뜻돌 p.91 | | | (토크) 안재홍 p.92 | | (공연) 문연편 p.92 | 다시 만난 날들 ⑫ 100분 p.73 | (공연) 다시 만난 날들 p.92 | 조제 ⑮ 117분 p.73 | | | | | | |
| 덕유산 국립공원 | 숲 | | | | | | | 마운틴 콘체르토 ④ 73분 p.80 | 아쿠아렐라 ④ 89분 p.80 | | | 그랑블루 ⑮ 168분 p.80 | | | | | |

6.5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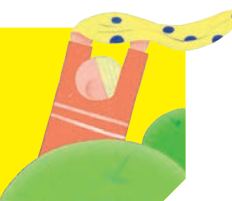
| 공간 | 섹션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19:00 | 20:00 | 21:00 | 22:00 | 23:00 | 24:00 | 01:00 |
|-----------------|----|-------|-------|------------------------|--------------------------------------|--------------------------|-------------------------|-----------------------|----------------------|----------------------|----------------------------|---------------------------------|--------------------------------|-------|-------|-------|-------|
| 산골영화관 반디관 | 창 | | | 좋은 사람 ⑮ 98분 p.38 | | 동글고 동글게 ⑫ 88분 p.33 | | | 종착역 ④ 79분 p.37 | | | 트루마더스 ⑮ 140분 p.54 | | | | | |
| 산골영화관 태권관 | 창 | | | | | | | | | | | | | | | | |
| 무주전통생활 문화체험관 | 판 | | | | 안재홍 단편선 & M/V ④ 70분 p.60 | | 청산, 유수 ⑫ 89분 p.44 | | | | 분화구의 두사람 ⑮ 116분 p.50 | | | | | | |
| 무주청소년 수련관 | 판 | | | | 아쿠아리우스 ⑮ 145분 p.66 | | | 뉴 오더 ⑮ 88분 p.47 | | | 마틴 에덴 ⑫ 129분 p.48 | | | | | | |
| 무주등나무 운동장 | 락 | | | | | | (공연) 까데호 p.93 | | | (공연) 10CM p.93 | 송해 1927 ⑮ 82분 p.74 |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⑫ 110분 p.74 | | | | | |
| 덕유산 국립공원 | 숲 | | | | | | | | | | 아비정전 ⑮ 100분 p.81 | 중경삼림 리마스터링 ⑮ 102분 p.81 | 화양연화 리마스터링 ⑮ 99분 p.81 | | | | |

6.6 일

| 공간 | 섹션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19:00 | 20:00 | 21:00 | 22:00 | 23:00 | 24:00 | 01:00 |
|-----------------|----|-------|-------|---------------------------------|-------|------------------------------|-------|---------------------------------|--------------------------|---------------------------------|--------------------------|-----------------------|-----------------------|-------|-------|-------|-------|
| 산골영화관 반디관 | 창 | | | 셀프-포트레이트 2020 ⑮ 168분 p.36 | | 성적표의 김민영 ④ 94분 p.35 | | | 그대 너머에 ④ 119분 p.32 | | | 진파 ⑮ 87분 p.53 | | | | | |
| 산골영화관 태권관 | 창 | | | | | | | | | | | | | | | | |
| 무주전통생활 문화체험관 | 판 | | | 쓰리 ⑮ 112분 p.43 | | 죽구랑 ⑮ 104분 p.59 | | | 바쿠라우 ⑮ 132분 p.68 | | | | | | | | |
| 무주청소년 수련관 | 판 | | | 경극소년 리턴즈 ④ 87분 p.70 | | 레 미제라블 ⑮ 104분 p.48 | | 쿠오바디스, 아이다 ⑮ 104분 p.54 | | | 쌈머 85 ⑮ 101분 p.51 | | | | | | |
| 무주등나무 운동장 | 락 | | | (토크) 세이브더 칠드런 p.94 | | (공연) 데이먼 시어 p.94 | | | (공연) 샘김 p.94 | 모험가, 무대 뒤에서 ④ 51분 p.75 | 낙엽귀근 ⑮ 101분 p.75 | | | | | | |
| 덕유산 국립공원 | 숲 | | | | | | | | | | 화해의 조건 ⑮ 100분 p.82 | 슈퍼노바 ⑮ 94분 p.82 | 페어웰 ④ 100분 p.82 | | | | |

무주산골영화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영화제 기간 중 모든 행사장 내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입장 관객 전원 발열 검사
- ✓ 전자출입명부 작성 및 마스크, 손소독제 사용
- ✓ 각 행사장 방역 시 입·퇴장 협조
- ✓ 간격 띄워 줄서기



6.11 금

| 공간 | 섹션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19:00 | 20:00 | 21:00 | 22:00 | 23:00 | 24:00 | 01:00 |
|-----------------|----|-------|-----------------------|-------|--------------------------------|-------|--------------------|-----------------------------------|-------|---------------------|----------------------------|---------------------------------|--|-----------------------|------------------------|-------|-------|
| 산골영화관 반디관 | 창 | | 종착역 A 79분 p.37 | | 그대 너머에 A 119분 p.32 | | | 셀프-포트레이트 2020 B 168분 p.36 | | | | | 비홀드 마이 하트 B 81분 p.50 | | | | |
| 산골영화관 태권관 | 창 | | | | | | | | | | | | | | | | |
| 무주전통생활 문화체험관 | 판 | | | | 내인니 전지현과 나 B 87분 p.42 | | | 혼자 사는 사람들 B 90분 p.44 | | | 네이버링 사운즈 B 131분 p.64 | | | | | | |
| 무주청소년 수련관 | 판 | | 소공녀 B 106분 p.60 | | 폭력의 그림자 B 100분 p.55 | | | 내 형제가 가르쳐준 노래 B 98분 p.47 | | | 소년시절의 너 B 135분 p.51 | | | | | | |
| 무주등나무 운동장 | 락 | | | | | | (공연) 요조 p.95 | | | (공연) 관진아 p.95 | | 키드 A 53분 p.76 | | 미나리 B 115분 p.76 | | | |
| 덕유산 국립공원 | 숲 | | | | | | | | | | |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 B 97분 p.83 | 부예노스 아이레스 제로 디그리 B 62분 p.83 | | 패왕별희 B 171분 p.83 | | |

6.12 토

| 공간 | 섹션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19:00 | 20:00 | 21:00 | 22:00 | 23:00 | 24:00 | 01:00 |
|-----------------|----|-------|-----------------------|-------|---------------------------------|-------------------------|---------------------|------------------------|---------------------|-------|---------------------|-----------------------------|--|---------------------------------|---------------------------------------|-------|-----------------------|
| 산골영화관 반디관 | 창 | | 봉명주공 A 83분 p.34 | | | 휴가 A 81분 p.40 | | | | | | | 최선의 삶 B 110분 p.39 | | | | 족구왕 B 104분 p.59 |
| 산골영화관 태권관 | 창 | | | | | | | | | | | | | | | | |
| 무주전통생활 문화체험관 | 판 | | | | 선데이리그 A 81분 p.43 | | | 바쿠라우 B 132분 p.68 | | | | | 피넛 버터 팔콘 B 97분 p.55 | | | | |
| 무주청소년 수련관 | 판 | | | | | 멋진 세계 B 126분 p.49 | | | 말아 B 74분 p.42 | | | | 비츠 B 101분 p.50 | | | | |
| 무주등나무 운동장 | 락 | | | | (공연) 웨이브 투스 어스 p.96 | | (북트크) 요조 p.90 | | (공연) 김수영 p.96 | | (공연) 아도이 p.96 | 자산어보 B 126분 p.77 | | 레이니 데이 인 뉴욕 B 92분 p.77 | | | |
| 덕유산 국립공원 | 숲 | | | | | | | | | | | 사운드 오브 메탈 B 120분 p.84 | 세이프오브무직: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A 64분 p.84 | |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 데 아드 B 99분 p.84 | | |



무주산골영화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영화제 기간 중 모든 행사장 내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13 일

| 공간 | 섹션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16:00 | 17:00 | 18:00 | 19:00 | 20:00 | 21:00 | 22:00 | 23:00 | 24:00 | 01:00 |
|-----------------|----|-------|-------|------------------------------|------------------------------------|-----------------------------------|------------------------------|-----------------------|--------------------------|-------|---------------------------|------------------------------------|-------------------------|-------|--------------------------|-------|-------|
| 산골영화관 반디관 | 창 | | | 성적표의 김민영 A 94분 p.35 | | 좋은 사람 B 98분 p.38 | | | 등글고 등글게 B 88분 p.33 | | | 아이카 B 114분 p.52 | | | | | |
| 산골영화관 태권관 | 창 | | | | | | | | | | | | | | | | |
| 무주전통생활 문화체험관 | 판 | | | | 라임크라임 B 82분 p.42 | | | 잘리카투 B 91분 p.53 | | | 아쿠아리우스 B 145분 p.66 | | | | | | |
| 무주청소년 수련관 | 판 | | | | | 인재홍 단편선 & M/V A 70분 p.60 | | 운디네 B 90분 p.52 | | | 3개의 얼굴들 B 101분 p.46 | | | | | | |
| 무주등나무 운동장 | 락 | | | | (공연) 이민준 의 오케 스트라 p.98 | | (공연) 뮤직 라이브 무주 p.97 | 시 상 식 p.30 | | | 소리꾼 B 119분 p.78 | (공연) 소리꾼 p.98 | | | | | |
| 덕유산 국립공원 | 숲 | | | | | | | | | | |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B 96분 p.85 | 러브 레터 A 117분 p.85 | | 라스트 레터 A 120분 p.85 | | |

관람 정보

영화제 모든 행사 공간은 규모에 따라 입장 인원이 제한적이므로, 각 행사장 입구에서 대기 후 입장해야 합니다. 선착순 입장입니다. 원하는 영화의 관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람 유의사항

- 상영작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은 꺼주세요. 사진, 영상 촬영은 금지됩니다.

GV 관객과의 대화 관련 유의사항

- '관객과의 대화' 일정은 게스트의 방문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은 홈페이지나 SNS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전체관람가 Ⓜ 12세이상관람가 Ⓟ 15세이상관람가 Ⓢ 청소년관람불가

GV 관객과의 대화 영화 상영 후, 감독이나 배우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T 산골토크 영화 상영 전, 후 영화 전문가와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공연/토크 등 관객 이벤트



- ✓ 입장 관객 전원 발열 검사
- ✓ 전자출입명부 작성 및 마스크, 손소독제 사용
- ✓ 각 행사장 방역 시 입·퇴장 협조
- ✓ 간격 띄워 줄서기

2021년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상내역 (4개 부문 2천만 원)

뉴비전상 (대상) 상금 1천만 원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서 상영되는 영화들 중 한국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시선과 도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화적 비전을 보여준 최우수 영화에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한다.

나뭇상 (감독상) 상금 5백만 원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감독들 중 감독 자신만의 확고하고 개성 있는 영화언어를 통해 한국영화의 지평을 확장하고 가장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준 감독에게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후원: 나뭇리조트)

아빈 크리에이티브상 상금 2백만 원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서 상영되는 영화들 중 연출을 제외한 분야(프로듀싱, 촬영, 미술, 음악, 편집, 연기, 각본 등)에서 특별하고 돋보이는 성취를 거둔 영화의 해당 분야 담당 스태프 및 배우에게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후원: 아빈앤컴퍼니)

심사위원



김일란

다양한 국가폭력 및 차별과 인권침해 현장에서 기록과 투쟁을 비롯하여, 퀴어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에서 활동 중이며,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기도 한다. 작품으로는 용산참사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공동연출, 2012), <공동정범>(공동연출, 2018)이 있다. <공동정범>은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무주관객상 등을 받았다.



박관수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하고 <사과>(강이관, 2008), <만추>(김태용, 2011) 등의 프로듀서를 거쳐 2012년 기린제작사를 설립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경쟁부문 진출작인 <꼭두 이야기>(김태용, 2018), 부산국제영화제 KNN관객상 수상작인 <69세>(임선애, 2019) 등의 영화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페르소나>를 제작했고, 현재 김태용 감독의 차기작 <원더랜드>를 제작 중이다.



장건재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촬영을 전공했고, 장편영화 <회오리바람>(2009), <잠 못 드는 밤>(2012), <한여름의 판타지아>(2014)를 연출했다. 밴쿠버국제영화제 용호상, 페사로영화제 대상, 아시아티카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전주국제영화제 대상,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에는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과 전북영화비평포럼상을 받았다. 최근작으로는 총괄 기획한 장편영화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2020)와 공동 연출한 장편영화 <달이 지는 밤>(2020)이 있다.

영화평론가상 상금 3백만 원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 상영되는 영화 중 영화평론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한 최우수 영화에 상금 3백만 원을 수여한다. 3인의 평론가는 영화제 이후 '창' 섹션 상영작 중 각 1편의 영화를 선정하여 해당 영화에 대한 비평을 작성한다. 이 비평들은 영화제 이후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영화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

영화평론가상 심사위원

남다운

2004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데뷔했다. 영화비평잡지 『필로』에서 고정필진으로 활동했고 현재 공동 편집장으로 일한다. 비평집으로 『감정과 욕망의 시간: 영화를 살다』(강, 2015)가 있다.



이나라

파리 1대학교(팡테옹소르본) 영상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상미학, 영화, 무빙 이미지 강의, 이론연구와 비평을 수행하며 앤솔로지 『알렉산더 소쿠로프』, 『하룬 파로키』 집필에 참여했고 다수의 비평, 연구 논문을 썼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색채 속을 걷는 사람』을 우리말로 옮겼다. 현재 동의대학교 영화·트랜스미디어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미지 문화연구를 하고 있다.



이도훈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거리영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립영화, 에세이영화, 포스트-시네마, 디지털 참여 영상 등에 관한 논문을 썼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쿨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PROGRAM

프로그램



한국
장편영화
경쟁부문

Window of Cinema

Korean Feature Competition

새로운 시선의 영화를 만나다!

창窓

Contemporary Panorama

동시대 영화 지도 그리기!

판場

Cinema Play

초여름의 아름다운 밤을 즐겨라!

락樂

Cinema Forest

영화 보고 별도 즐기는 숲속 영화관!

숲林

Town Cinema

우리 동네에 극장이 생겼어요!

길路

Opening Film

달이 지는 밤

with 라이브 연주

Vestige



06.03(목) 20:00
무주동나무운동장

2013년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시작한 이후 고전영화와 동시대 음악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고전영화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특별한 개막작의 전통을 만들어온 무주산골영화제가 이번에는 최신 영화와 라이브 연주를 결합하여 완성된 아주 특별한 영화 공연을 개막작으로 선보인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은 무주산골영화제가 무주에서 무주군민들의 참여로 완성한 장편영화 <달이 지는 밤>의 라이브 연주 버전이다. <달이 지는 밤>은 무주산골영화제가 한국의 개성 있는 감독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시작한 [무주장편영화제작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자신만의 영화적 개성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 영화감독인 김종관, 장건재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100% 무주 로케이션과 무주 군민들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각각의 완결성을 가진 2편의 단편영화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영화인 동시에 한 편의 장편영화인 <달이 지는 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두 단편이 이미지와 서사적인 영화적 장치를 통해 한 편의 장편영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무주라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두 영화는 무주의 같은 공간과 '유령'과 '위로'라는 주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억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막 공연 및 본 영화의 라이브 연주는 <달이 지는 밤>의 음악감독인 모그와 이민휘 감독이 두 개의 파트를 각각 담당한다. 본 영화에 본래 있던 OST가 빠진 자리에는 실력 있는 두 음악감독이 주도하는 라이브 연주가 곁들여져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켜줄 것이다.

곧 끝날 것 같은 팬데믹 상황은 2021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코로나19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도 더 악화되기도 않은 채 제자리걸음 중이고 내년이 되면 나아질 거라 하지만 내년이 될 때까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이 불안하고 어두운 시기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비판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 아름다운 무주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아름다운 영화가 우아한 음악 선율과 만나 만들어낼 위로의 메시지가 많은 관객들에게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1년 6월 3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인 무주동나무운동장에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시놉시스

중년의 여인이 무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린다. 그녀는 마을 길을 지나 숲으로 들어간다.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리고, 여인은 죽음 너머 삶의 흔적들을 찾기 시작한다. 한편, 민재는 서울에서 학교를 마치고 고향인 무주로 돌아와 군청에서 일하며 혼자자 된 엄마와 함께 산다. 민재의 오랜 고향 친구이자 애인인 태규는 편찮으신 할머니를 간병하며, 조부모의 오래된 집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친구 경윤이 민재를 찾아온다.

감독에 대하여

김종관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플라로이드 작동법>(2004), <아카이브의 유령들>(2014) 등 다수의 단편영화를 연출했고, 장편영화 <최악의 하루>(2016)는 제38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이후 <더 테이블>(2017), <아무도 없는 곳>(2019) 등의 장편영화를 완성했으며, 최근작으로는 <조제>(2020)와 <달이 지는 밤>(2020)이 있다.

장건재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촬영을 전공했고, 장편영화 <회오리바람>(2009), <잠 못 드는 밤>(2012), <한여름의 판타지아>(2014)를 연출했다. 밴쿠버국제영화제 용호상, 페사로영화제 대상, 아시아티카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전주국제영화제 대상,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에는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과 전북영화비평포럼상을 받았다. 최근작으로는 총괄 기획한 장편영화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2020)와 공동 연출한 장편영화 <달이 지는 밤>(2020)이 있다.

감독 김종관, 장건재

한국 | 2020 | 70분 | Color | 극영화 |

전체관람가

STAFF

총괄 프로듀서 유기하, 조지훈

프로듀서 신동환, 김흥민, 윤희영, 김우리

각본 김종관, 장건재 | 촬영 지운재, 문명환

편집 원창재, 이연정 | 음악 모그, 이민휘

미술 박현영, 유정은

라이브연주 크레딧

음악감독 모그, 이민휘

음악연출 및 작·편곡, 작사, 퍼포먼스

연주자 | 베이스 기타 모그, 턴테이블 우주,

더블베이스 임형진, 퍼커션 이정윤

연주자 | 피아노 김재원, 첼로 배성우



WINDOW OF CINEMA 창

주요 제작진 소개

음악감독 모그



현재 한국영화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감독이자 뮤지션이다. 2003년까지 뉴욕에서 재즈를 비롯한 세션 베이시스트로 활동해왔고 귀국하여 2004년 1집 앨범 [Desire]로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의 음악을 맡으며 대중에게 영화음악감독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악마를 보았다>(2010), <도가니>(2011),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등의 작품을 통해 드라마틱하면서도 슬픔이 배어있는 영화음악을 선보였으며, <동주>(2016), <버닝>(2018)에서부터 <반도>(2020), <낙원의 밤>(2021)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영화들의 음악을 책임지고 있다.

음악감독 이민휘



<한여름의 판타지아>(2014), <나의 연기 워크샵>(2016), <버블 패밀리>(2017), <작은 빛>(2018), <최선의 삶>(2020) 등 대표적인 한국독립영화들의 음악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미술, 연극 등의 음악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 밴드 무키무키만만수로 데뷔했으며, 2016년 개인 앨범 [빌린 입]을 발매하여 당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상을 수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음악학과 영화음악을 공부했고, 지금은 서울에 거주 중이다. 최근 '삼승'이라는 프로젝트 밴드로 활동하며 앨범 [상상도]를 발표했다.

개막작 참여 소감 및 연출의 변

모그 | “김종관 감독과의 작업은 늘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와는 이전부터 영화작업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다른 매체를 활용한 작업을 해 볼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는 영화음악과 라이브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하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작업해 놓은 영화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라이브 스테이지에서 얼마나 생동감 있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실험은 늘 나를 설레게 하고 그 설렘 속에서 새로운 지점을 찾을 때의 성취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식이 오늘따라 더더욱 기다려진다.”

이민휘 | “<달이 지는 밤>에서 무주는 집단이 공유하는 기억의 공간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개인에게 실재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온전히 개인적인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억을 만들고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것을 여럿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음악의 성질과도 닮아 있다. 나와 우리,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이 머무르고 있는 기억에 음악이 가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곡 작업을 했다. 이 음악이 다시금 무주로 돌아와 이곳을 채울 때, 우리만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또 하나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서는 전년도 8월 1일 이후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국내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한국영화 중에서 우리가 사는 다채로운 세상을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하여 한국영화의 지평을 넓힌 동시대 한국영화들을 엄선하여 상영한다.

올해 '창' 섹션의 상영작은 총 9편이다. 극영화 6편, 다큐멘터리가 3편이며, 장편 데뷔작이 7편, 두 번째 연출작이 1편, 세 번째 연출작이 1편이다. 작년에 이어 신인 감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인상적인 장편 데뷔작을 찍은 이후 다음 영화를 제작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영화 제작환경의 악화에서도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건, 지난 몇 년간 하나의 경향처럼 느껴졌던 여성 서사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해 경쟁부문의 상영작들은 예년처럼 다양한 소재, 독창적인 형식, 신선한 내러티브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포진해 있으며, 예년에 비해 영화 선정의 기준을 작품성과 다양성에 더 중점을 두고자 했다.

먼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첫 공개된 후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던 극영화 중 총 4편의 장편 데뷔작을 소개한다. 권인표, 서한술의 <종착역>(2020), 정욱의 <좋은 사람>(2020), 이우정의 <최선의 삶>(2020), 이란희의 <휴가>(2020), 이 네 편의 장편 데뷔작들은 최근 몇 년간 나온 어떤 한국영화 수작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독창성과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그대 너머에>(2020)는 현재 한국독립영화 씬에서 거의 유일하게 작가적 세계를 구축하며 자신만의 필모를 쌓아가고 있는 박흥민 감독의 세 번째 영화다.

이와 함께 작년에 공개된 한국 다큐멘터리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두 작품-김기성의 <봉명주공>(2020)과 이동우의 <셀프-포트레이트 2020>(2020)이 상영된다. Home으로써 집과 House로써의 집의 의미, 그 상관관계를 파고든 <봉명주공>과 우연히 만난 가장 영화적인 대상과 카메라를 든 감독과의 우정을 담았던 이동우의 <셀프-포트레이트 2020>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영토를 확장시킨 또 하나의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한국영화와는 결이 다른 예술적 야심이 돋보이는 <동글고 동글게>(2020)는 <입석 부근>, <오버 데어>와 같이 영화와 미술의 경계에서 영상작업을 지속해온 장민승 감독의 첫 장편작업의 결과물이며, 마지막으로 'MZ세대의 청춘 영화'라고 이름 붙일 만한 흥미로운 장편 데뷔작인 이재은, 임지선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2021)은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세계관이 담긴 영화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음을 확인시켜준 반가운 영화다.

올해의 시상내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4개 부문 2천만 원이다. 뉴비전상, 나봄상(감독상), 영화평론가상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극장에 제한된 관객만 수용하게 됨에 따라 올해에도 관객상은 운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부터 아빈 앤컴퍼니의 특별 후원으로 오랫동안 시도하고 싶었던 시상 부문을 신설한다. '아빈 크리에이티브상'(200만원)으로 이름 붙인 이 상은 감독을 제외한 영화의 다른 부문의 성취를 주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창' 부문에서 상영될 다양한 형식, 개성 있는 스타일과 높은 완성도로 무장한 9편들의 영화들은 그 어느 해보다 동시대 한국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상식 AWARDS CEREMONY

6.13(일) 17:40 무주등나무운동장

올해는 별도의 폐막작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감독 박홍민 PARK Hong-min

한국 | 2020 | 119분 | 극영화 | Color

등급 전체관람가

출연 김권후, 오민애, 윤혜리

06.06(일) 17: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06.11(금) 13: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그대 너머에 Beyond You

감독_박홍민

한림대학교 방송통신학과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연출 심화과정을 졸업 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연출을 전공했다. 데뷔작 <물고기>(2011)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에서 초청, 수상했다. 이후 두 번째 장편영화 <혼자>(2015)를 완성하여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45회 로테르담영화제에 초청받았다. <그대 너머에>는 그의 세 번째 장편영화이다.



STAFF

프로듀서 차혜진 | **각본** 차혜진, 박홍민
촬영 김병정 | **편집** 박홍민 | **조명** 최용환
음악 김철환 | **미술** 박홍민
세트 미술 최진연, 신재은 | **분장** 김은영

줄거리

개미가 기어간다. 공원에서 지연과 경호가 만난다. 지연은 경호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인숙이라고 밝힌 뒤 경호가 자신의 친구가 아닌지 묻는다. 과거를 부정하던 경호는 지연을 몰래 뒤따라가 20년 만에 인숙과 재회한다. 그때부터 경호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과거의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경호는 자신이 기억 속에 갇혀있음을 깨닫는다. 한편 경호의 방안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 다닌다. 지연, 경호, 인숙 그리고 개미의 관계는 영화가 시작한 뒤 50여 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밝혀진다. 인물들은 서로의 기억과 의식을 넘나들면서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해간다.

영화에 대하여

현재 한국영화계에서 가장 개성있고,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감독 중 한 명인 박홍민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다. 그는 장편 데뷔작 <물고기>(2011)와 두 번째 영화 <혼자>(2015)에서 미로처럼 복잡한 서사구조를 통해 인물의 내면과 무의식을 담아냈다. 세 번째 영화인 <그대 너머에>에서도 불안, 무의식, 골목길, 미로 같은 내러티브 같은 그의 영화적 입장들은 여전하다. 이번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감독 경호다. 그는 세 번째 장편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 날 첫사랑 인숙의 딸 지연이 경호를 찾아온다.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니냐고 묻는 지연을 따라간 경호는 치매에 걸린 인숙을 만난다. 그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실 경호가 자신이 만난 사람들과의 일을 시나리오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경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속을 헤매고 다니는지 영화의 초반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된 지 50분 정도가 지나고 마법처럼 경호가 이야기가 처음 시작됐던 장소로 돌아오면 경호의 존재는 조금 더 명확해진다. 경호는 감독의 불안한 자아가 투영된 인물이고, 경호를 포함한 영화 속 인물들은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며 실존을 확인하려고 애쓴다. 경호는 유명처럼, 아니 유명이 되어 현실과 판타지, 이야기와 기억 속을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뭔가를 찾아다닌다. 개미로 시작된 영화의 첫 장면이 경호가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와 쓴 시나리오였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면 영화는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 탈출할 수 없는 미로와도 같은 여행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홍민 감독이 이끄는 대로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다.

감독 장민승 JANG Minseung

한국 | 2020 | 88분 | 다큐멘터리 | Color

등급 12세이상관람가

06.05(토) 13: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06.13(일) 17: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둥글고 둥글게 Round and Around

감독_장민승

가구 제작자이자 사진가로, 20여 편의 상업영화 음악 코디네이터와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다양한 경험에서 습득한 매체 언어를 이용해 장르의 경계 없이 협업을 시도하며 <입석부근>(2016), <오버 데어>(2018), <내 정은 청산이요>(2020) 등을 선보인 장민승은 관람자가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둥글고 둥글게>는 그의 첫 장편영화다.



STAFF

프로듀서 홍효숙 | **리서처** 공영민
촬영 stone johnston, 김지현, 이우현, 김선혁
편집 및 컬러리스트 stone johnston
조명 전영석 | **음악** 정재일
조감독 장만민, 이무연

줄거리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기획된 시청각 프로젝트(AUDIO-VISUAL PROJECT)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영상과 음악을 접목한 <둥글고 둥글게>는 비-선형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시공간의 축을 바탕으로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조망한다. 장민승의 감각적인 연출로 새롭게 구성된 역사의 기록물들 위에 시편의 구절로 창작한 정재일의 합창곡이 덧입혀져 '1980년 5월의 광주'를 체험하게 한다. '2021년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관객은 '1980년 그때 거기'로 들어가 역사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영화에 대하여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기획/제작된 시청각 프로젝트인 <둥글고 둥글게>는 <입석부근>(2016)과 <오버 데어>(2018)와 같은 영상 작업을 해온 미디어 아티스트 장민승이 동명의 시청각 전시프로젝트를 싱글 채널화한 장편영화이자 다큐멘터리다. 전체적으로 다섯 파트로 구분된다.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촛불의 이미지로 시작한 영화는 촛불이 꺼지면서 박종철과 이한열, 전두환이 살았고, 수해와 이산가족, 88올림픽이 있었던 80년대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재가 80년대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이렇게 두 번째 파트가 끝나면 날아다니는 비눗방울 사이로 1980년 5월의 광주가 호명된다. 세 번째 파트에선 발췌된 시편의 구절과 학살과 죽음의 현장이 담긴 네거티브 필름 이미지들 위에 정재일의 장엄한 음악을 얹어 학살을 기억하고, 망자를 위로한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인 네 번째 파트에선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구 광주교도소와 구 국군병원의 트레킹 쇼트 이미지들을 통해 1980년대 광주의 풍경을 소환한다. 그리고 희생자와 망자를 상징하는 촛불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은 마지막이자 다섯 번째 파트인 연주되는 피아노의 내부를 촬영한 고화질 영상으로 이어진다. 줄과 연결된 나무조각들이 움직이면서 내는 천상의 소리는 음악이 창조되는 피아노의 물성을 확인시켜 주며, 영화 속 곳곳에서 활용된 풋지 영상들의 물성과 연결된다. 장민승 감독이 그동안 전작에서 시도한 다양한 실험들의 총합과도 같은 <둥글고 둥글게>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 영상과 음악, 감독의 예술적 야심과 위로의 메시지, 촬영된 풋지와 아카이브 풋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5월의 광주를 기억하고 체험하게 하고 위로한다.

감독 김기성 Kim kiseong

한국 | 2020 | 83분 | 다큐멘터리 | Color

등급 전체관람가

06.04(금) 16: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관객과의 대화

06.12(토) 11: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봉명주공 Land and Housing

감독_김기성

독일 쾰른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한 후 고향인 청주에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예술협동조합을 이끌어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46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된 <봉명주공>은 그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STAFF

프로듀서 양민철 | 촬영 김기성, 양민철
편집 안지환 | 음악 레인보우99
출연 홍덕은, 지은숙, 지명환

줄거리

1980년대 지어진 봉명동 주공아파트는 청주의 1세대 아파트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공사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어오다 2019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영화는 애써 담담한 태도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주민들의 모습을 기록한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버드나무와 식물들이 하나 둘 잘려나가고, 주민들이 머물던 공간이 허물어진다. 봉명주공의 사계절이 천천히 지나는 동안 곧 사라질 그곳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봉명주공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다. 봉명주공이라는 작은 마을은 이제 없다. 주민들의 일상을 포착한 사진들만이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영화에 대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주공아파트는 1983년에 완공되어 574가구가 거주했던 청주의 1세대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다. 1층과 2층으로 된 단독 주택, 연립 주택 형태의 건물들이 작은 마을처럼 모여있는 형태이고, 동 사이의 간격이 넓으며, 낮은 담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을 분리시키기보다 연결시키는 특별한 구조의 아파트였다. 40년이 넘도록 한자리에 있다가 재건축 허가를 받은 이 아파트는 이제 철거되어야 한다. 김기성 감독의 장편 데뷔작 <봉명주공>은 봉명주공아파트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한다. 집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Home으로써의 집과 House로서의 집, 전자가 나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으로써의 추상적인 집이라면 후자는 건축된 건물로서의 물리적인 집이다. 영화는 2019년 여름부터 진행된 거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홈으로써의 집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공간에 스며든 기억들을 하나씩 호명하고 기록하는 한편, 철거 전 한적하고 아름다운 아파트 풍경과 사람이 떠나가고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철거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면서 하우스로서의 집의 의미를 성찰한다. 건물이 사라져도 주민들의 기억이 고여 공간의 기억이 되고, 공간의 기억은 도시의 기억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을 따라가던 영화는 결국 사라져버린 공간에 관한 기억의 아카이브가 된다. 집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의 풍경 속에서 홈으로써의 집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독 이재은, 임지선

LEE Jae-eun, LIM Jisun

한국 | 2021 | 94분 | 극영화 | Color

등급 전체관람가

출연 김주아, 윤서영, 손다현, 임종민

06.06(일) 14: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관객과의 대화

06.13(일) 11: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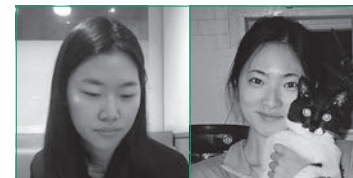
성적표의 김민영 Kim Min-young of the Report Card

감독_이재은

2017년에 단편 <의진이야기>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감독_임지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에 재학중이다. 단편 <노이즈>(2017)의 각본과 연출을 맡아 제11회 대단한 단편영화제에서 KT&G 금관상을 수상했다.



STAFF

프로듀서 조윤빈 | 각본 이재은, 임지선
촬영 김혜수 | 편집 김서영, 이재은, 임지선
조명 김혜수 | 음악 권현정
미술 이혜지 | 조연출 지혜일
믹싱 김규만, 김윤경, 유효정
동시녹음 권민령, 김지원 | D.I 김재민

줄거리

수능을 앞둔 민영과 정희는 '삼행시 클럽' 활동을 중단한다. 그들은 여느 학생들처럼 아침 일찍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으며 시험을 준비한다. 수능이 끝난 후, 민영은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고, 정희는 홀로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다. 어느 날, 정희는 서울에 있는 민영으로부터 초대장을 받는다. 오랜만에 만나 예전처럼 놀 생각에 설렌 정희는 잔뜩 짐을 꾸려 서울로 떠난다. 그러나, 그날 뜬 학점의 정정 요청 메일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는 민영은 그런 정희가 부담스럽다. 영화는 졸업과 동시에 변화하는 그들의 관계를 독특하게 관찰한다. 인물의 내면을 독창적으로 묘사하는 연출에서 톡톡 튀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영화에 대하여

정희는 초대받은 민영의 집에서 절친인 듯 절친 아닌 절친 같은 민영과 잠시지만 함께 지내고서야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둘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고, 허버드에 간 수산나와 셋이 삼행시 클럽을 했던 고교 시절의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19살의 세상과 20살의 세상이 완전히 다르듯, 19살의 우정과 20살의 우정도 마찬가지다. 이 영화는 정희와 민영의 20살 우정에 대한 영화이며, 그 우정이 조금씩 미묘하고 아슬아슬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독특한 리듬으로 담아낸 영화다. 또한 정희가 이제 이전의 관계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된 친구 김민영에 대한 성적표를 작성하면서 친구를 기억하고 오래된 우정을 떠나보내는 영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영화가 창조해낸 세계다. 민영과 정희와 수산나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늘 보던 열등감, 분노, 혐오, 절망, 기쁨 같은 것들이 없다. 여기서 심각한 표정을 짓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는다. 그저 발견하고 응시하고 행동할 뿐이다. 이것이 이 영화가 때때로 비현실적이거나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화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 함부로 화도 못 내고, 짜증도 못 내며, 그렇다고 쉽게 절교를 선언하지도 못한다. 이런 걸 고려하면 이 세계는 그 어떤 세계보다 더 현실적인 세계이며 어쩌면 그 어떤 영화보다 정확하게 우정과 관계의 본질을 담아낸 영화일지도 모르겠다. 작년과 올해 만난 어떤 영화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영화다. 부디 이 세계가 더 확장되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감독 이동우 Lee Dongwoo

한국 | 2020 | 168분 | 다큐멘터리 | Color

등급 15세이상관람가

06.06(일) 11: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06.11(금) 16: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셀프-포트레이트 2020

SELF-PORTRAIT 2020: I look at myself looking at me

감독_이동우

1991년 출생. 한국의 인디 펑크 뮤지션을 다룬 다큐멘터리 <노후 대책 없다>(2016)로 다수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과 제 18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셀프-포트레이트 2020>은 그의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줄거리

<노후 대책 없다>(2016)로 펑크 뮤지션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던 이동우 감독의 두 번째 다큐멘터리이다. 감독은 우연히 만난 노숙자 이상열에게로 시선을 돌려 그의 삶을 따라간다. 아침부터 취해서 이동우 감독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는 브레송, 오즈, 하길종을 입에 올리는 수상쩍은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 <자화상 2000>이라는 단편영화로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클레르몽페랑 단편영화제에 초청된 적이 있다고 한다. 영화는 어쩐지 닳아 있는 두 사람의 우정을 기록한다. 노숙자들의 삶으로 들어간 카메라는 주도권을 지우고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온전히 마주토록 한다.

영화에 대하여

2017년 12월, 이동우 감독은 우연히 노숙자 이상열을 만났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이상열과 세 번째 마주친 날부터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그런데 그냥 술주정뱅이에 노숙자인 줄 알았던 이상열이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20년 전쯤 방송국을 그만두고 36살에 완성한 단편영화가 베니스영화제의 경쟁부문에 초청받은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언젠가 두 번째 영화를 찍고 싶다고 말한다. 이렇게 다큐 감독 이동우와 영화감독 출신 부랑자 이상열의 기묘한 우정이 시작된다. 이동우 감독이 이상열에게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 시작했던 건 '이 사람 느낌이 딱 내 미래'였기 때문이다. 이동우 감독은 초반에 이상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주로 자막으로 오픈한 다음 이상열의 다음 영화 만들기를 실패하는 과정과 고단한 삶을 배치한다. 그리고 이상열이 연출한 단편영화 <자화상 2000>을 쫓아 이 영화의 입구와 출구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박에 중독되어 가는 단편영화의 서사와 주인공을 이상열의 일상과 병치시킨다. 이상열의 영화 위에 자신의 영화를 포개놓는 것이다. 카메라가 늘 이상열의 곁에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영화는 이상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 이상열에 관한 영상과 음성 재료들의 조합하고 조립하여 담아낸 이상열에 관한 영화에 가깝다. 이동우 감독이 우정으로 완성한 영화이자, 오랜 친구 또는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편지이기도 하다. 영화감독 출신의 부랑자 이상열은 차기작 만들기에 실패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감독 이동우는 그 실패를 재료 삼아 차기작을 완성했다. <성적표의 김민영>이 사라지는 우정에 대한 연가라면, 이 다큐멘터리는 우정으로 만들어낸 헌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TAFF

프로듀서 한혜성 | D.I MHV

감독 권민표, 서한솔

KWON Min-pyo, SEO Hansol

한국 | 2020 | 79분 | 극영화 | Color

등급 전체관람가

출연 설시연, 배연우, 박소정, 한송희

06.05(토) 16: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06.11(금) 11: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종착역 Short Vacation

감독_권민표

1991년 강원도 원주 출생.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연출 전공으로, 2017년 단편 <무더위>를 연출했다. 2018년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장편 <종착역>을 연출했다.

감독_서한솔

1991년 대구 출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 후 2018년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장편 <종착역>을 연출했다.



STAFF

프로듀서 한동헌 | 각본 권민표, 서한솔
조연출 조희원 | 촬영 박재만
편집 권민표, 서한솔
동시녹음, 사운드믹싱 박가연

줄거리

중학교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소정, 연우, 송희, 그리고 시연은 일회용 카메라로 세상의 끝을 찍어 오라는 방학 숙제를 받는다. 고민하던 아이들은 전철 1호선의 끝인 신창역으로 떠난다. 그러나 생각보다 힘든 여정에 아이들은 점점 지쳐가고, 특별한 줄 알았던 신창역의 풍경은 아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설상가상 비가 쏟아지고 해도 저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아이들은 낮은 공간에서 하루 머물기로 한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낸다. 아이들의 필름 사진과 그들이 머문 공간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카메라는 영화의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여운을 남긴다.

영화에 대하여

어릴 땐 모든 게 모험이다. 약간의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늘 다니던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날 땐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네 명의 아이들이 느닷없이 1호선의 마지막 역까지 가기로 한 건 순전히 사진반 선생님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와 함께 내준 방학 숙제 때문이었다. 세상의 끝을 찍어와! 30대의 두 감독은 세상의 끝을 찍겠다고 여행을 떠난 네 아이들을 따라 1호선의 끝, 충남 아산의 신창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오른다. 연기 경험이 별로 없는 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설정과 상황만이 주어졌다. 슬레이트도 없고, 리허설도 되도록 안 하고, 두 테이크가 넘어가면 더이상 안 찍고, 잘 안되면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이야기 순으로 찍는다. 이런 원칙 속에서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움직이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한참을 달려 신창역에 도착한 아이들의 여정은 철로의 끝인 구 신창역으로, 우연히 잃어버린 수정이의 휴대폰을 찾아 버스타고 잘 안 다니는 신창면 번두리로, 거기서 다시 시골의 어느 마을회관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은 상황에 따라 씬 없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간다. 너무 생생하고 자연스러워서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들의 대화에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느끼는 딱 그만큼의 감정과 생각과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화는 필름카메라로 찍은 순간의 기록들과 함께 아이들의 대화와 몸짓과 표정을 채집해 나간다. 아이들의 순간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밤도 같이 깊어간다. 함께 새벽을 맞이한 아이들은 그렇게 길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한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어떤 새벽에 대한 영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감독 정욱 JUNG Wook
 한국 | 2020 | 98분 | 극영화 | Color
등급 15세이상관람가
출연 김태훈, 이효제, 김현정, 김중구, 박재은

06.05(토) 11: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06.13(일) 13: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관객과의 대화



좋은 사람 Good Person

감독_정욱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작품인 <Family>(2013)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국내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 연출을 전공하여 미장센단편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졸업작품 <면허시험>(2015)을 상영하였다. <좋은 사람>은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제작연구과정 작품이며 연출자의 장편 데뷔작이다.



STAFF

프로듀서 이형석 | **촬영** 형바우
조명 이유석 | **미술** 김혜진
동시녹음 정상수 | **분장** 헤어 김은미
의상 김정은 | **음악** 장혁진, 장용진
사운드 두럭 | **D.I** Algorithm Media Lab
조감독 이승환

줄거리

경석은 학생들에게 자재로운 고등학교 교사다. 어느 날, 경석의 반에 도난사건이 일어난다. 경석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기회를 주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던 중 한 학생으로부터 세익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경석은 세익을 따로 불러내 자술을 유도한다. 그날 저녁 경석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다. 영화는 여러 사람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범인을 밝혀나간다. 인물들은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 형성되고 프레임화된다. 반전을 거듭하는 증언들은 서사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의심의 구덩이로 밀어 넣는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영화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교실에서 발생한 지갑 도난 사건이었다. 담임인 경석은 세익을 의심하지만 스스로 자수하지 않자, 더 묻지 않고 지갑 주인의 돈을 대신 갚아준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경석은 좋은 선생인가? 급우들이 세익을 도둑으로 의심하자, 선생님은 세익을 추궁하고 결국 반성문을 쓰게 한다. 다시 같은 질문. 경석은 좋은 선생인가? 경석은 급작스레 전혀 지현과 함께 사는 딸 윤희를 며칠 맡게 된다. 오랜만에 만난 어린 딸이 말을 듣지 않자, 화김에 아이를 차에 혼자 두고 잠시 학교에 일을 보러 간다. 그 사이 아이가 사라지고 아이는 사고를 당한 채 발견된다.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 경석은 좋은 아빠가 아닌가? 경석은 아이를 다치게 한 범인을 찾아다니다 딸의 행적에 세익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궁지에 몰린 경석은 이제 의심의 지옥에 빠진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경석은 의심과 믿음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좋은 선생,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경석이지만 일은 점점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는 점점 궁지에 몰린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좋은'이라는 단어는 가치 판단의 단어이며 상대적인 단어다. 우린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욱 감독의 장편 데뷔작 <좋은 사람>은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든다. 총출한 서사 속에서 경석과 세익 사이의 팽팽한 긴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유지되고, 긴장과 반전이 만들어낸 믿음과 의심 사이의 좁은 틈. 그 사이에서 영화는 '좋은'이라는 단어가 관계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캐묻는다.

감독 이우정 LEE Woo-jung
 한국 | 2020 | 110분 | 극영화 | Color
등급 12세이상관람가
출연 방민아, 심달기, 한성민

06.04(금) 13: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06.12(토) 17: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관객과의 대화



최선의 삶 Snowball

감독_이우정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상업영화 편집, 장단편 독립영화 주조연 배우로 활동했다. 단편 <송하나>(2008)로 첫 영화 연출을 시작했으며, 단편 <애드벌룬>(2011)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재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여러 편의 단편을 연출하고, 주조연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제작한 옴니버스장편 <서울연애>(2014)에서 <서울생활>을 연출했다. <최선의 삶>은 첫 장편 데뷔작이다.



STAFF

제작 김형대 | **공동제작** 김순모
프로듀서 백재호 | **원작** 임술아
각색 이우정 | **촬영** 이재우 | **편집** 한영규
조명 이재건 | **음악** 이민휘 | **미술** 유정민
의상 박남일 | **분장** 이수빈 | **무술** 최재욱
디지털 색보정 김승원 | **사운드** 박용기
CG 김현준

줄거리

강이, 소영, 아람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다. 같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어느 날 이들은 가출을 결심하고 집을 떠난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현실이다. 모델로 꿈꿨던 소영은 실패를 경험하고, 아람은 밤늦게까지 술집에서 일한다. 겨우 구해서 들어간 지하 단칸방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곳에서 소영과 강이에게 있었던 비밀스러운 사건은 이들의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결국, 이들은 집과 학교로 돌아간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들의 관계는 점점 더 무너져 간다. 카메라는 갈등하는 강이의 모습을 멀리서 조망하면서 균열의 과정을 지켜본다.

영화에 대하여

멀쩡하던 인간관계는 때론 너무 쉽게 부서진다. 강이, 소영, 아람은 가정환경도 성격도 다르지만 서로 죽이 잘 맞는 절친 여고생이다. 세 친구는 어느 날 가출을 한다. 친한 친구와는 절대 여행까지 마라는 말이 맞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가출에서 돌아온 후 절대 깨질 것 같지 않던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관계의 한 귀퉁이가 부서지기 시작하면 상대는 서로를 핑계기 시작한다. 싸움의 목적은 관계의 복원이 아니다. 한쪽은 기를 쓰고 상대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한쪽은 망가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처참한 개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따윈 없다. 친구가 삶의 전부였던 세계를 함께 살았던 이 세 친구가 이 세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저 최선을, 전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수치심에 몸부림치는 소영은 모든 걸 강이의 탓으로 돌리며 끊임없이 강이를 괴롭히고, 강이는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칼을 든다.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아람은 점점 자신의 세계 속으로 침잠해 들어간다. 이우정 감독은 어느 누구도 쉽게 악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세 친구의 미묘한 감정과 미세한 심리 변화를 입체적으로 담아낸다. 하지만 강이의 목소리로 시작해서, 강이의 목소리로 끝나는 이 영화는 명백하게 강이의 최선에 관한 이야기이고, 동시에 더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더 나은 걸 선택하는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다. 여고생의 세계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건 울퉁불퉁한 인물들에 생명을 부여한 방민아, 심달기, 한성민의 눈부신 연기 덕분이고, 이를 바탕으로 능숙하게 관객을 설득해서 공감을 이끌어낸 이우정 감독의 연출력 때문이다. <최선의 삶>은 임술아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우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감독 이란희 LEE Ran-hee

한국 | 2020 | 81분 | 극영화 | Color

등급 전체관람가

출연 이봉하, 신운섭, 김아석, 김정연, 이승주,

서광택, 황정용, 이승원, 박재형

06.04(금) 11: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06.12(토) 13: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휴가 A Leave

감독_이란희

단편 <파마>(2009), <결혼전야>(2014), <천막>(2016)을 연출했다. <파마>는 제6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제26회 함부르크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김선 감독의 <뇌절개술>(2005), 노영석 감독의 <낮술>(2008) 등에서 배우로 참여하기도 했다.



줄거리

정리하고 무효 소송을 5년째 이어오고 있는 재복은 최종 패소했다. 그렇게 재복은 10일간의 어색한 휴가를 얻는다. 오랜만에 돌아간 집에는 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딸들이 기다리고 있다. 큰 딸의 대학 예치금과 작은 딸이 갖고 싶어 하는 롱패딩 값은 재복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그는 미안함을 덜기 위해 친구의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어색하기만 하던 재복의 휴가는 딸들과 보내는 일상과 노동을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데, 뜻밖의 사건이 재복의 눈에 밝힌다. 클로즈업과 아웃포커스를 통해 재복의 휴가를 찬찬히 따라가는 카메라는 재복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한다.

영화에 대하여

살다보면 끝이 어떨지 뻔히 보이지만, 그래서 도망치고 싶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만 끝나는 일들이 있다. 49세 해고 노동자 재복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 그는 5년 전 동료들과 함께 정리하고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동료들과 매일같이 이 일을 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이제 막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쯤 되면 누구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하지만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재복은 10일간의 휴가 아닌 휴가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반찬을 싸 들고 농성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런 생각과 계속 싸웠을 것이다. 오랜만에 돌아간 집에는 아빠가 절실하게 필요한 두 딸이 있고, 돈이 필요해서 5년 만에 시작한 일은 서둘러도 할 만하며, 가구공장을 하는 친구는 썩 좋은 사장은 아니지만 계속 일을 하면 어떠냐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이 일을 끝내야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은 가끔 열정이란 단어를 오해한다. 이병률의 말처럼 열정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맡겨 흐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열정은 뜨겁지 않지만 절대 식지 않는다. 세상을 바꾼 건 항상 이런 조용한 열정이었다. 딸들의 원망의 눈빛을 뒤로하고 농성장으로 돌아온 재복의 가슴 속에는 차갑지만 뜨거운 것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란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 <휴가>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어느 노동자의 존엄한 영혼과 고독, 고뇌와 열정을 엄격한 형식을 통해 고스란히 담아낸다. 그리고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좀처럼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남긴다. 영국에 칸 로치의 영화가 있다면, 한국엔 이란희 감독의 <휴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STAFF

프로듀서 신운섭 | 조감독 안용해
각본 이란희 | 촬영 노신웅 | 편집 이연정
조명 변상진 | 녹음 한동훈 | 미술 김소희

CONTEMPORARY PANORAMA

판

한국영화

작년과 올해 팬데믹으로 인해 개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잦아지고, 극장 관객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한국영화를 비경쟁부문인 '판'섹션을 통해 선보인다.

먼저 2020년을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다큐멘터리였던 박윤진의 <내인니전지현과 나>(2020)와 한국 영화감독 중 자기만의 확고한 개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종관의 네 번째 장편영화 <아무도 없는 곳>(2021)을 상영하며 이와 함께 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의 단편영화 6편을 상영한다.

또한 작년 국내 주요영화제들을 통해 첫 공개와 함께 호평을 받으며 극장 개봉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2021년 한국영화 최고의 기대작 4편 - 이승환, 유재욱의 <라임크라임>(2020), 김조광수의 <메이드 인 루프탑>(2020), 이성일의 <선데이리그>(2020), 신동일의 <청산, 유수>(2020)가 상영된다. 이와 함께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수상작이자 한국영화이기도 한 박우슬란의 <쓰리>(2020), 그리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첫 공개된 웰메이드 최신 한국영화 2편 - 광민승의 <말아>(2021)와 홍성은의 <흔자 사는 사람들>(2021)이 함께 상영한다.

해외극영화

올해 상영되는 해외 극영화는 총 29편이다. 작년과 올해 극장 사정상 극장개봉작들의 수가 다소 감소했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공개된 영화들의 수가 확대되었다.

먼저 극장개봉을 하지 못하고 곧바로 디지털 시장으로 직행한 6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2018년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인 자파르 파나히의 <3개의 얼굴들>(2018), 대만 상업영화의 저력을 재확인시켜주는 시에 페이루의 <나는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2019), 2019년 키네마 준보 선정 일본영화 베스트 1위를 차지한 아라이 하루히코의 <분화구의 두 사람>(2019), 왕가위 감독이 제작을 맡아 화제가 되었던 완마 차이단의 <진파>(2018), 2019년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인 일라이자 히트먼의 <전혀아니다, 별로아니다, 가끔그렇다, 항상그렇다>(2019), 그

리고 2019년 최고의 영국영화 중 한 편인 닉 로우랜드의 <폭력의 그림자>(2019)를 상영한다.

또한 <노매드랜드>(2020)로 올해 아카데미영화상 3개 부문을 휩쓸며 최고의 스타감독이 된 클로이 자오의 장편 데뷔작 <내 형제가 가르쳐준 노래>(2015)를 상영한다.

이와 함께, 5편의 개봉예정작을 상영한다. 먼저 멕시코의 거장 미셸 프랑코의 최신작 <뉴 오더>(2020), 2020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프랑스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엠마누엘 뮌레의 <러브 어 페어 :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2020), <유레루>, <아주 긴 변명>을 연출한 니시카와 미와의 최신작 <멋진 세계>(2020),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성감독 가와세 나오미의 최신작 <트루 마더스>(2020), 인간 욕망의 지옥도를 그려낸 리조 조세 펠리세리의 역작 <질리카투>(2019)를 상영한다.

또한 왓츠의 협조로, 왓츠 플레이를 통해 공개되었거나, 앞으로 공개될 3편의 최신 영국영화를 상영한다. 스티븐 소더버그가 제작한 브라이언 웰쉬 감독의 <비츠>(2019), 올해 영국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은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최고의 영국영화인 사라 개브론의 <어느 소녀 이야기>(2019), <사운드 오브 메탈>(2019)과 함께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리조 아메데의 출연작 <모굴 모글리>(2020)가 상영된다. 그리고 '숲'섹션에서는 2018년 최고의 다큐멘터리 중 한편인 빙리우의 <화해의 조건>이 상영된다.

마지막으로 작년과 올해의 극장 개봉작에서 엄선한 14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작 <더 파더>(2020), 2019년 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공동수상작이었던 래드 리 감독의 <레 미제라블>(2019)에서부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최신작 <스파이의 아내>(2020)와 세르게이 드 보르체보이의 <아이카>(2018)에 이르기까지 많지 않았던 작년과 올해 극장 개봉작 중에서 엄선한 영화들을 상영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개성 넘치는 수작들로 가득한 본 섹션은 동시대 월드 시네마의 흐름을 조망하고 극장에 가기 꺼리고 있는 분위기로 인해 극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수작들을 확인하고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한국영화 Korean Cinema

관객과의 대화



06.11(금) 13: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내언니전지현과 나 People in Elancia

박윤진 PARK Yunjin

한국 | 2020 | 87분 | 다큐멘터리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일랜시아 왜 하세요?” 이 특별한 다큐멘터리는 게임 ‘일랜시아’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게임회사 넥슨이 1999년 7월 출시한 클래식 RPG 게임 ‘일랜시아’는 회사와 운영진에게 버림받은 일명 대한민국 대표 ‘망겜(망한게임)’이다. 과거에는 높은 자유도와 뛰어난 그래픽으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2008년 이후 업데이트가 중단됐고 이제는 해킹과 자동반복행위인 매크로가 난무한 게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일랜시아에는 아직도 게임을 지키는 유저들이 있다. 16년차 일랜시아 유저이자 ‘내언니 전지현’이란 캐릭터명을 써온 박윤진 감독은 아직도 ‘망겜’인 일랜시아를 하는 유저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영화는 ‘일랜시아’를 떠나지 못하는 유저들을 통해, 동시대를 살고있는 청년들의 삶과 그 고단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관객과의 대화



06.13(일) 13: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라임크라임 LIMECRIME

이승환, 유재욱 LEE Seunghwan, YOO Jaewook

한국 | 2020 | 82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힙합을 좋아하는 소년이자 가수 이센스의 광팬인 송주, 부유한 아파트에서 가정부를 두고 사는 친구 주연, 전혀 다른 성격과 가정환경을 가진 두 사람은 우연히 랩이라는 공통사로 친해지게 된다. 그리고 ‘라임크라임’이라는 힙합팀을 결성한다. 두 소년은 함께 노래를 만들고, 힙합의 성지 ‘밀림’의 무대에 오를 꿈을 꾸면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하지만, 둘의 환경은 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한다. 영화의 제목이자 영화의 중심에 있는 ‘라임크라임’은 이승환, 유재욱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 결성했던 힙합 듀오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이야기 속에서 감독들은 청춘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에너지를 이들이 뿜어내는 랩의 가사와 비트와 리듬을 통해 강렬하게 표현한다. 청춘영화라면 빠지지 쉬운 계몽성과 전형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이다. 영화적 재미와 음악적 재미를 통해 청춘들의 현실과 내면을 담아낸, 가르치려 들지 않는 청춘영화가 탄생했다.

관객과의 대화



06.12(토) 16:30
무주청소년수련관

말아 Rolling Girl

곽민승 KWAK Min-seung

한국 | 2021 | 74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김밥집을 운영하는 엄마 영심이 할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가게를 비우면서 딸 주리는 얼떨결에 김밥집 운영을 맡게 된다. 평소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주리는 영심이 없는 가게를 대신 말아 매일 김밥을 만들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영화는 확진자 방문으로 지인의 뺑집은 문을 닫고 영심의 김밥집도 어찌 될지 모르는 영화 속 현실을 통해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곳곳에서 목격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다. 그리고 여러 재료를 모아 조화로운 맛을 내는 김밥을 정성껏 만드는 엄마와 주리를 통해 코로나19가 앓아간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성찰케 한다. 심달기 배우의 실력력 있는 연기와 그 흔한 반전과 과격한 설정 없이도 이야기를 무리 없이 끌고 가는 곽민승 감독의 안정된 연출력에 눈이 가는 건 <말아>를 통해 이들의 다음 영화를 매우 그리고 많이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객과의 대화



06.04(금) 13: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메이드 인 루프탑 Made in Rooftop

김조광수 Gwangsoo KIMJHO

한국 | 2020 | 85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연인 정민과 헤어지면서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진 취준생 하늘은 옥탑방에 사는 친구인 BJ 봉식의 집에서 머무르기로 한다. 하늘은 헤어진 연인의 연락을 내심 기다리지만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한편, 봉식은 배드민턴장에서 만난 민호에게 고백을 받는다. 20대 게이 커플의 사랑 이야기로, 장편 데뷔작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2012)을 연출한 김조광수 감독이 8년 만에 연출한 신작이다. 두 영화 사이에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존재하지만 영화 곳곳에서 발견되는 감독 특유의 유쾌함과, 우정과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로 그려내는 그의 ‘퀴어’ 세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연배우 이홍내와 정휘의 발랄한 연기는 영화에 생명을 불어넣고, 객인규 배우와 이정은 배우의 맛깔나는 연기는 이 영화에 활력을 더해준다.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펍스’ 작가가 더 유명한 염문경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다.

관객과의 대화



06.12(토) 13: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선데이리그 SundayLeague

이성일 Yi Sung il

한국 | 2020 | 81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지각이 일상,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준일은 한때 잘나가던 축구 유망주였다. 하지만 지금은 후배가 운영 하는 동네 축구교실의 코치로 일한다. 아내와는 별거 중인 데다 항상 돈 걱정을 해야 하는 그저 그런 인생이지만 마음만은 따듯하다. 어느 날 축구교실에 성인 아마추어반 회원 두 명이 들어오고 준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치 자격으로 아마추어 풋살 대회에 나가게 된다. 대회를 위해 결성된 ‘철수 축구단’은 매번 패하지만 준일은 점점 진심을 다해 경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성일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허당 아저씨들이 주인공인 가슴 따듯한 성장 드라마인 동시에 패배가 두려워 미리 도망치는 이들을 위한 위로를 담은 코미디 영화이기도 하다. 이성욱, 심우성 등 캐릭터에 힘을 불어넣는 배우들의 맛깔나는 연기는 이 영화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관객과의 대화



06.06(일) 12:3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쓰리 Three

박루슬란 Ruslan PAK

카자흐스탄, 한국, 우즈베키스탄 | 2020 | 112분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세르는 연방 최고의 수사관인 스테기레프 팀의 인턴으로 발령받는다. 그는 그곳에서 연쇄살인 사건을 맡게 되는데, 수사 도중 살인마가 단순 살인만이 아닌 식인을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잡았지만, 당국에서는 이 사건이 이듬해 열릴 모스크바 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 수감치료를 명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인 박루슬란 감독은 40여 년 전 소련에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엄격한 살인사건과 국가시스템의 부조리를 풀어냈다. 극의 긴장도를 높이는 사각앵글과 인물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붙잡는 클로즈업이 영화의 몰입도를 높여준다. 당대 현실과 시대 분위기에 한층 더 다가서도록 한다.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수상작이다.

관객과의 대화



06.04(금) 20:00
무주청소년수련관

아무도 없는 곳 Shades of the Heart

김종관 KIM Jong-kwan

한국 | 2021 | 83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최악의 하루〉(2016), 〈조제〉(2020) 등을 연출한 김종관 감독의 신작이다. 소설가 창석은 7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다. 그는 며칠 동안 각자 사연을 지닌 여러 인물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꿈을 꾸는 듯한 미영, 지난 사랑을 회상하는 출판사 후배 유진, 죽음을 휴대하는 사진가 성하, 기억을 사는 바텐더 주은 등. 영화 속 그들의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상실, 추억, 죽음 등의 사연은 결국 창석을 통해 삶이란 이름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은 마치 기묘하고 신비로운 하루를 보내는 한편의 단편 소설을 읽는 기분을 들게 한다. 감독은 이번에도 역시 특유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감독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영화에 담아낸다. 창석 역을 맡은 배우 연우진과 배우 이주영, 김상호, 윤혜리, 이지은(아이유)이 각 사연을 지닌 인물들을 연기하며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관객과의 대화



06.05(토) 16: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청산, 우수 Days of Green

신동일 SHIN Dong-il

한국 | 2020 | 89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들고 갑작스레 뛰쳐나간 유수는 마침 정착되어 있던 청산의 차를 타고 무작정 길을 떠난다. 빛 때문에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청산은 무조건 멀리 가달라는 유수의 말에 자신의 고향 공주로 향한다. 영화는 처음 본 남자가 우연히 동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따라간다. 모든 로드무비가 그렇듯 두 청춘 남녀는 길 위에서 각자의 상처를 응시하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다. 결국 사람으로 인해 생긴 상처 때문에 도망치듯 시작된 도피의 여정은 사람으로 인해 위로받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치유의 여정으로 변해간다. 〈방문자〉(2006), 〈반두비〉(2009) 등의 사회 드라마들을 연출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온 신동일 감독의 따뜻하고 사려깊은 시선이 돋보이는 신작이다.

관객과의 대화



06.11(금) 16: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혼자 사는 사람들 Alo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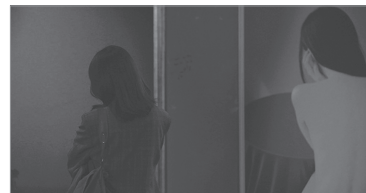
홍성은 HONG Sung-eun

한국 | 2021 | 90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카드사 콜센터 실적 1위 직원인 진아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다. 밥도 혼자 먹고 동료와도 필요한 이야기 외에는 대화하지 않는다. 오로지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에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이다. 어느 날 진아는 출퇴근 때마다 자신에게 말을 걸던 옆집 남자가 고독사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진아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영화 속 '진아'라는 인물은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감독은 주인공을 통해 각자 개인이 가진 고유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시대의 모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영화를 완성해냈다. 단편 〈굿 파더〉(2018)로 주목받은 홍성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며, 배우 공승연의 스크린 첫 장편 데뷔작이기도 하다.

관객과의 대화

김종관 감독 단편선 Director Kim Jong-kwan's Shorts



06.04(금) 16: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폴라로이드 작동법 How to Operate a Polaroid Camera

한국 | 2004 | 6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한 여자가 남자에게 폴라로이드 작동법을 배우고 있다. 남자는 작동법을 열심히 알려주지만, 여자의 시선은 남자에게 멈춰있다. 설레는 첫사랑의 감정은 그녀의 실수로 인해 순간으로 남는다. 제3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유품

한국 | 2014 | 6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한 남자가 4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영화는 그가 머물렀던 시간과 공간을 따라간다. 그리고 점점 사라질 것들에 대해 기록한다. 죽은 남자의 유품과 잊혀질 공간의 이미지가 묘하게 관계를 이룬다. 배우 한 예리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모르는 여자 Unknown Woman

한국 | 2018 | 11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전시장의 한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말을 건다. 남자는 도무지 그 여자가 기억나지 않고 여자는 화를 내고 사라진다. 이윽고 남자가 기다리던 여자가 도착했다. 남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타난 사이, 이번엔 여자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관계의 기억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

별 시 The Other Day

한국 | 2018 | 5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공중전화 부스로 찾아온다. 그들은 그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랠다. 한 남자가 떨어진 공중전화를 주워들면 박효신의 '별 시'가 흐른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지금이 아닌 다른 날을 떠올리게 된다.

메모리즈 Memories

한국 | 2019 | 36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일러스트레이터 현오는 연구원 K와 M에게 자신이 꿰던 꿈에 관해 이야기한다. 꿈속에서 그는 처음 보는 연극배우 주은을 만나고 그녀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가끔 그녀가 되기도 하고, 그녀를 지켜보기도 한다. 꿈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현오는 연구원들로부터 놀라운 진실을 듣게 된다.

하코다테에서 안녕

한국 | 2019 | 6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두 남녀가 이별여행을 떠난다. 하코다테의 차분한 겨울 설경을 배경으로 배우 안소희와 정준원의 목소리가 입혀진다. 그들은 눈 쌓인 거리를 걷고, 사진을 찍고, 아늑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신다. 두 남녀의 목소리는 사람이 없는 하코다테의 공간 속을 부유한다.

해외극영화 World Cinema



3개의 얼굴들 3 FACES

자파르 파나히 Jafar Panahi

이란 | 2018 | 101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배우 베나즈 자파리는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녀가 보낸 영상을 전달받는다. 영상에는 배우를 꿈꾸는 소녀가 집안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극단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베나즈 자파리와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는 직접 소녀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난다.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사이를 넘나들며 이란 내 여성 예술인에 대한 탄압, 더 나아가 이란 사회의 계급과 여성을 바라보는 편견을 노골적으로 은유한다. <담힌 커튼>(2013), <택시>(2015) 등을 통해 이란 사회의 부조리와 계급 문제 등 여러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이란의 거장 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해외 출국 금지를 당한 후 만든 네 번째 장편영화이다. 제71회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다.

06.13(일) 19:30
무주청소년수련관



나는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 Heavy Craving

시에 페이루 Pei Ju Hsieh

대만 | 2019 | 89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영화는 100kg이 넘는 장잉주안이 카트 안에 잔뜩 쌓인 푸딩을 계산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관객은 그녀에게 푸딩이 필요한 이유를 묻기보단 '푸딩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간' 장잉주안의 몸을 보고 있다. '공룡 선생님'으로 불리는 서른 살 장잉주안은 엄마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영양사로 일한다. 뛰어난 요리 솜씨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그의 유일한 적은 살 빼라는 엄마의 구박과 똥똥한 몸매에 대한 사회의 손가락질이다. 결국 그는 극한의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우연히 택배기사 우를 만나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영화는 다이어트라는 익숙한 소재를 활용하여 개인의 정체성과 주제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화 속에서 여자 옷을 입을 걸 좋아하는 유치원생 샤오위 역시 사회의 견고한 편견에 지친 외톨이 중 한 명이다. 감독은 이처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이들이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을 직설적이지만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게 그려낸다. 제56회 대만 금마장영화제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상했다.

06.03(목) 13:30
무주청소년수련관



나의 작은 동무 The Little Comrade

무니카 시멧츠 Moonika Siimets

에스토니아 | 2018 | 103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에스토니아가 소련의 통치 하에 있던 1950년대, 조국의 국기와 영광스러운 과거를 숨기며 살아가는 에스토니아인 헬로의 가족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온다.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이 찾아와 엄마를 체포해간 것. 공산당원과 비밀경찰의 감시와 억압으로 가족들은 괴로워하지만 순진한 딸 여섯 살 헬로는 자신이 착하지 않아서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는다. 헬로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선 소련 공산당을 상징하는 빨간 스카프의 '소년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약소국으로서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를 여섯 살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관조한다. 때론 무지하고 위태로운 아이의 시선은 혹독하고 차가웠던 시대 분위기를 더욱 강렬하고 아이러니하게 담아낸다. 에스토니아 작가 헬로 톤갈의 자전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무니카 시멧츠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상 수상작이다.

06.03(목) 19:30
무주청소년수련관



내 형제가 가르쳐준 노래 Songs My Brothers Taught Me

클로이 자오 Chloe Zhao

미국 | 2015 | 98분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로데오 카우보이>에 이은 세 번째 영화 <노매드랜드>로 올해 아카데미영화상 3개 부문을 석권한 클로이 자오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존은 사우스 다코타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여동생 제이산과 엄마 리사와 함께 산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불법적으로 술을 파는 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자친구 아우렐리아와 LA로 떠날 계획을 하고 있다. 영화는 존의 일상을 따라가며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함께 담아낸다. 그들의 삶 곳곳에는 가난과 범죄, 폭력이 도사리고 있지만 감독의 관심은 범죄 드라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과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다. 영화는 줄곧 섬세하게 연민하지 않고,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낸다. 존의 일상을 통해 보호구역의 이웃들을 차례로 만난 다음, 거대한 암벽 위에 선 존의 아름다운 독백이 시작되면, 우리는 내 형제가 가르쳐준 노래가 무엇인지,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06.03(목) 16: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06.11(금) 16:00
무주청소년수련관



뉴 오더 New Order

미셸 프랑코 Michel Franco

멕시코 | 2020 | 88분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배경은 가상의 미래 멕시코. 길거리에는 빈민층의 폭력 시위가 거세고 상류층 마리안은 집안에서 성대한 결혼식 중이다. 축하와 환대가 넘치는 파티장과 달리 길거리엔 폭동과 약탈이 난무하다. 착한 마리안은 우연히 유모가 아픈 사실을 알고 그녀를 돕기 위해 집을 나선다. 하지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안전과 불안전의 경계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돈 속에 빠져든다. 칸이 사랑하는 감독 중 한 명인 멕시코 감독 미셸 프랑코의 신작이다. 매 영화마다 인간 감정의 극단을 집요하게 포착하며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져온 감독은 이번 작품 역시 디스토피아적 배경을 설정해 하층 계급의 비극적 투쟁과 새 질서를 외치며 타자를 파괴하는 인간의 분노와 공포를 가감 없이 그리고 강렬하게 드러낸다. 제77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은사자 심사위원대상을 받았으며 2020년 올해의 영화리스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수작이다.

06.05(토) 16:30
무주청소년수련관



더 파더 The Father

플로리안 젤러 Florian Zeller

영국, 프랑스 | 2020 | 97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 앤서니는 자신을 돌봐주는 간병인을 모두 내쫓고 이로 인해 딸 앤과 다툰다. 앤은 곧 런던을 떠날 거라며 새로운 간병인을 구하겠다고 하지만 앤서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앤은 파리로 떠나가는 커녕 아버지를 혼자 돌 수 없어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다고 한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 한 앤서니는 그의 딸이 자신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앤서니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공간의 디테일한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치매로 무너져 가는 노인의 심리와 모습을 세밀하게 담아낸다. 극작가였던 플로리안 젤러의 동명연극을 직접 연출하여 완성한 장편 데뷔작이며,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준 안소니 홉킨스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06.03(목) 19: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Love Affair(s): The Things We Say, The Things We Do

엠마누엘 무레 Emmanuel Mouret

프랑스 | 2020 | 122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다프네는 시골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레 출장을 가게 되고, 별장에는 남편의 친척 막심이 찾아온다. 며칠 동안 둘은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닭지 않은 듯 닭아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고 둘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영화는 인간관계에서 인력과 척력이 작용하는 과정과 감정의 온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위트있게 담아내며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가진 복잡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연애담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사는 관객의 호감과 몰입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제73회 칸영화제 공식 선정 작품이며, 독특한 전개와 작품 전반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 에밀리 드켄을 비롯한 네 배우의 뛰어난 연기 때문에 마치 누벨바그 거장 감독 에릭 로메르의 작품을 연상시킨다는 평을 받고 있다.

06.04(금) 16:30
무주청소년수련관



레 미제라블 Les misérables

래드 리 Ladj Ly

프랑스 | 2019 | 104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메이크되어온 『레 미제라블』을 가장 파격적이고 현대적으로 해석해낸 래드 리 감독의 21세기판 <레 미제라블>이다. 지방에서 전근 온 경감 스테판은 크리스, 그와다와 순찰에 나선다. 광패보다 더한 경찰들의 행동과 싸움과 견제가 난무한 상황에 스테판은 당황스럽다. 집시들의 서커스단에서 사자가 사라지면서 사건은 시작되고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인종과 계급의 차별, 험박, 폭력이 가득한 혼돈의 사태로 번져나간다. 세대와 권력에 굴복해온 청소년들의 분노는 경찰이 쓰는 고무탄과 실탄에 맞서 폭약과 야구방망이, 유모차로 표출된다. 다큐멘터리스트로 활동해온 래드 리 감독의 파워풀한 장면 데뷔작으로,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과 별견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 평단의 뜨거운 지지를 받은 2020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화제작이다.

06.06(일) 13:30
무주청소년수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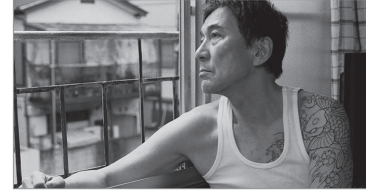
마틴 에덴 Martin Eden

피에트로 마르첼로 Pietro Marcello

이탈리아, 프랑스 | 2019 | 129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이탈리아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네아스트 중 한 명인 피에트로 마르첼로 감독의 최신작이다. 20세기 중반 이탈리아 나폴리. 가난한 선박 노동자 마틴 에덴은 상류층 여자 엘레나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초등교육도 받지 않은 에덴은 그때부터 엘레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 책을 탐독하고, 무언가에 홀리듯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미국 작가 잭 런던의 자전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얼핏 보기에 단순한 멜로영화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적 야심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영화다. 이데올로기와 계급의 대립,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영광과 파멸을 다루고 있으며,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연출로 관객의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사로잡는다. 예술성과 대중성 모두를 사로잡았다는 평가 함께 봉준호 감독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최고의 영화 중 한편'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06.05(토) 19:30
무주청소년수련관



멋진 세계 Under The Open Sky

니시카와 미와 Nishikawa Miwa

일본 | 2020 | 126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야쿠자 미카미는 살인으로 13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건설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갖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다. 그는 어릴 적 헤어진 모친을 찾겠다며 TV프로그램에 출연을 보내고 감독 쓰노다와도 인연을 맺는다. 하지만, 조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쓰레기 취급을 하는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육하고 참음성 없는 성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일쑤이다. 감독은 평범한 삶을 소망하는 한 개인의 모습을 통해 사회에서 고립된 이방인의 풍경, 사회가 부여하는 평범함의 자격과 평범하지 않음의 이데올로기를 역설한다. <유레루>(2006)와 <아주 긴 변명>(2016) 등의 작품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니시카와 미와 감독의 여덟 번째 작품이다. 미카미 역의 배우 야쿠쇼 고지는 관록 있는 연기로 거칠고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완성해냈다.

06.12(토) 13:30
무주청소년수련관



모굴 모글리 Mogul Mowgli

바삼 타리크 Bassam Tariq

영국 | 2020 | 90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영국계 파키스탄인 레퍼 제드는 첫 번째 월드투어를 앞두고 2년 만에 런던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제드는 가족과 갈등을 겪게 되고,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이지만 오히려 이방인이 된다. 그러던 중 몸의 이상증세를 발견한 제드는 자신이 꿈꿔왔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월드투어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이제 걷는 것조차 어려워진 제드는 고통에 시달린다. 바삼 타리크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뮤지션으로서의 자아와 가족들이 지켜온 파키스탄의 전통, 두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주인공의 심리를 세심하게 담아낸다. 스스로 서기 위한 제드의 끊임없는 투쟁은 육체의 질병을 넘어 정신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제70회 베를린영화제에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수상했다.

06.04(금) 19: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베이비티스 Babyteeth

새넌 머피 Shannon Murphy

오스트레일리아 | 2019 | 117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고교생 암한자 밀라는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낸다. 그러던 중 우연히 승강장에서 불량배 모지스를 만나고 심장이 터질 듯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빠진다. 밀라는 온몸으로 느낀다. 이것은 사랑이다! 가족한테도 외면받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모지스 역시 밀라를 만나고 그녀의 가족과 함께 하는 날들이 늘어난다. 둘의 사랑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다름은 어느새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작용한다. 쌀알처럼 새하얀 유치(乳齒)가 빠지면서 점차 어른이 되어가는 보편적인 성장 과정은 밀라와 모지스의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통해, 그리고 밀라의 죽음과 살아남은 가족들의 상실감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된다. 드라마 <킬링 이브> 시즌3 연출자로 이름을 알린 오스트리아 감독 새넌 머피의 장편 데뷔작이다.

06.03(목) 16: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분화구의 두 사람 It Feels So Good

아라이 하루히코 Arai Haruhiko

일본 | 2019 | 116분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결혼을 앞둔 나오코는 사촌이자 전 연인이었던 켄지와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발견한다. 서로를 갈구하던 이십 대에 찍은 둘의 누드 사진이다. 나오코는 결혼 전 켄지와 다시 한번 뜨거운 관계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다. 출장 간 예비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5일. 이들의 노골적이고 뜨거운 일탈에 주어진 시간이다. 나오키상 수상작가인 시라이시 카즈후미의 작품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감독 아라이 하루히코의 세번째 연출작이다. 영화 속에서 후지산은 300년 만의 대분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 대재앙을 앞두고도 무서우리만큼 평온하기만한 일상 속에서 두 남녀는 서로를 열렬히 탐하고 갈망한다. 이들은 그저 현재를 살고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대분화는 이들이 지금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동일본지진 이후 일본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는 허무와 공허의 기운을 뛰어난 연출력과 울통불통한 캐릭터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영화로 키네마준보가 선정한 2019년 일본영화 베스트 1위에 선정된 작품이다.

06.05(토) 19:00
무주청동생활문화체험관



비츠 Beats

브라이언 웰쉬 Brian Welsh

영국 | 2019 | 101분 | 극영화 | B&W/C | 15세이상관람가

1994년 영국, 집회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걸쳐 연속적인 박자의 음악재생을 불법화하는 '공공질서형사정의법'이 발효된다. 청년들은 정부의 구속과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저항하고 자유로운 음악과 춤으로 혁명을 꿈꾼다. 이사를 앞두고 곧 작별해야 하는 십대 조노와 친구 스페너는 거칠지만 자유로운 혁명에 동참하기로 하고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한다. 영화는 질주하는 청춘의 넘치는 에너지를 음악과 춤을 매개로 무한대로 방출한다. 심장을 때리는 음악의 사운드와 자유를 갈망하며 이리저리 부딪히는 청춘들의 젊음은 흑백의 화면에서 보다 대비적으로 강조된다. 청춘의 가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와 그들의 문화를 감각적인 비주얼로 담아낸 작품으로 제48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수상작이다.

06.12(토) 19:30
무주청소년수련관



비홀드 마이 하트 Behold My Heart

조슈아 레오나드 Joshua Leonard

미국 | 2018 | 81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다정한 남편이자 뮤지션이었던 스티븐이 사고에 휘말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 잘나가는 광고회사 직원인 아내 마거릿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날들에 빠져든다. 착한 아들 마커스는 그런 엄마를 다시 일으키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행복했던 가정은 가정의 죽음으로 뼈저리게 시작하고, 엄마와 아들은 발가벗어진 서로의 내면을 보게 된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이들에게 스스로를 안고 다독일 용기가 필요하다. 영화는 만취, 무력감, 동질감, 고립, 물입 등으로 챗터를 나누어 사랑했던 가족의 죽음 이후 남겨진 이들이 겪게 되는, 슬픔으로부터 시작해서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감정적 여정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메이 숙모로 익숙한 마리사 토메이가 마거릿을, <린 온 피트> <울 더 머니>의 찰리 플러머가 마커스 역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 앙상블을 선보인다.

06.11(금) 21:0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소년시절의 너 Better Days

중국상 Derek Kwok-cheung Tsang

중국 | 2019 | 135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사기꾼 엄마를 둔 명문대 지망생 첸니엔은 하교 중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 당하는 베이로 만난다. 좋은 대학만 진학하면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 우등생 첸니엔과 주먹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베이는 다른 점이 더 많지만, 상처받고 외로운 내면을 가진 둘은 점점 가까워진다. 베이는 지독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첸니엔을 지켜주기로 마음먹고 그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보호한다. 둘을 기다리는 잔인한 운명 앞에서 이들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학교 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평단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2017)에서 눈부신 연기를 보여준 배우 주둥우가 첸니엔 역을 맡아 폭발적인 에너지를 다시 한번 선보인다. 제39회 홍콩영화금상장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8개 부문을 수상한 2019년 최고의 아시아 영화 중 한 편이다.

06.11(금) 19:30
무주청소년수련관



스파이의 아내 Wife of a Spy

구로사와 기요시 Kurosawa Kiyoshi

일본 | 2020 | 116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일본영화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첫 시대물로, 제77회 베니스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평단과 관객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화제작이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0년,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유사쿠는 만주에서 일본군의 생체 실험 등의 각종 참상을 목격한 후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는다. 이를 알게 된 아내 사토코는 남편의 행동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부부는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지만 결국 사토코는 스파이의 아내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 영화는 주요 인물들의 관계와 그 속에서 반복되는 믿음과 의심을 통해 서스펜스를 쌓아가고, 만주생체 실험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을 주제로 전쟁과 폭력, 인간의 광기를 담아내는 한편 이를 통해 동시대 일본의 현재를 성찰하고 있다.

06.03(목) 13:00
무주청동생활문화체험관



썸머 85 SUMMER OF 85

프랑소와 오종 Francois Ozon

프랑스 | 2020 | 101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1985년 프랑스 노르망디. 홀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물에 빠진 알렉스는 우연히 자신을 구해준 다비드와 사랑에 빠진다. 모든 순간, 매일,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랑이 되어버린 그들은 둘 중 한 명이 죽으면 무덤에서 춤을 추자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감정은 균형을 잃고 폭주한다. 에이든 চে임버스의 소설 『내 무덤에서 춤을 추어라』를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2020년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자 프랑스의 대표 감독인 프랑소와 오종의 19번째 장편영화다. 슈퍼 16mm 필름으로 촬영되어 1980년대 중반의 시대 분위기를 그럴 듯 하게 담아내면서 질감과 색감, 촉감 등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 영화에 묘한 관능을 부여한다. 이들의 사랑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질주하는 오토바이처럼 때론 위태로워 보이지만, 중력을 거스르는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하며,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한여름 바닷가의 햇볕처럼 눈부시고 아프다. 사랑과 죽음, 섹슈얼리티, 집착과 광기가 혼합된 판타지적 스릴러 영화이자 아픈 사랑을 담은 멜로영화다.

06.06(일) 19:30
무주청소년수련관



아이카 Ayka

세르게이 드보르체보이 Sergei Dvortsevoy

러시아 연방 | 2018 | 114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영화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로 시작한다. 산모 아이카가 지친 모습으로 힘겹게 일어난다. 젓 먹일 준비를 해야 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병원 창문을 부수고 아이로부터 달아난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곧바로 직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상 폭설이 쏟아지는 혹한의 겨울, 유명처럼 도시를 부유하는 아이카는 엄마 젓을 기다리는 한 갓난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닭장 같은 호스텔에 모여 사는 불법 체류자 중 하나일 뿐이다. 영화는 모스크바로 이주한 한 여성의 고된 삶을 가까이에서 관조한다. 감독은 꿈을 찾아 도달한 공간에서 동물보다 못한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다움이 사라진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툰판>으로 제61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받으며 데뷔한 세르게이 드보르체보이 감독의 신작이다. 아이카 역을 맡은 배우 사말 예슬라모바는 제71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06.13(일) 19: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어느 소녀 이야기 Rocks

사라 개브론 Sarah Gavron

영국 | 2019 | 93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흑인 십대 소녀 락스는 15살이다. 학교 선생님은 이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락스는 모든 에너지를 쉽지 않은 자신의 일상에만 쏟아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아빠는 죽었고, 엄마는 갑자기 머리 좀 식히겠다며 집을 나가 버렸다. 미성년자인 락스는 어린 동생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온 좋게도 락스는 혼자만 아니다. 친구들이 있다. <어느 소녀 이야기>는 동부 런던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십대 소녀들의 활기 넘치는 초상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녀들은 서로 우정을 나누고, 연대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하나의 경향이 된 여성 서사 영화의 흐름 안에 있으면서도 켄 로치로 대변되는 영국의 사회적 리얼리즘의 계보와도 맞닿아 있다. 올해 영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하여 무려 7개 부문의 후보에 오른 작년과 올해를 대표하는 영국 영화 중 한 편이다.

06.03(목) 16:00
무주청소년수련관



운디네 Undine

크리스티안 페츨트 Christian Petzold

독일, 프랑스 | 2020 | 90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피닉스>(2014), <트랜짓>(2018) 등을 통해 독일인들의 정치, 사회적인 불안에 밀도 있게 그려온 크리스티안 페츨트 감독의 2020년 최신작이다. 영화는 도시개발 전문 역사학자이자 박물관 관장 가이 드 운디네가 실연을 당한 이후 산업잠수사인 크리스토프를 만나면서 겪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영화의 제목이자 주인공 이름인 운디네는 독일의 설화에 기반한다. 신화 속 운디네는 강이나 샘에 사는 정령으로 인간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상대가 배신하면 그를 죽이고 다시 물로 돌아가야 하는 비극적 운명을 지녔다. 영화는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도시와 물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독일의 아픈 역사와 몽환적 신화를 현대적이며 감각적으로 조합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여우주연상,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상했다.

06.13(일) 16:00
무주청소년수련관



잘리카투 Jallikattu

리조 조세 펠리세리 Lijo Jose Pellissery

인도 | 2019 | 91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조용한 시골 마을의 푸줏간에서 도축 당하던 물소가 도망친다. 마을 사람들이 물소를 잡기 위해 나서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이웃 마을의 사람들까지 몰려들자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물소를 잡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심에 휩싸여 서로를 향한 증오와 검은 욕망을 표출한다. 인간이 갖는 소유욕과 광기, 잔인한 야만성의 지옥도를 이 영화에서 목격할 수 있다. 차세대 말라얄람어 영화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리조 조세 펠리세리 감독의 작품으로, 토론토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후 인도국제영화제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아카데미 미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에 출품된 인도 영화다. 파워풀한 사운드와 특유의 리듬감, 뛰어난 촬영을 통해 인간의 노골적 욕망을 섬뜩하게 재현하고 있다.

06.13(일) 16: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전혀아니다, 별로아니다, 가끔그렇다, 항상그렇다

Never Rarely Sometimes Always

일라이자 히트먼 Eliza Hittman

미국 | 2019 | 101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열일곱 소녀 오웬은 원치 않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자가낙태를 검색하고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몸을 혹사해 보지만 배는 점점 불러온다. 결국 오웬은 사촌 스카일라와 함께 낙태가 금지된 펜실베이니아를 떠나 뉴욕으로 떠난다. 감독은 십대 소녀의 낙태 문제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보다 낙태를 위한 두 소녀의 여정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담아낸다. 부조리한 사회와 부딪치며 끊임없이 파열음을 내는 그들의 여정을 통해 영화는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과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는 극 중 오웬이 간 병원에서 건넨 질문지의 답변 항목들이다.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제36회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등 평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2020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영화 중 한 편이다.

06.03(목) 19: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진파 Jinpa

완마 차이단 Wanma Caidan

홍콩 | 2018 | 87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데뷔 이후 지속적으로 티베트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온 중국 감독 완마 차이단의 여섯 번째 장편영화다. 영화의 시작점은 해발 5,000m에 위치한 중국 시닝시 인근의 티베트 고원이다. 휴먼지 날리는 광활한 고원지대를 트럭 운전사 진파가 운전하고 있다. 그는 걸인 행색으로 황량한 땅을 홀로 걷고 있던 한 남자를 태워주는데 그의 이름 역시 진파이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행 중이다. 이들은 이 짧은 만남이 서로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걸 이때까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영화는 4:3의 화면비와 롱테이크와 롱숏을 통해 티베트의 거대한 자연과 그 안의 작은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감각적이면서도 절제된 시선으로 담아낸다. 또한 복수와 구원, 죽음이라는 주제를 황량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시키며 마치 거대한 티베트 고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제75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존티 부문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으며, 왕가위 감독이 제작했다.

06.06(일) 20: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쿠오바디스, 아이다 Quo vadis, Aida?

야스밀라 즈바니치 Jasmila Zbanic

보스니아 외 8국 | 2020 | 104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데뷔작 <그르바비차>(2006)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인 야스밀라 즈바니치의 최신작이다. 1995년 7월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의 공격을 피해 주민들은 UN캠프로 피신한다. UN군 통역관인 아이다는 캠프 밖에 남겨진 남편과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노력한다. 가족을 살리는 대신 다른 이들을 희생시킬 것이냐는 상사의 질문에 아이다는 갈등하지만 가족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세르비아군이 협상을 제안하면서 상황은 점점 혼돈으로 치달는다. 아이다는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될까. 영화는 잔인한 학살의 현장을 묘사하기 보다 1995년 스레브레니차에서 세르비아군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의 과정을 담담하게 담아낸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분노의 감정을 체험케 한다.

06.06(일) 16:30
무주청소년수련관



타인의 친절 The Kindness of Strangers

론 셰르픽 Lone Scherfig

영국 | 2018 | 115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 두 아이를 데리고 뉴욕으로 도망 온 클라라, 변호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마크,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늘 바쁘게 사는 간호사 엘리스, 능력이 없어 일하는 곳마다 해고를 당하더니 이제는 노숙자 신세가 된 제프. 영화는 모두가 꿈꾸는 도시 뉴욕에서 자신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언 애듀케이션>(2009), <원데이>(2011)를 연출한 덴마크 감독 론 셰르픽의 최신작으로 타인에 대한 친절이 완벽한 타인이었던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어가는지를 감독 특유의 따뜻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공간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감성 드라마.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개막작이다.

06.03(목) 13: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트루 마더스 True Mothers

가와세 나오미 Kawase Naomi

일본 | 2020 | 140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신작이 나올 때마다 칸영화제에 초청을 받는 대표적인 아시아 여성감독인 가와세 나오미의 최신작이다. 일본 도쿄에 사는 중산층 부부 사토코와 키요카즈는 아들 아사토를 입양해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어느 날, 사토코는 자신이 아사토의 친모라고 주장하는 의심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는다. 한편, 중학생 히키리는 남자친구와 풋풋한 사랑을 나누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가족들의 권유로 아이를 입양 보낸다. 감독은 이번에도 그의 주된 관심사인 모성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던진다. 십대의 성과 미혼모, 청소년, 입양 등 예민한 사회적 문제를 통해 모성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담아내면서도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한 제73회 칸영화제 선정작이다.

06.05(토) 19: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폭력의 그림자 Calm with Horses

닉 로우랜드 Nick Rowland

영국, 아일랜드 | 2019 | 100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전직 권투 선수 더글라스는 가족들과 별거 중이지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폭력을 일삼아 온 그는 마약 거래를 하는 데버스 가문을 위해 일하면서 점점 더 폭력적인 삶으로 빠져든다. 어느 날 더글라스는 데버스 가문의 복수를 위해 살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립되어 간다. 닉 로우랜드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폭력에 둘러싸인 한 남성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위태로운 과정을 세심하게 담아내고 있다. 과연 더글라스를 지배하는 가혹한 폭력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을까. <킬링 디어>와 <덩케르크>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던 배우 배리 케오간과 더글라스 역의 코스모 자비스의 연기 앙상블이 돋보인다.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던 제7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수작이다.

06.11(금) 13:30
무주청소년수련관



피넛 버터 팔콘 The Peanut Butter Falcon

타일러 닐슨, 마이크 슈왈츠 Tyler Nilson, Mike Schwartz

미국 | 2019 | 97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가족에게 버림받은 다운증후군 환자 잭의 꿈은 프로레슬러가 되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보호소를 탈출한 잭은 도망자인 어부 타일러를 만나고 이들은 함께 레슬링 학교가 있는 '에이든'으로 떠난다. 실상가상 잭을 찾아 나선 보호소 직원 엘리너까지 합류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세 명의 모험은 시작된다. 과연 잭은 레슬러 '피넛 버터 팔콘'이 될 수 있을까? 험한 뗏목을 타고, 강가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거친 일정이지만 함께 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고단함을 찾기는 어렵다. 어쩌면 이들에게 이런 만남과 모험은 기적과 같은 선물일지도 모른다. 사회에서 소외된 외톨이들이 우연히 만나 꿈을 향해 가는 여정을 거치며 서서히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그린 로드무비이자 버디무비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서서히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06.12(토) 20: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next
actor

안재홍

1986년 출생. 건국대학교 예술학부를 전공한 안재홍은 2009년에 단편영화 <구경>을 시작으로 다수의 장, 단편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다. 2014년 실질적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족구왕>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코믹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영화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위대한 소원>(2016), <임금님의 사건수첩>(2017) 등에서 특유의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며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임을 증명했으며, <소공녀>(2018)에서는 주인공 미소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아 따뜻한 멜로 연기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사냥의 시간>(2020)에 출연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칠고 강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안재홍은 드라마에서도 이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방영된 <응답하라 1988>에서 안재홍은 '정봉이'라는 인물을 통해 영똥하고 귀여운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으며, 이후 2017년에 방영된 <쌈, 마이웨이>(2017)에서는 오랜 연인에게 권태를 느끼고 바람을 피우는 주만을, <멜로가 체질>(2019)에서는 지성과 유머를 겸비한 PD 범수를 연기했다. 그는 출연하는 작품마다 특유의 능청스러운 면서도 사랑스러운 특성을 잘 활용하여 자신만의 인물을 창조해왔다. 또한 학창시절부터 영화연출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2014년 <열아홉, 연주>를 연출해 서울독립영화제 등에 초청받았으며, 2015년에는 이십 대의 우울하지만 희망찬 일상을 담은 <검은 돼지>로 전주국제영화제에 초대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배우 이슴과 합을 맞춰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를 완성했고, 이 영화는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넥스트 액터

안재홍

AHN JAE-HONG



'넥스트 액터 NEXT ACTOR'는 무주산골영화제와 '백은하 배우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배우 특집 프로그램이다. 매년 개성과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배우 한 명을 선정하여 그의 연기 세계를 입체적으로 집중 조명한다. 2019년 신설된 후 배우 박정민과 배우 고아성이 차례로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선정되어 관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세 번째 '넥스트 액터 NEXT ACTOR'는 독보적인 매력, 개성있는 연기로 항상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배우 **안재홍**이다. 2014년 <족구왕>을 통해 제51회 대중상과 제35회 청룡영화상 신인 남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것을 비롯하여, 제2회 들꽃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신인배우의 등장을 알렸다. 이후 <임금님의 사건수첩>(2017), <조작된 도시>(2017), <소공녀>(2018), <해치지 않아>(2020), <사냥의 시간>(2020)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며 대체불가한 매력과 개성 강한 연기력을 선보여 왔으며, 이를 통해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뛰어난 배우임을 증명해왔다. 특히 tvN <응답하라 1988>과 JTBC <멜로가 체질>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뛰어난 코믹 연기를 통해 관객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청춘 스타의 면모를 입증했다. 또한 최근에는 <검은 돼지>(2015)에 이어 단편영화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2020)를 직접 연출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는 등 자신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배우 안재홍은 <족구왕> 이후 크고 작은 역할의 구분 없이 다양한 역할에 도전했고, 매년 성장을 거듭해왔다. 무엇보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하며, 오래도록 관객의 가슴을 '울렁이게' 할 미래가 더 기대되는 배우이기도 하다.

올해 '넥스트 액터 NEXT ACTOR'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배우 안재홍의 연기 세계와 그만의 개성을 만날 수 있는, 배우가 직접 선정한 대표작들을 영화제 기간 중 상영하며, 이와 함께 GV 및 스페셜 야외 토크가 마련된다. 여기에 백은하 소장이 배우 안재홍을 주제로 펼쳐낸 배우론, 작품별 연기론 그리고 안재홍과 나눈 솔직 담백한 인터뷰 등을 담은 특별한 책자가 영화제 기간에 정식 출간된다. 뿐만 아니라 배우 안재홍이 직접 무주 덕유산을 배경으로 제작한 셀프 트레일러가 공개되며, 그의 연기에 대한 소신과 매력 포인트를 살살이 공개하는 전시 프로그램도 영화제 기간 중 선보일 예정이다.

한 배우의 다양한 매력과 그의 연기 철학을 입체적으로 조명해줄 본 프로그램은 배우 안재홍의 다양한 매력과 그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의 성장을 지켜보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NEXT ACTOR

<넥스트 액터 안재홍>

무주산골영화제와 백은하 배우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넥스트 액터' 시리즈가 벌써 세 번째 배우의 이름을 부른다. 독립영화라는 틀 안에서 자라난 '넥스트 액터 박정민'과 **아역배우**라는 산을 넘어온 '넥스트 액터' 고아성에 이어지는 '넥스트 액터 안재홍'은 **감독과 배우**라는 두 개의 역할을 통해 배우의 새로운 길을 탐색 중이다.

장편영화 데뷔작 <1999, 면회>와 <죽구왕>을 거쳐 tvN <응답하라 1988>의 정봉 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었던 안재홍은 어딘가 시대의 흐름과는 엇나간 매력을 가진 배우다. 등직한 쾌남보다는 여러여리한 꽃미남을, 동글동글함 보다는 옛지를, 순정보다는 카리스마를 열렬히 원하는 21세기의 트렌드와 이 배우의 특징은 여러모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순정, 독심, 열정처럼 어느덧 촌스럽고 미련하다고 간주되어버린 단어들이 배우 안재홍 앞에 붙는 순간, 그 어떤 말보다 현재적으로 설득력 있는 수식이 돼버린다.

<응답하라 1988> '정봉'의 인기 이후에도 <임금님의 사건 수첩> <해치지 않아> <사냥의 시간>, 드라마 <쌈, 마이웨이> <멜로가 체질>까지 배우 안재홍은 때론 가까운 이웃으로, 때론 다정한 연인으로, 때론 운명을 함께하는 동료와 친구로 많은 이들의 삶에 응답했다. 동시에 <열아홉 연주>, <검은 돼지>,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중편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까지 감독 안재홍으로서의 필모그래피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이다. 영상을 통한 소통이 누구에게도 특별할 것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부가 되어버린 시대에, 카메라 앞 뒤를 구분 짓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겠다는 배우들의 선택은 '감독 데뷔' 같은 한 개인의 거창한 선언이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처럼 보인다.

2021년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과 함께 발간되는 책 『넥스트 액터 안재홍』은 시대의 조류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배우 안재홍의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 그리고 새로운 생태통로를 찾아 헤매는 어느 배우의 치열한 탐색 과정을 확인하는 책이 될 것이다.

— 백은하 배우연구소 소장

공동 기획



Una Labo Actorology

백은하 배우연구소

백은하 배우연구소 Una Labo Actorology

한국영화의 발전과 그 속에서 배우의 공헌을 지난 20년 간 목격해 온 백은하 소장이 2018년 5월 5일에 문을 연 백은하 배우연구소는 배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배우를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한 명의 배우를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수정된 작가주의(Auteur theory) 연구인 '액톨로지'(Actorology, 배우학)를 기본으로 개별 배우가 카메라 피사체로서 가진 시청각적 장점, 그들이 품고 연마한 선천적 본능과 후천적 기술력, 동료 노동자로서의 협업력과 교감(Communion) 능력, 개별의 삶이 만들어낸 모방 불가의 드라마, 스타로서 산업적 가치, 동시대 아이콘으로서 사회적 영향력 등을 분석합니다. 배우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콘텐츠 기획과 생산, 출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FILMOGRAPHY

필모그래피

방송

- 2015 tvN <응답하라 1988> 김정봉
- 2017 KBS2 <쌈,마이웨이> 김주만
- 2019 JTBC <멜로가 체질> 손범수

영화

- 2009 단편 김한결, <구경> 재홍
- 2010 단편 김한결, <술술> 재홍
- 2012 단편 박선주, <졸업여행> 사촌오빠 / 단편 정지형, <플래쉬 몯 같은 내 생일> 재홍
- 2013 장편 김태곤, <1999, 면회> 승준 / 단편 임대형, <레몬타임> 옥 단편 이은정, <미라의 의지> 재홍
- 2014 장편 우문기, <죽구왕> 흥만섭 / 장편 박범수, <레드카펫> 풍차 장편 윤성호 <쌈남쌈녀> 남자 2호 / 장편 이경섭, <미성년> 태식 장편 윤성호, 전효성, 박현진 <출중한 여자> 안재홍
- 2015 장편 김현석, <쌌시봉> 병철 / 단편 우문기, <슬픈썸> 음향기사 장편 이종필, <도리화가> 고용복
- 2016 장편 모홍진, <널 기다리며> 차형사 / 장편 남대중, <위대한 소원> 갑덕 장편 김태곤, <굿바이 싱글> 덕수 / 단편 김초희, <산나물 처녀> 리차드
- 2017 장편 배종, <조작된 도시> 데몰리션 / 장편 홍상수, <밤의 해변에서 혼자> 승희 장편 문현성, <임금님의 사건수첩> 윤이서
- 2018 장편 홍상수, <풀잎들> 홍수 / 장편 전고운, <소공녀> 한솔
- 2020 장편 손재곤, <해치지않아> 강태수 / 장편 윤성현, <사냥의 시간> 장호

각본, 감독

- 2014 <열아홉 연주>
- 2015 <검은 돼지>
- 2020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넥스트 액터 상영작 소개



06.06(일) 16: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06.12(토) 20:30
산골영화관 반디관/태권관

죽구왕 The King of Jokgu

우문기 WOO Moon-gi

한국 | 2014 | 104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갓 군대를 전역한 복학생 흥만섭은 죽구에 미쳐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인생 계획에 바쁜 다른 대학생과는 달리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죽구와 여자친구 사귀기 뿐. 매일 '죽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온다. 캠퍼스 퀸 안나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녀의 남자친구인 전직 국제축구선수 강민을 죽구경기에서 이기게 된 것이다. 그의 친구와 선배배들이 죽구 열풍에 동참하고 급기야 죽구대회까지 열리게 된다. 흥만섭은 죽구와 사랑을 모두 차지할 수 있을까? 영화는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동시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낸다. 시종일관 유머와 재치를 잃지 않는 작품의 중심에는 찌질하지만 순수한 흥만섭을 연기하는 배우 안재홍이 있다. 지금의 배우 안재홍을 있게 한 안재홍의 출세작이자, 처음으로 장편영화에 출연하여 주연을 맡은 배우 안재홍의 장편 데뷔작이다.



소공녀 Microhabitat

전고운 JEON Gowoon

한국 | 2018 | 106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미소와 남자친구 한솔은 정사를 위해 옷을 벗지만 싸늘한 방의 냉기에 다시 주섬주섬 옷을 걸친다. 구질구질한 현실은 끈질기게 둘러 붙어있고 연인은 서로를 체온으로 안아주며 봄을 기억한다. 바퀴벌레가 들끓는 월세방에 사는 미소는 3년 차 프로 가사도우미다. 담배와 위스키 한 잔, 웹툰 지망생인 남자친구가 유일한 안식처인 그녀는 적자 인생의 끝에서 결국 낡은 월세방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배낭 하나와 낡은 캐리어에 모든 짐을 싣고 학창 시절 함께 밴드를 했던 지인들을 하나씩 찾아간다. 집은 없지만 생각과 취향만은 확고한 미소. 감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이 시대 청춘의 내면을 따뜻하게 담아낸다. 전고운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며, 배우 이솜이 미소 역을 안재홍은 남자친구 한솔 역을 훌륭하게 연기해낸다.

06.04(금) 13:30
무주청소년수련관

06.11(금) 11:00
무주청소년수련관

06.05(토) 13:0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관객과의
대화

06.13(일) 13:30
무주청소년수련관



안재홍 단편선 & M/V AHN Jae-hong's Shorts & M/V

안재홍 뮤직비디오 모음

잘 지내자, 우리 by 질은 연출 | 이호재

그녀 by 에피톤 프로젝트 연출 | 이호재

눈 by Zion T 연출 | 이요섭

이별하긴 하겠지 by 윤종신(with 김필, 천단비) 연출 | 이래경

워커홀릭 by 윤종신(with 하동균) 연출 | 이래경



슬픈씬 Sad Scene

우문기 WOO Moon-gi

한국 | 2015 | 5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여주인공과 봄마이크를 드는 현장 스텝은 비밀스러운 관계이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슬픈씬을 연기하는 여주인공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를 바라본다. 『W Korea』 매거진 창간 10주년 기념 단편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배우 안재홍과 이나영이 짧지만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High Surf Expected

안재홍 AHN Jae-hong

한국 | 2020 | 32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울릉도에 사는 남자친구 철수와 이별하러 온 영희. 영희는 철수에게 갑작스런 이별을 고하고 떠나려 하지만 기상악화로 배가 뜨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묵게 된 영희는 갑자기 구 남친이 된 철수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기 다른 사연의 사람들과 만난다. 배우 안재홍의 감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만드는 세 번째 단편 연출작으로 두 연인의 어색하고 난감한 이별의 마지막 날을 그리고 있다.

CONTEMPORARY CINEASTE 동시대 시네아스트

M J F F
SELECT
무주 셀렉트

KLEBER MENDONÇA FILHO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무주산골영화제는 2018년부터 5편 내외의 장편영화를 연출한 전 세계 영화감독 중 동시대 영화 미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감독이면서도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을 매년 1명씩 선정해 그의 주요 장편영화를 상영하고, 영화평론가의 전문 비평과 함께 집중 조명하는 감독 특집 프로그램 [무주 셀렉트 : 동시대 시네아스트]를 기획, 운영해왔다. 2018년 칸영화제의 총애를 받아온 영국의 대표 여성 감독 안드레아 아놀드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동시대 유럽을 대표하며,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영화감독으로 평가받는 루벤 외스틀룬드를 두 번째 시네아스트로 선정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미국의 풍경을 담은 명상의 시네아스트 켈리 라이카트를 세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한 지 2년째 되는 2021년 올해,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선정한 동시대 시네아스트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이자, 정치와 혁명의 시네아스트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19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때, 레드 리의 <레 미제라블>과 함께 공동으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었다. 영화의 이름은 <바쿠라우>였는데, 이 영화의 두 감독 중 하나가 바로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다. <바쿠라우>는 브라질의 정치적 이슈 때문에 칸영화제 기간 내내 꽤 화제가 되었고,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오랜만에 큰 상을 받은 남미영화였기 때문에 <기생충>과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작년과 올해 훨씬 더 화제가 되었을 영화였다.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는 최근 10년간 등장한 남미 출신의 가장 주목할만한 감독 리스트를 만들 때 가장 위쪽에 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름이다. 남미 출신 감독으로는 2016년 이후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유일하게 두 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링 사운즈>, <아쿠아리우스>, <바쿠라우>, 그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이 3편의 장편극영화는 세 편 모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이른바 '정치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은 영화를 정치와 혁명의 도구로 삼았던 글라우버 로샤와 같은 70년대 남미의 선배 감독들의 자장 안에서 영화마다 장르와 형식이 다소 다르긴 해도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영화들은 기타 다른 정치영화들보다 훨씬 더 영화적이고, 유희적이다. 영화평론가 출신 감독답게 새로운 영화를 만들 때마다 다양한 장르와 영화적 장치들을 거침없이 그리고 자유롭게 활용한다. 전형적인 예술영화의 영토 안에 있었던 <네이버링 사운즈>로 시작된 그의 세계는 명확한 대결 구도를 가진 인물 중심의 할리우드 상업영화의 드라마투르기를 활용한 <아쿠아리우스>의 세계를 거친 다음, 이제 SF, 스릴러, 호러, 웨스턴 등 온갖 장르가 뒤섞인 <바쿠라우>의 세계에 이르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 지는 건 이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장편극영화 3편이 상영되며, 영화제 기간에 맞춰 송경원, 이나라, 정지혜 평론가의 감독론과 개별 작품론이 담긴 공식 책자가 함께 출판된다. 아르헨티나의 루크레시아 마르텔, 칠레의 파블로 라라인에 이어 남미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 동시대 가장 중요한 시네아스트의 자리에 오른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영화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한다.

BIOGRAPHY

바이오그래피

1968년 브라질 페르남부쿠 헤시피 출생. 페르남부쿠 연방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졸업 후 영화평론가와 영화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1990년대부터 자신의 제작사 시네마스코피오 CinemaScopio를 설립하여 다큐멘터리와 실험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2005년 단편영화 <비닐 베르지>(2004)는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되었고, 2008년에는 첫 장편 다큐멘터리 <크리티코>를 완성했다. 이후 2012년에 첫 장편극영화 <네이버링 사운즈>를 완성했다. 일상생활에 반영된 브라질 중산층의 불안과 갈등을 그린 이 영화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고, 몇몇 영화전문매체에서 2012년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에는 두 번째 장편영화 <아쿠아리우스>(2016)를 완성하여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자본과 권력을 은유하는 재개발로부터 자신의 공간을 지켜내려는 클라라의 투쟁을 그린 이 영화는 수많은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클라라를 연기한 소냐 브라가는 제31회 마르델플라타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2019년에는 자신의 오랜 영화 동료인 줄리아노 도르넬레스와 공동으로 연출한 세 번째 장편영화 <바쿠라우>를 완성하여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이제 동시대 가장 중요한 남미 감독이 된 멘돈사 감독은 자본주의, 계급, 부조리, 인종갈등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FILMOGRAPHY

필모그래피

비닐 베르지 Green Vinyl (2004, short)

프라이데이 나이트 새터데이 모닝 Friday Night Saturday Morning (2007, short)

크리티코 Critico (2008, documentary)

레시프 프리오 Recife Frio (2009, short)

네이버링 사운즈 Neighboring Sounds (2012, feature)

더 월드 컵 인 리시프 The World Cup in Recife (2015, short)

아쿠아리우스 Aquarius (2016, feature)

바쿠라우 Bacurau (2019, feature)





네이버링 사운즈 Neighboring Sounds

Director, Screenwriter Kleber Mendonça Filho **Producer** Emilie Lesclaux **Cinematography & Camera** Pedro Sotero & Fabricio Tadeu **Art Diretor** Juliano Dornelles **Editors** Kleber Mendonça Filho & João Maria **Sound Design** Kleber Mendonça Filho & Pablo Lamar **Sound Recording** Nicolas Hallet & Simone Dourado **Soundtrack** DJ Dolores **First Assistant Director** Clara Linhart **Production Managers** Brenda da Mata & Renato Pimentel **Acting Coaches** Amanda Gabriel, Leonardo Lacca **Make Up** Marcos Freire **Costume Design** Ingrid Mata **Starring** Irandhir Santos, Gustavo Jahn, Maeve Jinkings, W.J. Solha, Irma Brown

영화에 대하여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첫 장편 데뷔작이다. 영화는 헤시피에 사는 중산층 사람들의 신경증적인 모습에서 시작한다. 비아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 한편 주앙은 여자친구가 자동차 오디오를 도둑맞자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소음은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한다. 그러나 영화 곳곳에서 발견되는 과거의 흔적들에서 불안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다.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브라질의 공간과 역사에 관한 멘돈사 감독의 고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제41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

리뷰

브라질 북동부의 항구 도시 헤시피에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데뷔작 <네이버링 사운즈>(2012)로 기억될 것이다. 헤시피라는 명확한 지리적, 지정학적 좌표를 구체화하는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방식이란 흡사 민족지학과 문화 인류학자의 접근과 방법론처럼 특정 동네와 거리 안으로 깊숙이 헤집고 들어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을 속속들이 탐색한다. 동시에 범속의 일상에 가려져 미처 알지 못했거나 가시화되지 않았던 누군가의 신경쇠약증과 성적 욕망, 불안과 권태, 다 끝난 줄만 알았던 과거의 한 단면이 불쑥 수면 위로 떠오를 때의 급박함 같은 게 언제나 튀어 오를 준비를 하고 영화 곳곳에 잠복해 있다. 일상의 세밀한 기술을 씨줄 삼고 의문과 미스터리의 기습, 긴장의 증폭을 날줄 삼아 만들어낸 <네이버링 사운즈>라는 그물망이 낚아채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는 특정 장소의 역사를 길어 올리되 그에 자족하며 과거로의 회귀나 노스탤지어의 단꿈에 빠져들지 않는다. 지금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시간이 더 나았노라 향번할 생각도 없다. 그가 시간의 흔적이 남은 장소와 구체적인 지형지물의 특수성을 주목하는 건 오직 '지금, 이곳' 헤시피에 꿈틀대는 욕망과 욕정, 넘실대는 파도, 들숨과 날숨, 공기의 흐름, 변모하고 변화하는 것들과 정확하게 마주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 없는 과거란 무미하고 죽은 것일 뿐이다. 이후 그의 영화에 지속해서 등장할 과거라는 흔적은 오로지 현재의 근거이자 미래의 이유이기에 회자하고 기억되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영화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제약 없는 쇼트 크기는 무엇보다 흥미롭다. 줌인과 패닝을 서슴없이 오가는 카메라의 행로는 유독 강렬하다. 고층 빌딩 숲 헤시피의 풍광을 망원렌즈로 조망하다가 줌인해 들어가 뚫어지라 바라본 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낡고 오래된 집들과 그 근각지. 익스트림 롱슈트로 멀리 녹음 지대가 보이고 이어 포커스를 거뒀을지자 코앞에 있던 작은 볼트가 눈에 들어온다. 곧이어 그 볼트를 손으로 쥐어보는 한 인물의 미디엄 쇼트가 연결되면 앞선 카메라의 시선 이동이 인물의 역동적인 원근의 시선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격발에 가까운 거침없는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사물과 지형을 달리 보고 느끼게 하며 여기에는 설명의 말이나 서사를 뛰어넘으려는 감독의 장난기와 호기심이 엿보이며 때론 인물의 불안과 복잡한 심경을 예감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건 용납하고 싶지 않다는 카메라 무빙은 감독의 비장한 결단이라기 보다는 본능적인 반응, 성정처럼 느껴질 정도다. 카메라 줌이라는 꽤 투박하고 단순한 선택이 그의 영화에서만큼은 유쾌한 리듬, 호탕한 생각, 격정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헤시피 밤바다의 파도처럼 거칠고 그만큼 청량하다.

<네이버링 사운즈>의 헤시피는 어떤 곳인가. 인적도 차도 없는 깊은 밤 어두운 골목에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다. 비아(매브 진킹스)는 이 소리에 잠 못 들고 불안해한다. 주앙(구스타보 잔)은 누군가 간밤에 애인 소피아(이르마 브라운)의 자동차 카세트를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된다. 동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야간 경비원을 자처하는 사내들이 출몰하고 지역 유지이자 주앙의 할아버지인 프란치스코(W.J. 솔라)는 이들에게 자신의 보디가드가 돼줄 것을 제안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군상의 극히 일부만을 언급했고, 장황하고 복잡한 이야기의 또 극히 일부만을 옮겼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 인물 간의 관계에 따라 그들은 동네 어딘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얽혀거나, 잠깐 스치거나, 짧게 조우할 것이다. 서로가 관계를 맺느냐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인물들의 마주침과 스침이 벌어지고 발생하는 바로 그 구체적인 장소와 그곳의 역사가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에게는 훨씬 더 재미나 보인다. 그들이 사는 집안, 대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저택, 시간대별로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는 거리, 주앙과 소피아가 찾아간 외곽의 별장과 극장 터, 낡은 부락, 개발된 콘도와 빌딩 층, 이 모든 게 혼재된 헤시피라는 미스터리. 이 구체적인 장소와 그곳을 오가며 부딪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소리는 영화 안에서 느슨하지만 강력하게 연결된다. 이때의 연결은 무정형적이다. 얼마든지 더 넓은 그물망과 연결되고 확장될 수도 있다. 서사적 설명과 이유는 그물망을 빠져나간 듯 공백으로 남지만 바로 그 이유로 얻는 감각이 있기에 상관없다. 만약 그것을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한다면,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그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 싶다.(정지혜)



아쿠아리우스 Aquarius

Director Kleber Mendonça Filho **Screenplay** Kleber Mendonça Filho **Producers** Émilie Lesclaux, Saïd Ben Saïd & Michel Merkt **Coproducer** Walter Salles **Associate Producer** Carlos Diegues **Executive Producer** Dora Amorim **Cinematographers** Pedro Sotero & Fabricio Tadeu **Editor** Eduardo Serrano **First Assistant Director** Milena Times **Production Designers** Juliano Dornelles & Thales Junqueira **Costume Designer** Rita Azevedo **Sound Designer** Ricardo Cutz **Production Managers** Tiago Melo & Kika Latache **Starring** Sonia Braga, Maeve Jinkings, Irandhir Santos, Humberto Carrão, Zoraide Coletto

영화에 대하여

영화는 클라라가 살고 있는 빌딩인 아쿠아리우스를 중심으로 그녀의 시간을 따라간다. 친척과 이웃들이 한데 모여 복적이던 그녀의 공간은 시간이 지나 재개발을 앞두고 된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사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는 아쿠아리우스를 쉽게 떠날 수 없다. 건설사의 강력한 회유와 위협, 가족의 권유, 이웃들의 불만에도 클라라는 자신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권력이 한 개인의 사적 공간과 살 권리까지 침투해 가는 과정을 통해 동시대 브라질의 모습을 담아낸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정치적 시선이 돋보인다. 클라라의 공간 밖에서 안으로 유명하듯 넘나드는 카메라가 이를 증명한다. 이 영화는 제69회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영되었다.

리뷰

헤시피의 무정형적 연결성에 주목했던 <네이버링 사운즈>의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관심사와 스타일은 <아쿠아리우스>(2016)에 이르러 클라라(소냐 브라가)라는 구체적인 인물과 만나며 한층 더 강력 한 에너지로 드러난다. 194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아쿠아리우스. 우리는 금세 알게 될 것이다. 아쿠아리우스라는 장소와 이름은 곧 클라라 자신, 클라라가 곧 아쿠아리우스다. 개발의 광풍을 맞아 아쿠아리우스의 과거 입주자들은 시세보다 비싼 값을 받고 아쿠아리우스를 떠났을 것이다. 이곳에 남은 최후의 1인은 60대 중반의 은퇴한 음악 평론가 클라라뿐. 클라라에게 아쿠아리우스는 집 그 이상이다. 지난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 그녀와 가족의 역사가 보존된 아카이브, 그녀와 주변 기억의 묘지이



크, 저장소. 아쿠아리우스는 건물의 죽물성을 넘어서서 클라라와 교감하는 또 하나의 캐릭터로 보일 정도다. 자본, 주류, 다수의 논리에 밀리지 않기 위해, 아쿠아리우스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계속 아쿠아리우스에서 살기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그것이 클라라의 저항이다.

무엇이 기억을 지속시키는가. <아쿠아리우스>는 그에 관한 응답의 영화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애인과의 격정적인 사랑을 나눴던 루시아 고모는 부지불식 간에 그때 그 사랑의 현장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는 기억의 발단이자 매개이며 촉매인 목제 수납장을 가만히 응시한다. 수납장은 루시아에게 기억을 불러내는 마법이라고 말하고 싶어질 정도다. 그 수납장은 클라라의 아쿠아리우스 한쪽에 고이 모셔져 있다. 사라진 존재(루시아)-남겨진 사물(수납장)-기억의 전이(루시아에서 관객으로). 느슨하지만, 너무도 구체적인 이 연쇄는 아쿠아리우스와 클라라 사이에 있을 무수한 기억의 연쇄와 닮았다.

카메라가 자율성을 갖고 움직일 때가 있다. 클라라와 아쿠아리우스를 둘러싼 변화의 조짐, 클라라와 아쿠아리우스를 향한 위협의 예고와 이어질 때가 대표적이다. 화면의 왼쪽, 극도의 클로즈업으로 집안 해먹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던 클라라의 얼굴을 비추는데 바로 그 얼굴 너머 창밖으로 아쿠아리우스를 향해 접근해 오는 젊은 부동산 개발업자 디에고가 딥포커스로 동시에 잡힌다. 클라라의 잠든 얼굴과 같은 위치에서 가만히 그녀를 응시하던 카메라의 시선에 낯선 이가 포착되는 순간이다. 다음 쇼트에서 카메라는 아쿠아리우스로 걸어 들어오는 건설 개발사 사람들을 부감으로 내려다보더니 그들이 곧 클라라의 집 문을 두드릴 것을 예견하듯 창을 지나 클라라보다 먼저 문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섰다. 클라라 곁에 머무는 영적 존재의 현시처럼 보이는 이 시선과 움직임은 아쿠아리우스의 그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무리일까.

또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이러한 카메라 무빙은 클라라조차 미처 보지 못한 것, 그녀의 시선 너머에 존재하는 것, 그러나 분명히 그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존재, 사물의 단편을 강하게 환기한다. 아쿠아리우스 바로 앞 보아비아행 해변에서 섹스를 나누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던 카메라는 패닝 해 추구를 하는 동네 아이들을 응시하고 이어 후방으로 움직여 클라라의 창문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해먹에 누워 있는 클라라의 조금은 지쳐 보이는 얼굴을 비춘다. 이어서 클라라는 위층에서 들리는 격한 소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녀가 한 일은 젊은 남자와의 하룻밤의 섹스다. 클라라 주변, 아쿠아리우스 안팎에서 감지되는 들뜨고 흥건한 열기가 넘실댈 때 우리는 클라라의 욕망과 상태를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한다. 클라라라는 한 사람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이 영화의 방식이 그러하다.

강인하고 독보적인 클라라는 집 안팎의 무드와 관계망 속에서 제 존재를 확인하고 제 에너지를 드러낸다. 해변으로 수영을 하러 가고, 사별한 남편의 묘지를 방문하고, 또래 친구들과 음주와 가무를 즐기며, 낯선 남자와 춤을 추기도 하고, 성적 욕망을 나눌 파트너를 구하고, 음악에 관한 전문적인 인터뷰도 했다가 바쁜 딸 대신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가 되기도 한다. 클라라의 정신과 육체, 클라라와 아쿠아리우스, 클라라와 동네/사람들 간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상호 작용이 끝없다. 이 과정 한가운데 있는 클라라, 단단하고 강인하며 아름다운 단독 클라라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최후의 일격은 그 어떤 타협도, 두려움도 없다.(정지혜)

브라질 | 2016 | 145분 | 극영화 | B&W, C

등급 청소년관람불가

06.05(토) 12:30
무주청소년수련관

산골
토크

06.13(일) 18:30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바쿠라우 Bacurau

Director Kleber Mendonça Filho & Juliano Dornelles **Script ,Dialogue** Kleber Mendonça Filho & Juliano Dornelles **Producer** Émilie Lesclaux, Saïd Ben Saïd, Michel Merkt **Music** Mateus Alves, Tomaz Alves Souza **Cinematography** Pedro Sotero **Editing** Eduardo Serrano **Starring** Udo Kier, Sonia Braga, Barbara Colen

영화에 대하여

줄리아노 도르넬레스와 공동연출한 멘돈사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다. 바쿠라우는 다양한 인종, 연령,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마을의 고령 여성 지도자였던 카르멜리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자, 바쿠라우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물탱크 트럭이 총격을 받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가 하면,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난데없이 드론이 날아든다. 농장 사람들과 어린아이가 총살당한다. 바쿠라우를 향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힘에 대항한다. 전작에 비해 장르적 특징을 강조한 이 영화는 자본주의 계급의 부조리와 인종갈등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2019년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리뷰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세 번째 장편이자 줄리아노 도르넬레스의 데뷔작 〈바쿠라우〉(2019). 이들의 공동 연출작은 포부도 원대하게 광활한 우주에서 시작한다. 카메라는 은하계에서 지구로 접근해 들어 가더니 브라질 북동부 상공으로 접어든다. 이내 ‘바쿠라우’로 향하는 길목 위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라며 그때를 알린다.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북동부는 여전히 영화의 주요한 무대이지만 이번만큼은 구체적인 현실의 시공간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대신 ‘바쿠라우’라는 가상의 세계를 설정하고 시간대 역시 지금이 아닌 다가올 미래로 향한다. 바쿠라우는 근 미래에서 확인하게 될 인과응보, 응징과 저항의 세계다. 〈아쿠아리우스〉의 클라라가 자신을 위협하고 몰아붙이는 세계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단독 주체였다면 〈바쿠라우〉는 ‘바쿠라우’라는 마을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의 합작으로 폭력의 세계에 응수해 승리하는 이야기다.



개발주의 논리에서 한참 벗어난 브라질 북동부 오지, 주변화되고 밀려난 사람들, 가난하지만 그들만의 전통과 역사와 공동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일군 땅 바쿠라우.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쿠라우의 물과 전기를 끊고 제 뜻대로 그곳을 지배하려 든다. 시장 토니 주니어와 연결된 문제인 듯하고, 돈으로 매수된 미국의 킬러 집단이 마을을 포위해 들어온다. 인종, 성적 지향, 직업도 다양한 바쿠라우의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장의 탐욕과 킬러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설 것이다. “카르멜리타와 바쿠라우는 함께 살았다.”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카르멜리타가 94세로 생을 마감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했던 이 말에서 개인과 마을의 역사가 등치된다. 마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박물관은 과거 외부의 힘에 맞서 싸운 그들의 역사가 보존돼 있다. 또한, 그곳은 지금 바쿠라우가 직면한 폭력의 최후의 격전지이자 승리의 거점이며 투쟁의 흔적을 미래로까지 보존해야 할 저장고다.

〈바쿠라우〉에는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의 전작에서 예견됐던 장르적 시도가 본격화, 전면화돼 있다. 서부극, 하드보일드 액션, 슬래셔 무비까지 아우를 만만치 않은 장르 혼용은 바쿠라우와 그곳의 공동체가 잉태했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저항의 결기를 드러내는 주요한 방편이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흥건하고 참수에 이어 생매장까지도 천연덕스레 벌어진다. 가장 파괴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방식으로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강력한 메시지다. 그런데 〈바쿠라우〉의 혼종성은 단지 여러 장르가 뒤섞여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얼핏 ‘바쿠라우’는 다른 외부 세계와 일체 연을 끊고 홀로 외떨어져 사는 외딴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CCTV, 드론, 인공위성의 위치 추적 시스템의 일상적 활용은 물론이고 킬러들을 처단한 직역의 주민들만 해도 그렇다. 처단의 실행자에서 참수된 자들을 바라보는 스펙터클의 구경꾼으로 자리를 이동해 그들은 각자의 아이폰(심지어 루이비통 휴대폰 케이스도 있다)과 아이패드 등으로 현장을 찍기 바쁘다. 주술적 세계와 환상을 향한 강한 믿음과 환기부터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디어 메커니즘에 관한 정확한 이해까지 그 모드를 아우른다는 의미의 혼종성이다.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와 줄리아노 도르넬레스가 가리키는 미래란 그러니까 희망의 유토피아도 파국의 디스토피아도 아닌 그 모든 게 뒤섞인 혼돈과 혼종의 상태에 더 가까워 보인다.(정지혜)

키즈 스테이지

KIDS STAGE

무주산골영화제는 2019년부터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어린이 관객과 가족 관객들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야외 어린이 전용관 '키즈스테이지'를 신설, 운영하여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화제 개최가 불가능해지면서 '키즈스테이지' 프로그램을 무주군 내에 거주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을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영화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작년 10월 약 한 달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이 어려워진 무주군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8곳에 찾아가 6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영화관'을 운영했다.

올해에도 '키즈스테이지'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 상영작을 우선 공개하고, 영화제 기간에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 다음, 본 상영은 영화제 기간 이후 적당한 시기에 무주군내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약 상영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로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가족영화 바깥에 있는 영화들을 선보이는 키즈스테이지의 올해 상영작은 프랑스, 홍콩, 독일, 한국으로부터 도착한 총 4편의 영화들이다. 한 자폐 소년이 경극을 준비하면서 성장해가는 홍콩 코미디 <경극소년 리턴즈>(2018), 12살 소년 플로와 반려견 래시의 우정과 모험을 그린 <래시 컴 홈>(2020), 프로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여성 야구선수의 성장기 <야구소녀>(2019),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고전 프랑스 아동 소설을 각색한 <레미: 집 없는 아이>(2018, 더빙판)가 무주의 청소년들을 만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본 영화제 기간에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경극소년 리턴즈>를 특별 상영하고, 영화 상영 후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특별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안쓰러운 건 유아와 청소년들이다. 한참 뛰어놀면서 친구들과 놀고, 더 넓은 세상과 만나야 할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나이에 경험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자주 놓치고 있다. 매년 전북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무주산골영화제의 '키즈스테이지'가 부디 무주의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경극소년 리턴즈 The Wayang Kids

레이몬드 탄 Raymond Tan

싱가포르 | 2018 | 87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엄마에게조차 외면받는 초등학교생 오픈에겐 자폐증이 있다. 학교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 누구와도 소통하기 어렵지만 중국에서 온 유라시아 소녀 바오어가 전학을 오면서 서서히 변화를 겪게 된다. 적극적이고 정직한 소녀 바오어는 오픈의 남다른 마음을 알아채곤 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경극 대회에 함께 참여한다. 경극을 주제로 둘은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았던 오픈은 천천히 세상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영화는 자폐증을 앓는 오픈과 중국인 어머니와 캐나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바오어를 통해 장애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감독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특별한 일이 아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영화를 통해 설득한다.

※ 상영 후 13:00 무주동나무운동장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시네마토크가 진행됩니다.
참석 : 남궁인 의사, 서천석 소장



06.06(일) 11:00
무주청소년수련관



래시 컴 홈 Lassie Come Home

올더디센 하노 Olderdissen Hanno

독일 | 2020 | 96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열두살 소년 플로의 가장 친한 친구는 반려견 래시이다. 아빠가 실직하면서 이사를 가게 된 플로는 래시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저택에 맡긴다.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긴 래시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피해 도망가고, 플로는 래시를 찾아 길을 떠난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 에릭 나이트의 『돌아온 래시』가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국내에선 <달려라 래시>라는 제목의 TV시리즈로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감독은 원작과 TV시리즈에 현대적인 각색을 더해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족 영화를 완성시켰다. 영화는 눈이 탁 트이는 대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반려견과 소년의 험난한 모험을 통해 친구들의 우정과 가족들의 사랑을 아름답게 담아낸다.



레미: 집 없는 아이 Remi, Nobody's Boy 더빙판

앙트완 블로시에르 Antoine Blossier

프랑스 | 2018 | 108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어릴 적 거리에 버려진 레미는 가난한 양부모에게서까지 버림받는다. 고아원으로 끌려가던 중 레미의 노랫소리를 우연히 듣고 재능을 알아본 비탈리스를 만난다. 레미는 비탈리스를 따라 거리의 악단이 되고, 둘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 세상을 향한 가슴 벅찬 노래를 시작한다. 1878년 발표된 프랑스 작가 엑토르 말로의 아동소설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동화인 『집 없는 아이』를 각색한 영화다. 고전 동화를 바탕으로 시대가 추구해온 보편적인 감정과 전인류애적 가치를 아름다운 풍광과 따뜻한 이야기로 담아냈다. 세대를 초월한 레미와 비탈리스 간의 빛나는 우정을 담아내는 동시에 레미의 성장에 담긴 수수께끼를 관객과 함께 풀어간다. 보는 이들에게 작지만 커다란 위안을 안겨줄 따뜻한 가족영화.



야구소녀 Baseball Girl

최윤태 CHOI Yuntae

한국 | 2019 | 105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이름: 주수인, 성별: 여, 나이: 19세(고교3년), 소속: 야구부 투수, 특징: 최고구속 134km, 높은 볼 회전률, 특이사항: 구) 천재 야구소녀. 고교 야구부원인 주수인은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야구부에서 홀로 고군분투한다. 그녀의 꿈은 프로선수 데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번번이 좌절한다. 그러던 중 코치 최진태가 야구부에 새로 온 후 수인은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서기로 한다. 최윤태 감독의 첫 장편영화로 국내 첫 여자 야구선수 안향미 선수의 실화를 모티브로 삼았다. 영화는 갖은 장애물에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투하는 여성, 더 나아가 청춘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장 영화이다. 꿈을 담은 야구공이 주수인의 손을 떠나 하늘을 가를 때 관객은 보이지 않는 쾌감과 뜨거운 응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거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세상의 모든 주수인에게 보내는 힘찬 박수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첫째 날 : 6월 04일 (금)

무대 인사



20:00

무주등나무운동장

상영 후 공연 진행

무대 인사



22:30

무주등나무운동장

다시 만난 날들 Da Capo

심찬양 SHIM Chan-yang

한국 | 2019 | 100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무명의 시간을 보내는 유학파 싱어송라이터 태일은 답답한 마음에 고향을 찾는다. 그는 선배의 음악학원에서 과거에 함께 밴드 활동을 했던 지원과 빌보드 정복을 꿈꾸는 중학생 밴드 '디스토리어'를 만난다. 태일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영감을 떠올린다. 영화는 <어둠 밤>(2017)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인정을 받은 심찬양 감독이 대학 때 만든 창작 뮤지컬 <러브 트릴로지:청춘>을 바탕으로 한다. 음악을 갈망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은 현실에 치여 방황하는 이 시대 청춘들의 초상이다.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이 영화의 음악감독과 더불어 태일 역을 맡아 연기했으며, 지원 역을 맡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장하은과 중학생 세 멤버가 모든 연주와 노래를 직접 소화하면서 화제를 모은 웰메이드 음악영화다.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다.

조제 Josee

김종관 KIM Jong-kwan

한국 | 2019 | 117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사랑의 기억을 떠올려보자. 누군가와 의 여러 순간이 쌓이고 쌓여 사랑이 됐던 그때를. 혹은 그 단단한 감정의 벽이 허물어지며 경험했던 지독한 이별을. <조제>는 바로 이 같은 사랑과 이별의 기억에 대한 영화다. 대학생 영석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넘어져 있는 고장 난 휠체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조제를 만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조제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에서 책과 방안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 평범하지 않은 만남 이후 영석과 조제는 서서히 이끌리게 된다. <최악의 하루>(2016), <페르소나-밤을 걷다>(2018) 등 다수의 장, 단편 연출작들을 통해 인물 간의 미세하고 미묘한 감정을 포착하는 데 탁월한 연출력을 보여주었던 김종관 감독의 최신작이며, 이누도 잇신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2003)의 리메이크작이다. 김종관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도 어둡고 쓸쓸하지만 우울하지 않고, 깊지만 침잠하지 않는 감독 특유의 시선으로 이 특별한 사랑을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낸다.

올해에도 '라극' 섹션을 위한 야외 상영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故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무주등나무운동장에 마련된다. 개막식이 열리고 주요 공연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무주산골영화제의 메인 공간이니만큼 남녀노소, 일반 관객과 마니아 관객 누구나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무성영화 라이브 연주, 한국영화 등 엄선된 영화들이 상영된다. 올해에는 2주간 영화제가 진행되는 관계로, 총 6일간 12편의 국내외 영화들이 상영된다.

6월 4일부터 6일, 첫 번째 주간에는 두 번째 넥스트 액터로 선정되었던 배우 고아성의 열연이 돋보이는 이종필의 <삼진그룹영어 토익반>(2020)과 김종관의 <조제>(2020)가 상영된다. 또한 뮤지션 홍이삭이 주연과 음악감독을 맡은 심찬양의 음악영화 <다시 만난 날들>(2019)의 상영 후에는 홍이삭을 비롯한 4명의 뮤지션이 함께 하는 스페셜 공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내 최장수 국민 MC송해의 인생을 담은 윤재호의 다큐멘터리 <송해 1927>(2020)이 상영되며, 무주산골영화제의 단골 팝밴드 신나는섬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찰리 채플린의 20년대 단편 2편이 상영된다. 마지막으로 우정의 가치와 죽음을 성찰하게 하는 따뜻한 영화 <낙엽 귀근>(2007)도 함께 상영된다.

6월 11일부터 13일, 두 번째 주간에는 총 5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먼저 자유롭고 즉흥적인 리듬을 창조하는 실력파 밴드 까데호의 라이브 연주로 찰리 채플린의 첫 장편 연출작 <키드>(1921)가 상영된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2편, 이준익의 <자산어보>(2019)와 정이삭의 <미나리>(2020)가 상영된다. 또한 한국적 뮤지컬의 새 이정표를 제시한 조정래의 <소리꾼>(2020)이 상영된다. 영화상영과 함께 주연배우이자 뮤지션인 이봉근과 조정래 감독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티모시 살라메의 사랑스러운 연기를 볼 수 있는 우디 앨런의 <레이니 데이 인 뉴욕>(2019)이 상영된다.

별이 쏟아지는 초 여름밤, 무주등나무운동장의 초록 잔디 위에 펼쳐질, 국내외 최고의 화제작들과 실력파 뮤지션들의 공연이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까만 산골 무주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아 줄 것이다.

MEMO

둘째 날 : 6월 05일 (토)

무대 인사



송해 1927 Song Hae 1927

윤재호 Jero YUN

한국 | 2020 | 82분 | 다큐멘터리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1927년생. 올해로 94세,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현역 연예인이자 도시에서 산골마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시청했을 TV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최장수 진행자 송해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영화는 황해도 출신으로 가수, 희극인, 영화배우, 라디오DJ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송해의 모습과 함께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카메라 밖 송해의 모습을 가까이서 담아낸다. 그리고 방송인 송해와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아버지 송해를 오가며 우리가 몰랐던 그의 인생과 아픔을 담아낸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실항민으로 살아온 그의 일대기에는 한국의 현대의 고단했던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사고로 아들을 잃은 그의 내면엔 우리네 부모님의 인생과 한이 녹아있다. 다큐와 극영화, 상업영화와 예술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재호 감독의 최신 다큐멘터리이다.

삼진그룹영어토익반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이종필 LEE Jong-pil

한국 | 2020 | 110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때는 1995년, 국내 최고의 회사인 '삼진그룹'에서 대리 승진을 위해 토익 600점을 목표로 하는 입사 8년차 동기 이자영, 정유나, 심보람. 뛰어난 실무 능력, 동물적인 마케팅 감각,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이라는 탄탄하고 화려한 실력을 갖춘 이들이지만 현실은 담배 심부름을 하며 커피를 타는 고졸 여사원들이다. 외근을 나간 자영은 우연히 공장에서 폐놀이 섞인 검은 폐수를 유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유나, 보람과 함께 회사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시작한다. 91년에 일어난 '낙동강 폐놀 오염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각 인물들의 개성을 살린 배우들의 열연과 90년대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긴 소품과 의상들이 돋보이는 이 영화는 회사의 부조리와 시대적 편견에 '맞짱'을 댔던 용감한 여사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21:40

무주등나무운동장

MEMO

Horizontal lines for notes

셋째 날 : 6월 06일 (일)

모험가 The Adventurer

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미국 | 1917 | 26분 | 극영화 | B&W | 전체관람가



20:00 무주등나무운동장

탈옥수 찰리는 경찰의 눈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우연히 그는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하게 되고, 그녀의 딸인 어여쁜 여인을 만나 선장 행세를 하게 된다. 여인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중 파티장에 탈옥수를 잡으러 온 경찰들이 들이닥치는데... 본 영화는 어쿠스틱 팝밴드 신나는섬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상영된다.

무대 뒤에서 Behind The Screen

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미국 | 1916 | 25분 | 극영화 | B&W | 전체관람가



20:00 무주등나무운동장

영화촬영소 조수 찰리는 넘치는 열정에도 실수를 연발한다. 촬영소 근로자들은 갑작스레 파업을 선언하고 혼란한 틈을 타 여배우가 꿈인 한 여인이 세트장에 몰래 들어온다. 본 영화는 어쿠스틱 팝밴드 신나는섬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상영된다.

라이브 연주: 신나는섬

바이올린, 아코디언, 집시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들로 구성된 신나는섬 (김동재, 최성은, 백연구, 김은옥, 윤영철)은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5인조 밴드이다. 장르에 갇히지 않은, 다채로운 사운드 스펙트럼을 지향하는 신나는섬의 음악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럽 어느 작은 골목 우연히 마주친 집시의 연주를 만난 듯한 들뜬 설렘을 안겨주고 때론 마치 한 권의 동화책처럼 잘 짜여진 기승 전결 속에 사람들의 감성을 파고드는 맑고 깊은 서사를 담아낸다. 2011년 미니앨범 [항해]와 2012년 정규앨범 [망원동로마니] 발표 이후, 2017년 두 번째 정규앨범 [집으로]를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음악연출의 변

희극 속에서도 비애의 감정을 연기하는 코미디 무성영화의 거장 찰리 채플린. 그의 1910년대 단편영화를 통해 무성영화음악 본래의 모습을 재현하려 합니다.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단편 <모험가>, <무대 뒤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고전 명작입니다. 바이올린, 아코디언, 콘트라베이스, 기타와 다양한 퍼커션을 사용해 연주되는 음악은 영화 각각의 시퀀스에 맞춰 새롭게 창작되었으며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아기자기하게 영화를 재해석하였습니다. 스크린 속 이야기와 스크린 밖 신나는섬의 현장 연주는 흑백 화면과 함께 떠나는 특별한 시간 여행이 될 것입니다.



낙엽귀근 Getting Home

장양 Zhang Yang

중국, 홍콩 | 2007 | 101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21:10

무주등나무운동장

한 사내는 같이 일하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아 고향의 가족들 곁에 그를 묻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길을 떠난다. 버스 안에서 만난 강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한 남자, 5,000m의 산을 등반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남자, 보일러 사고로 한쪽 얼굴을 잃은 여자,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노인까지. 죽은 친구를 업고 떠나는 여정에서 사내는 특별한 인연들을 만난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에는 삶의 지혜와 희망이 담겨 있다. 제5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받았다.

넷째 날 : 6월 11일 (금)



키드 The Kid

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프랑스 | 1921 | 53분 | 극영화 | B&W | 전체관람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이자 최고의 희극배우인 찰리 채플린의 첫 장편영화다. 젊은 엄마는 갓 낳은 아이가 부잣집 아이로 크길 소망하며 고급 자동차에 버린다. 우연히 길가를 떠돌던 찰리는 얼떨결에 아이를 맡게 된다. 그 역시 곤궁한 상황이지만 셔츠를 찢어서 기저귀를 만드는 등 때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운다. 다행히 아이는 잘 성장하고 여전히 가난한 찰리는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나가 돈을 번다. 그 이후 여러 해프닝을 겪지만 아이는 결국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간다. 오랜 시간이 지난 고전이지만 채플린의 작품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과 재미, 그리고 위로를 선사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력파 밴드 까데호의 라이브 연주가 영화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20:00

무주등나무운동장

라이브 연주 : 까데호

까데호는 2018년에 결성된 밴드로 흑인음악을 기반으로 잼 연주에서 드러나는 자유로움과 즉흥성을 추구한다. 대한민국 음악씬에서 이미 오랫동안 활동해온 세 멤버 이태훈, 김재호, 김다빈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개성이 온전히 담긴 까데호는 2019년 이후 페스티벌 및 기획 공연의 단골 밴드로 초청되며 인기를 끌었다. 서사무엘, 녁살과 같은 타 아티스트와의 협업도 서슴치 않으며, 공연을 통해 자유롭고 즉흥적인 리듬에 모두가 몸을 맡겨 기분대로 춤을 출 수 있는 댄스음악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음악연출의 변

까데호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즉흥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편곡으로 주인공인 아이와 엄마, 그리고 찰리 채플린 세 명의 테마를 정해놓고 장면에 따라 즉흥적인 연출로 영화 전개를 함께 따라가고자 한다.



미나리 Minari

정이사 Lee Isaac Chung

미국 | 2020 | 115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제이콥의 가족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아칸소로 이주해 온다. 넓은 대지 위에 이동식 주택 하나. 제이콥은 이 외딴 곳에서 자기만의 농장을 가꾸면서 무언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내 모니카는 제이콥이 못마땅하다. 결국, 그들은 아이들을 돌봐줄 모니카의 엄마 순자를 데려와 함께 지내기로 합의한다. 순자는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한국 식재료와 미나리 씨를 가득 가져오지만, 아이들은 낯선 할머니의 모습이 탐탁지 않다. 영화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이민자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21:10

무주등나무운동장

다섯째 날 : 6월 12일 (토)



자산어보 The Book of Fish

이준익 LEE Joon-ik

한국 | 2019 | 126분 | 극영화 | B&W | 12세이상관람가

순조 1년, 정약전은 신유박해로 인해 흑산도로 유배된다. 그곳에서 바다 생물에 해박한 청년 어부 창대를 만난다. 하지만 창대는 물고기 공부보다 학문을 익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정약전은 그에게 글을 알려주는 대신 그의 지식을 빌어 바다 생물에 관한 글을 쓰자고 제안한다. <동주>부터 <박열>, <변산>까지 '청춘 3부작'을 완성한 이준익 감독이 1814년 정약전의 어류학서 『자산어보』 탄생을 통해 또 한 번 청춘을 이야기한다. 수목화 같은 흑백 화면 속 창대의 열망 어린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청춘을 통해 시대를 읽고 화두를 던지는 이준익 감독에게 다다르게 된다. 설경구와 변요한의 압도적인 연기와 마스터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이준익 감독의 원숙한 연출력은 말 그대로 명불허전이다.

20:00

무주등나무운동장



레이니 데이 인 뉴욕 A Rainy Day in New York

우디 앨런 Woody Allen

미국 | 2019 | 92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재즈를 좋아하는 개츠비가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애슐리의 학교신문 취재 차 함께 뉴욕에 오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영화는 줄곧 봄비 내리는 뉴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개츠비와 애슐리, 그리고 그 주변에서 펼쳐지는 낭만적이고 사랑스러운 해프닝들로 채워져 있다. <미드나잇 인 파리>(2011), <블루 재스민>(2013) 등 여러 작품을 통해 뉴욕인들의 감성들을 매력적으로 그려온 우디 앨런 감독의 신작이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우디 앨런 감독은 이번에도 넘실대는 재즈 선율과 뉴욕 곳곳의 이국적인 풍경들을 사랑스럽게 담아내면서 뉴욕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감독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능숙하게 엮어낸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2017)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티모시 샬라메가 개츠비를, 엘르 패닝이 사랑스러운 애슐리를, 셀레나 고메즈는 낭만을 꿈꾸는 첼의 역할을 연기했다.

22:20

무주등나무운동장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horizontal lines.

여섯째 날 : 6월 13일 (일)

무대
인사



소리꾼 The Singer

조정래 Jo Jung-Rae

한국 | 2020 | 119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영조 10년, 아내 간난이 어느 날 사라진다. 소리꾼 학규는 사라진 아내 간난을 찾아 딸 청이와 그의 유일한 조력자인 장단쟁이 대봉, 몰락양반 소리꾼을 필두로 목적지 없는 길을 떠난다. 조선팔도를 유랑하며 울려 퍼지는 이들의 소리는 팍박박는 백성들의 마음을 깊숙이 울리기 시작한다. <두레소리>(2011), <귀향>(2015)을 연출한 조정래 감독의 신작이다. 감독은 정통 판소리 고법 이수자 '고수'로 활동해온 특별한 이력을 바탕으로 귀로 듣는 한국적 뮤지컬 영화를 완성했다. 영화는 권선징악이라는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에서 소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했는지 진솔하게 표현해낸다.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라는 평단의 평가처럼 영화는 백성들의 한과 흥의 정서를 시종일관 간절하고 따뜻하게 담아낸다.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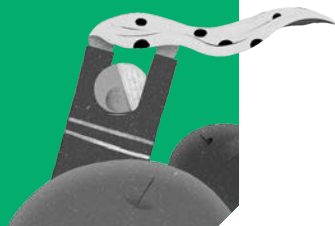
무주등나무운동장

상영후 공연진행

무주산골영화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영화제 기간 중 모든 행사장 내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입장 관객 전원 발열 검사
- ✓ 전자출입명부 작성 및 마스크, 손소독제 사용
- ✓ 각 행사장 방역 시 입·퇴장 협조
- ✓ 간격 띄워 줄서기



CINEMA FOREST

숲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야외 상영장', '야외 상영을 싫어하는 관객들조차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는 야외 상영장'이라는 호평을 받아온 무주산골영화제만의 숲속 극장이 덕유산국립공원의 협조를 받아 올해에도 운영된다.

6월 4일부터 6일, 첫 번째 주간에는 상영될 아름다운 자연을 주제로 한 세 편의 영화 - <마운틴 콘체르토>(2017), <아쿠아렐라>(2018), <그랑블루>(1988)는 덕유산의 까만 밤하늘이 숨막히는 긴장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현장으로, 아름답고 고요한 파랑고 깊은 바다로 바뀌는 마법의 시간을 선사해 줄 것이다. 또한 왕가위 월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화 3편 - <아비정전>(1990), <중경삼림 리마스터링>(1994), <화양연화 리마스터링>(2000)가 차례로 상영되며, 마지막 날에는 가족을 주제로 깊은 감동을 전해줄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3편이 연속 상영된다. 2018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다큐멘터리인 빙 리우의 <화해의 조건>(2018), 2019년에 <미나리>와 같은 환대를 받았던 롤루 왕의 <페어웰>(2019), 그리고 콜린 퍼스와 스탠리 투치의 아름다운 연기양상들이 돋보이는 해리 맥킨의 <슈퍼노바>(2020)가 그 주인공이다.

6월 11일부터 13일, 두 번째 주간에도 3일간 총 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첫째 날에는 설명이 필요없는 장국영이 출연한 최고의 영화 세 편 -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1993),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1997), <부에노스아이레스 제로디그리>(2000)가 연달아 상영되며, 두 번째 날에는 음악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음악영화 3편이 연속 상영된다. 올해 미국아카데미와 영국아카데미에서 각각 편집상의 음향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운드 오브 메탈>(2019)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큰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며, 이 외에도 동시대 최고의 영화음악 감독 중 한 명인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의 영화음악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세이프 오브 뮤직: 알렉상드르 데스플라>(2018), 그리고 레게음악에 흥취 취해볼 수 있는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 데 야드>(2019)가 상영된다. 그리고 올해 덕유산 숲속 극장의 막을 내릴 영화는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일본영화 3편이다. 2019년 최고의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손꼽히는 유아사 마사아키의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2019)과 이와이 슌지 월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러브 레터>(1995)와 <라스트 레터>(2018)가 상영된다.

해발 700m 덕유산 종턱, 무주구천동 33경의 한가운데 위치한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숲속 극장에서 무려 6일간 상영될 사랑과 가족, 음악과 자연, 장국영과 왕가위에 관한 총 18편의 특별한 영화들은 코로나19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관객들에게 말 그대로 오랫동안 잊지 못할 최고의 시간을 선사해줄 것이다.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

첫째 날 : 6월 04일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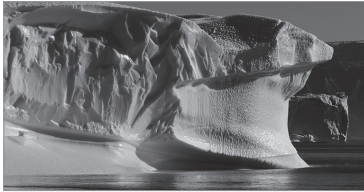
마운틴 콘체르토 Mountain

제니퍼 피덤 Jennifer Peedom

오스트레일리아 | 2017 | 73분 | 다큐멘터리 | Color | 전체관람가

명망 있는 다큐멘터리 연출가 제니퍼 피덤과 세계 최고의 체임버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호주 체임버 오케스트라(ACO)의 협업으로 완성된 영화다. 22개국을 오가며 2,000여 시간 동안 촬영한 산악 풍경 위에 오케스트라의 훌륭한 연주가 쌓인다.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눈 덮인 산의 절경이 감탄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영화는 위대한 자연 속에서 산을 오르며 한계에 도전하고, 더 짜릿한 모험을 찾아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낸다.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윌렘 대포의 중저음 목소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지며 산과 인간, 그리고 삶에 대해 명상케 한다.

20:00
덕유산국립공원



아쿠아렐라 Aquarela

빅토르 코사코프스키 Victor Kossakovsky

영국, 독일, 덴마크, 미국 | 2018 | 89분 | 다큐멘터리 | Color | 전체관람가

영화는 호수에 가라앉은 자동차를 구조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인간이 모는 자동차가 아닌 거대한 얼음이다. 얼음의 단단함과 장엄함을 앞에 둔 인간은 아슬아슬하고 무기력하다.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오랜 호수인 바이칼 호수, 허리케인이 지나간 마이애미 비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양헬폭포에서 포착한 다양한 물의 형태를 실제 움직임의 4배 느린 속도로 촬영했다. 영화는 89분의 런닝타임동안 몇 마디 대사도 나오지 않는다. 별도의 서사도 필요 없다. 경이로운 자연 그 자체가 스토리이고 사운드가 되는 경이로운 경험이 스크린을 통해 펼쳐질 뿐이다. 잔잔하지만 때론 위협적인 호수, 떠다니는 빙봉, 성난 듯 으르렁대는 파도, 태풍에 휩싸인 도시, 쏟아지는 폭포, 이것만으로 그 어떤 영화보다 역동적인 체험을 선사한다. 본능과 직관의 감독으로 불리는 러시아 다큐멘터리의 거장 빅토르 코사코프스키의 역작이다.

21:30
덕유산국립공원



그랑블루 The Big Blue

뤽 베송 Luc Besson

프랑스, 이탈리아 | 1988 | 168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그리스 작은 마을에 사는 자크와 엔조는 바다를 곁에 두고 잠수 실력을 겨루는 경쟁상대이자 유일한 친구다. 어느 날 자크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자크는 바다와 돌고래를 가족으로 여기며 외롭게 성장해간다. 오랜 시간이 흘러 잠수 세계 챔피언이 된 엔조는 자크에게 잠수대회 초청장을 건넨다. 그렇게 다시 잠수 대결을 하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기록을 깨뜨리며 우정을 다진다. 영화는 깊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사람의 뜨거운 경쟁과 우정을 담아내는 한편 미지의 세계와 죽음에 매혹당했던 한 인간의 초상을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그려낸다. 돌고래와 짝은 파란색 바다가 가득한 포스터로 기억되는 이 영화는 <레옹>과 <택시> 시리즈 등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대표하는 프랑스 최고의 흥행 감독이었던 뤽 베송의 세 번째 장편영화다.

23:10
덕유산국립공원

둘째 날 : 6월 05일 (토)



아비정전 Days of Being Wild

왕가위 Kar-Wai Wong

홍콩 | 1990 | 100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매일 오후 3시, 아비는 매표소에서 일하는 수리진을 찾아간다. 그는 수리진에게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든다. 결국, 수리진은 아비에게 마음이 뺏기고 결혼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자유를 갈망하는 아비는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아비의 행동에 실망한 수리진은 그를 떠난다. 수리진과 헤어진 아비는 댄서 루루를 만나 사랑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 아비는 루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친부모를 찾아 필리핀으로 떠난다. 영화는 인물들이 느끼는 상실의 감정을 좇는다. 과거의 순간에 머무르며 방황하는 인물들은 현재에서 벗어나고 단절되며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들에게 현재는 그저 공허한 시간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장국영의 맘보춤으로 기억되는 이 영화는 제10회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을 받았다.

20:00
덕유산국립공원



중경삼림 리마스터링 Chungking Express

왕가위 Kar Wai Wong

홍콩 | 1994 | 102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 같은 명대사들과 흘러가는 인파 속 천천히 움직이는 인물을 담아낸 감각적 영상, ‘캘리포니아 드림’으로 기억되는 영화이며, 왕가위 감독의 1994년 작품이다. 1994년 홍콩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경찰 223, 금발머리 마약밀매상, 경찰 663, 페이,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은 홍콩의 도시적 센티멘탈리즘을 화면 가득 담아내면서 외롭고 고독한 인물의 내면을 탁월하고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 과감하게 펼쳐 보인다. 흔들리는 프레임 속 화려한 색채와 스타일리시한 미장센, 배우 금성무와 임청하, 양조위와 왕페이외의 뛰어난 연기가 오래도록 잔상에 남는다.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왕가위 열풍을 일으킨 작품이다.

21:50
덕유산국립공원



화양연화 리마스터링 In The Mood For Love

왕가위 Kar Wai Wong

홍콩, 중국 | 2000 | 99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2020년 개봉 20주년을 맞아 4K 리마스터링 판으로 재개봉한 왕가위 감독의 여러 영화들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영화다. 1960년대 홍콩의 작고 복잡한 아파트. 같은 날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첸 부인과 차우는 어느 날 서로의 배우자 물건이 각자 배우자의 물건과 같다는 걸 알고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게 된다.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며 서로를 위로하던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한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라는 제목처럼, 영화는 왕가위 감독 특유의 고혹적이고 감각적인 연출력이 절정에 달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미묘한 분위기와 매혹적인 색감으로 완성된 미장센, 우아한 연기를 펼치는 양조위와 장만옥의 연기 앙상블은 <화양연화>를 20세기 세계영화사를 대표하는 영화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제53회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과 최우수예술성취상, 제20회 홍콩금상장 5관왕 수상 등 세계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필진의 역작이다.

23:50
덕유산국립공원

셋째 날 : 6월 06일 (일)



화해의 조건 **Minding the Gap**

빙 리우 Bing Liu

미국 | 2018 | 100분 | 다큐멘터리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미국 일리노이주 록포드에 사는 빙, 잭, 키어는 어릴 때부터 스케이팅 보드를 타며 자란 친구들이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피부색처럼 각각의 가족 문제를 안고 있고, 그로 인한 결핍을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 중이다. <화해의 조건>은 빙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 온 두 친구의 삶을 12년에 걸쳐 기록한 장편 다큐멘터리다. 처음엔 장난처럼 놀이처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빙의 카메라는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친구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채집하고, 친구들의 미세한 감정을 포착하는 도구로 변화한다. 친구들이 털어놓는 가정사와 고민들은 점점 빙 감독에게 영향을 주고, 감독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어떤 치유의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제34회 선댄스영화제 다큐멘터리 심사위원 특별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한 2018년 최고의 다큐멘터리 중 한 편이다.

20:00
덕유산국립공원



슈퍼노바 **SUPERNOVA**

해리 맥퀸 Harry Macqueen

영국 | 2020 | 94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피할 수 없는 상실 앞에 선 연인의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다. 사랑하는 연인이자 최고의 친구인 샘과 터스커는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터스커는 이제 작은 메모조차 할 수 없고 샘은 그런 연인을 먹먹한 감정으로 바라본다. 여행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둘은 어떤 기로에 놓이게 된다. 주목받는 신예 감독 해리 맥퀸과 <캐롤>, <45년 후> 제작진의 작품으로, 배우 콜린 퍼스와 스탠리 투치가 샘과 터스커 역을 맡아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물의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여행지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장센은 이들 앞에 놓인 사랑과 일상의 소멸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킨다. '우아하고 도전적인, 아름답고 따뜻한 모든 매너를 갖춘 영화', '콜린 퍼스, 스탠리 투치 인생 최고의 연기' 등 해외 언론의 호평을 받은 영화이다.

21:50
덕유산국립공원



페어웰 **The Farewell**

룰루 왕 Lulu Wang

미국, 중국 | 2019 | 100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페어웰>은 거짓말에 대한, 혹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영화이다. 뉴욕에 사는 빌리는 할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를 위해 외국에 흩어져 사는 온 가족이 고향에 모인다. 가족들은 전통에 따라 할머니가 근심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정확한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착한 거짓말'을 펼치기 시작한다. 낯선 전통과 익숙한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민자 빌리를 통해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가족애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성찰하는 이 영화는 중국계 미국인 감독 룰루 왕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77회 골든글로브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150여 개 영화제 및 영화상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이 중 33개의 상을 수상한 2019년 최고의 화제작이다.

23:40
덕유산국립공원

넷째 날 : 6월 11일 (금)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 **Happy Together**

왕가위 Kar Wai Wong

홍콩 | 1997 | 97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사랑하는 연인인 요휘와 보영은 홍콩을 떠나 지구 반대편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다. 이과수 폭포를 보기 위한 여정에서 둘은 이별한다. 홍콩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낯선 땅에서 착실하게 살아가는 요휘에게 어느 날 자유롭고 제멋대로인 보영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난다. 왕가위 감독의 1997년 작으로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양조위와 고인이 된 장국영이 동성 연인을 연기해 제작 전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있던 홍콩의 불안한 심리를 은유하는 이 영화는 감독 특유의 감각적인 영상미와 관객의 마음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는 음악으로 대표되는 왕가위 월드의 시작을 알린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에서 왕가위와 장국영이 보여준 최고의 연기 앙상블은 그 자체로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 촬영하며 시나리오를 썼던 왕가위의 연출 스타일로 인해 영화에 사용되지 못한 장면들은 이후에 완성된 일종의 메이킹 다큐멘터리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제로디그리>에 담겨있다.

20:00
덕유산국립공원



부에노스아이레스 제로디그리 **Buenos Aires Zero Degree**

관본량 Pun-Leung Kwan

홍콩 | 2000 | 62분 | 다큐멘터리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영화 <해피투게더>의 제작 뒷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감독은 동쪽도 서쪽도 아니고, 낮도 밤도 없으며, 출지도 덥지도 않은 0도의 땅 부에노스아이레스, 그곳에서도 쇠락한 항구도시 라보카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감독이 두 캐릭터만을 머릿속에 넣은 채 지구 반대편의 촬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화 제작 과정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완성된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뒷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예정된 촬영 기간을 훌쩍 넘기면서 촬영팀 모두가 힘들어했던 상황에서부터 현지의 치안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당시 이야기, 영화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두 주인공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촬영 씬, 존재하지 않았던 장의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배경 등 창작의 과정 중에 사라진 캐릭터의 구성과 이야기의 흐름이 흥미롭게 담겨있다. 영화는 당시의 촬영 현장을 담은 데서 그치지 않고 영화에 사용되지 않은 필름을 묶어 또 다른 스토리를 가진 영화를 만들어낸다. <해피투게더>와 왕가위 감독의 팬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다큐멘터리다.

21:50
덕유산국립공원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Farewell My Concubine**

천카이거 Chen Kaige

중국, 홍콩 | 1993 | 171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데이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경극학교에 가지만 육손이라는 이유로 입학할 거절당한다. 매춘부 일을 하며 더이상 데이를 키울 수 없었던 어머니는 데이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경극학교에 강제로 입학시킨다. 그렇게 경극 단원이 된 데이는 그곳에서 살로를 만나고 모진 훈련과 폭력을 견디며 함께 성장해간다. 성인이 된 그들은 경극 <패왕별희>를 공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다. 하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하고 전통문화와 경극에 대한 억압이 시작되자 데이와 살로의 관계에 점점 균열이 일어난다. 중국 5세대를 대표하는 천카이거 감독의 1993년 작품으로, <영웅본색>, <천녀유혼>으로 입지를 굳힌 배우 장국영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엿볼 수 있다. 제46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23:10
덕유산국립공원

다섯째 날 : 6월 12일 (토)



사운드 오브 메탈 Sound of Metal

다리어스 마더 Darius Marder

미국 | 2019 | 120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헤비메탈그룹 블랙 하운의 드러머 루벤과 보컬 루.아에 관한 이야기다. 루벤은 밴드 활동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지만 루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삶이 즐겁다. 그러던 어느 날 루벤은 갑작스럽게 청력을 잃는다. 병원에서는 그에게 청력의 20%를 잃었으며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더 이상의 밴드 활동도, 일상생활도 할 수 없게 된 루벤은 루와 상의한 끝에 청각 장애인들의 공동체에서 생활하기로 한다. 하지만 루벤은 루와 떨어져 지내는 생활이 어렵기만 하다. 영화는 시끄러운 사운드와 고요한 정적의 대비를 오고 가면서 소리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다. 카메라가 루벤에게 다가갈수록 세상은 조용해진다. 영국 아카데미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과 음악상을 받았다.

20:00
덕유산국립공원



셰이프 오브 뮤직: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In The Tracks of Alexandre Desplat

파스칼 뤼노 Pascale Cuenot

프랑스 | 2018 | 64분 | 다큐멘터리 | Color | 전체관람가

현존하는 동시대 가장 중요한 음악감독 중 한 명인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의 삶과 음악 세계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알렉상드르 데스플라는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스타워즈> 음악을 접한 이후 영화음악을하기로 결심하고 20여 년 동안 70편이 넘는 영화의 음악을 책임지며 동시대 가장 중요한 음악감독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과 <셰이프 오브 뮤직: 사랑의 모양>(2017)으로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으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조지 클루니가 연출한 <모뉴먼트 맨>의 음악 작업에 열중하는 데스플라의 열정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데스플라의 영화관과 음악세계를 엿볼 수 있다.

22:10
덕유산국립공원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 데 야드

Inna de Yard - The Soul of Jama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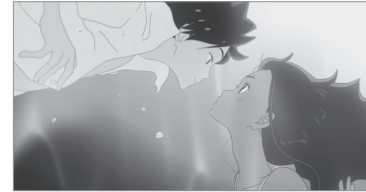
피터 웨버 Peter Webber

프랑스 | 2019 | 99분 | 다큐멘터리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어떤 나라에는 다이아몬드가 나고, 어떤 나라에선 석유가 나온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음악이 있다. 언어가 곧 음악이 되는 자메이카, 이곳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레게가 있다. '이나 데 야드'는 레게의 뿌리와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쿠스틱을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앨범 프로젝트이다. 영화는 그 여정의 기록과 음반에 쌓여가는 노래들의 사연들을 쫓는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2003), <한니발 라이징>(2007) 등의 작품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피터 웨버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화면 속 흥겨운 레게 리듬에 어울리는 자메이카의 이국적인 풍경은 관객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황홀한 경험을 선사한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이후 최고의 음악 다큐멘터리라는 평단의 호평과 함께 레게 음악의 진수와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23:30
덕유산국립공원

여섯째 날 : 6월 13일 (일)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Ride Your Wave

유아사 마사아키 Yuasa Masaaki

일본 | 2019 | 96분 | 애니메이션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바다와 서핑을 사랑하는 히나코, 정의감 넘치는 소방관 미나토, 미나토가 불 속에 갇힌 히나코를 구해 주면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닭살스러운 연인이 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내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히나코가 노래를 부르자 미나토가 물속에 나타난다. <마인드 게임>, <새벽을 알리는 루의 이야기>,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로 이름을 알린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이 이번에는 찬란한 파도로 우리를 초대한다. 시각적으로 묘사된 캐릭터의 섬세한 감정이 감독의 독특한 상상력과 만나 빛을 발하고, 일본 인기그룹의 멤버인 가타요세 료타와 가수 배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와에이 리나가 영화 주제곡인 'Brand New Story'를 직접 부르며 풋풋하고 몽글몽글한 하모니를 보여준다. 제23회 판타지아 영화제에서 베스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으며, 제52회 시체스영화제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받았다.

20:00
덕유산국립공원



러브 레터 Love Letter

이와이 슌지 Iwai Shunji

일본 | 1995 | 117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1999년 국내 개봉과 함께 전국 1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오갱끼데스까~!'로 기억되는 대표적인 일본 영화이자 한국 관객들에게 이와이 슌지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작품이다. 감독은 오타루의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미장센과 감독 특유의 섬세한 연출로 최고의 감성 멜로를 완성했다. 영화는 히로코가 세상을 떠난 옛 애인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고 죽은 이츠키로부터 의문의 답장이 오면서 시작된다. 궁금증을 가진 그녀는 편지 속 이츠키를 찾아 나서고 그곳에서 자신의 애인과 이름이 같은 이츠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다. 영화는 현재의 히로코, 현재의 이츠키, 과거의 두 이츠키를 오가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누구에게나 아련한 '첫사랑'의 감각과 기억으로 박제된 시간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리메디오스의 'A Winter Story', 'Forgive Me' 등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은 영화를 완성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다.

21:50
덕유산국립공원



라스트 레터 Last Letter

이와이 슌지 Iwai Shunji

일본 | 2018 | 120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러브 레터>(1999)를 비롯해 <하나와 앨리스>(2004), <릴리슈슈의 모든 것>(2005) 등으로 국내에도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한 이와이 슌지 감독의 최신작이다. 영화는 달을 수 없는 편지를 통해 과거의 사랑을 떠올리고 이를 통해 현재를 치유해나가는 이들의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언니 시미코를 대신해 동창회에 간 동생 유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곳에서 시미코를 줄곧 사랑해왔다는 소설가 교시로를 만나고 우리는 언니인 척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달을 수 없는 편지가 오가며 20여 년 전 시미코와 교시로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화는 20여 년 전 <러브 레터>에서 그랬듯,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펼쳐지는 애뜻하고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이와이 슌지 감독 특유의 따뜻한 연출과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그려낸다.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 혹은 누군가를 처음 사랑했던 기억을 가진 당신에게 전하는 아련하고 수려한 영화다.

24:00
덕유산국립공원

기리

TOWN CINEMA

무주산골영화제의 길 섹션은 영화제 초기부터 무주군민과 영화제 관객을 대상으로 무주만의 문화콘텐츠와 영화상영을 결합한 '마을로 가는 영화관'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무주 군민들의 영화제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영화상영과 연계하여 무주만이 가진 문화콘텐츠를 외지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7년 '마을로 가는 영화관'은 한국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와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함께 안성면 두문마을과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각각 운영되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장소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연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별자리 보기 프로그램인 '별밤소풍'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작년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면서 무주산골영화제는 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고,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잡아 무주군민만을 위한 별도의 상영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역시 해당 시기에 맞춰 별도로 공개할 것이다. 부디 지금의 상황이 빨리 개선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무주산골영화제와 무주군민이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한다.

EVENT

이벤트

HIBROW COMPANY

하이브로우 존

니가 알던 안재홍이 아냐

산골미술관

책방무사

산골책방

공연 / 토크

산골콘서트

하이브로우 존



무주산골영화제의 메인 행사공간인 무주등나무운동장에 '적당함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하이브로우HIBROW가 영화제 관객들의 심터를 아우르는 특별한 공간 '하이브로우 존'을 마련한다. 관객 심터, 하이브로우 팝업 스토어, 카페, 그린 캠페인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구성될 예정.

운영장소 무주등나무운동장

운영일자 6월 3일(목) ~ 6월 6일(일) / 6월 11일(금) ~ 6월 13일(일)

운영시간 11:00 ~ 19:00



FURNITURE & LIFESTYLE BUILDERS

하이브로우 그린 캠페인

우리 생활 속 가장 쉬운 환경보호 실천법 '텀블러 사용하기'. 하이브로우 존 카페에서 음료 구매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음료 할인 및 특별한 선물 등을 제공한다.

하이브로우 팝업 스토어

퍼니처 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하이브로우HIBROW가 주도하고 있는, 액티비티에 적합하면서도 지금 현재 가장 트렌디한 아웃도어 아이템을 하이브로우 존에서 전시 및 판매한다.

하이브로우 컴퍼니 HIBROW COMPANY

하이브로우는 이천희-이세희 형제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유행을 쫓기 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할 수 있는 독보적 콘셉트를 지향한다. 소름이자 작업장이기도 한 강원도 원주의 복합문화공간 '하이브로우 타운'을 운영하면서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 가구 및 제품들을 통해 같은 가치관을 가진 고객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www.hibrowmarket.com

공식 인스타그램 @hibrow_official

산골미술관

내가 알던 안재홍이 아냐



산골미술관에서는 '넥스트 액터' 세 번째 주인공 '배우 안재홍'을 주제로 전시가 열린다. 데뷔 시절부터 현재까지 안재홍이 무궁무진하게 다방면으로 활약해 온 시간들이 한 공간에 모여 관객들을 맞이한다. 사람 안재홍의 속 깊은 인터뷰 영상, 스페셜 화보 이미지, 활동 소장품 등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안재홍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될 예정이다.

운영장소 무주등나무운동장 옆 지남공원

운영일자 6월 3일(목) ~ 6월 6일(일)
6월 11일(금) ~ 6월 13일(일)

운영시간 11:00 ~ 19:00

산골책방

운영장소 무주예체문화관 지하1층
운영일자 6월 3일(목)~6월 6일(일)
 6월 11일(금)~6월 13일(일)
운영시간 11:00 ~ 19:00

올해 산골책방은 작가이자 뮤지션 요조가 운영하는 '책방무사'와 함께 한다. 제주도 성산읍 수산리의 작은 마을에 오래된 점빵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방 무사가 오직 무주산골영화제를 위해 큐레이션한 책들로 산골책방이 꾸려진다. 이와 함께 책방무사의 온라인 스토어 '스토어무사'를 산골책방에서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으며, 책방무사의 주인인 요조와 함께 하는 북토크 및 콘서트까지 즐길 수 있다.



요조와 함께 뮤지션, 작가이자 책방무사의 주인이기도 한 요조와 함께 하는 시간

북토크

운영일시 6월 12일(토) 15:00 **운영장소** 무주등나무운동장

신간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산문집에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뮤지션이자 작가, 책방주인으로 살아가는 요조 본인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그가 살아오며 겪은 '실패'들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며 그로부터 실패의 속성들을 알아보고, 실패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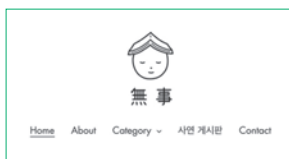
따뜻한 마음 캠페인

몇 번 쓰지 않은, 원치 않은 기념품으로 받은, 에코의 기능을 상실한 에코백(천가방)을 기증받는 캠페인을 책방무사에서는 오랫동안 실천해오고 있다. 기증받은 천가방은 실제로 책방에서 손님들에게 책을 담아드리는 용도로 다시 활용해오고 있으며, 업사이클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 책방무사의 '따뜻한 마음 캠페인'을 이번 무주산골영화제 산골책방에서도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쓸모 가치를 다한 천가방들을 차곡차곡 모아 산골책방으로 가지고 오면 된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는 관객들에게 책방무사의 작은 감사품도 선착순으로 한정수량 제공한다.



책방무사 책방 무사는 제주 동쪽 성산일출봉 근처 수산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책방이다. 옛 점빵의 간판 '한아름상회'를 떼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니 그 간판을 보고 찾는 것이 더 쉬울 지도 모른다. 서울에서 시작해 제주로 이전한 지는 햇수로 4년차가 되었다. 고유의 결을 유지하며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젝트들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공식 인스타그램 @musabooks](#)

스토어무사 스토어무사는 책방무사의 온라인 스토어이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매일매일의 무사의 모습과 그 날의 날씨를 짧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굿즈와 패키지, 책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별히 스토어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들은 책과 함께 읽기 좋은 요조의 산문, 혹은 무사지기들과의 대담이 함께 동봉되어 배달되어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돕는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책방무사에 방문하면 말할 수 있는 시그니처 디퓨저. [공식 홈페이지 storemusa.com](#)



산골콘서트

CASPER LIVE | MSB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만의 새롭고 특별한 콘셉트로 매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공연 및 토크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특히 올해는 영화제 초창기부터 꾸준히 함께 해 온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가 주요 공연 라인업 기획 구성을 맡아, 관객들이 한층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무주에서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작년, 무주산골영화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 소개했던 음악평론가 '배순탁'과 두 뮤지션이 함께하는 '뮤직라이크 무주' 프로그램 또한 새로운 두 뮤지션과 함께 올해도 진행되며, 락 섹션 영화 속 주인공들의 라이브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들도 새롭게 준비했다.

6월 03일(목)

개막축하공연

이날치

19:00 무주등나무운동장

이날치는 두 명의 베이스와 드러머, 네 명의 판소리로 구성된 얼터너티브 팝 밴드다. 뉴웨이브와 포스트 펑크에 바탕을 둔 연주와 각각의 개성이 도드라진 목소리가 함께 만들어낸 그루브는 이날치만의 중독성을 선사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판소리의 재미와 요소를 팝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데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음악성을 확장하여 구사해 온 이날치가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 축하 공연을 펼친다.



6월 04일(금)

공연

김뜻돌

13:00 무주등나무운동장

싱어송라이터 김뜻돌은, '돌 하나에도 뜻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 그대로,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을법한 삶의 단면들을 들여다보며 이를 음악에 담아낸다. 몽환적인 선율을 따라가다 직선으로 와 닿는 노랫말들에 한 번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2017년 첫 싱글 '꿈 속의 카메라'를 발표한 후 해마다 싱글앨범을 발매해왔으며, 지난해 2020년에는 정규 1집 '꿈에서 온 전화'를 선보였다. 이 앨범으로 한국대중음악상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연덕스럽게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김뜻돌의 목소리에 주목해보자.



6월 04일(금)

토크

안재홍

16:00 무주등나무운동장

세 번째 넥스트 액터 주인공 배우 안재홍과 배우연구소 백은하 소장이 관객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토크 시간이 마련된다.



공연

윤딴딴

19:00 무주등나무운동장

윤딴딴은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싱어송라이터로,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라는 수식어와 함께 탄탄한 실력과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싱글 '겨울을 걷는다'로 데뷔하여 '니가 보고 싶은 밤', '잘 해보려는 나 알 수 없는 너'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였다. 마치 일기장을 들여다보듯 일상이 스며든 가사 말들과 담담하게 엮어진 기타 선율이 담겨있는 곡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와 가까워진 기분이 들기까지 한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인생을 노래했던 싱어송라이터'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공연

영화 <다시 만난 날들> 공연팀

[송인섭, 신예찬, 이화익, 홍이삭, 황대현]

20:00 영화 <다시 만난 날들> 상영 후 무주등나무운동장

'락' 섹션 상영작 <다시 만난 날들>의 3명의 음악감독(이화익, 홍이삭, 송인섭)과 이 작품에 출연한 2명의 음악가가 함께 하는 스페셜 공연으로, 무주산골영화제를 위해 다시 모였다.



MEMO

Blank lines for notes.

6월 05일(토)

공연

까데호

16:00 무주등나무운동장

2018년에 결성된 밴드로, 흑인음악을 기반으로 잼 연주에서 드러나는 자유로움과 즉흥성을 추구한다. 대한민국 음악씬에서 이미 오랫동안 활동해온 세 멤버 이태훈, 김재호, 김다빈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개성이 온전히 담긴 '까데호'는 2019년을 기점으로 페스티벌 및 기획 공연의 단골 밴드로 초청되며 인기를 끌어왔다. 서사무엘, 넥살과 같은 타 아티스트와의 협업에도 적극적인 이들은, 공연을 통해 자유롭고 즉흥적인 리듬에 모두가 몸을 맡겨 '기본대로 춤출 수 있는 댄스음악'을 실현 시키고자 한다.



공연

10CM

19:00 무주등나무운동장

분명히 10CM는 한국 음악계의 하나의 아이콘이다. 질편한 가사와 달콤한 멜로디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10CM. 인디씬에서 시작한 이 앙큼한 뮤지션은, 한국 음악계의 인디와 메이저의 경계를 허문 장본인이기도 하다. '오늘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아메리카노'로 이름을 알린 2010년에는 한국 버스킹 1세대로써 홍대씨의 '통기타와 쟈메' 열풍을 설명하는 척도였고, 연이어 꾸준히 발매된 앨범들을 통해 대체 불가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탑 아이돌들과의 콜라보레이션, 각종 드라마 OST, 대형 페스티벌 등의 섭외 1순위가 되었고, 식을 줄 모르는 열광 속에서 전회 매진을 기록하는 단독 공연들을 치러왔다. 그의 무엇이 그토록 특별했을까? 그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힌 10CM의 음악에서 찾을 수 있겠다.



MEMO

Blank lines for notes.

6월 06일(일)



토크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시네마토크



13:00 무주등나무운동장

영화 <경극소년 리턴즈> 속 바오어와 오픈의 특별한 우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의 같음과 다름을 이야기 해보는 시간. 베스트셀러 『제법 안전한 날들』의 저자인 남궁인 의사와 '행복한 아이연구소' 서천석 소장이 시네마토크에 함께 참여한다.

※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활동중인 청소년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 틴세이버가 함께합니다.

<경극소년 리턴즈> 실내상영 일정 | 6.06(일) 11:00 무주청소년수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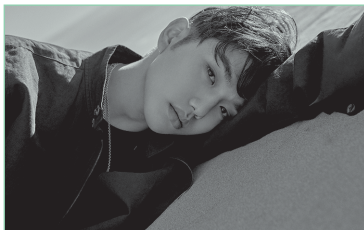


공연

데이먼스 이어

15:00 무주등나무운동장

'데이먼스 이어'는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데이먼스 이어라는 활동명을 떠올리게 되었다. 매일, 매달, 매년 찾게 되는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들, 영문도 모른 채 불이 붙고 그 크기가 더해질수록 파생되는 감정들도 커지곤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았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 초 첫 정규 앨범 [Headache]를 발매하였다. 실재와 허구를 넘나드는 치밀한 스토리텔링으로 한 편의 단편집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앨범이다. 만개한 기량을 동력 삼아 비로소 완성형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난 데이먼스 이어의 현재를 이번 라이브 무대를 통해 확인해보자.



공연

샘김

19:00 무주등나무운동장

2016년, 18살의 나이에 EP [I AM SAM]으로 데뷔한 샘김은 데뷔 앨범에서부터 소울풀한 음색과 생동감 넘치는 기타 연주로 그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샘김' 그 자체의 음악을 선보였다.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작곡에도 독보적인 재능을 드러낸 그는 역동적인 기타 리프와 감성적이고도 힘 있는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음악 스타일을 거침없이 표현해왔다. 또한 프라이머리, 로꼬 등 다양한 국내 뮤지션들과의 협업과 찰리 푸스, 톰 미쉬와 같은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초청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왔고, 전국 작사/작곡/편곡으로 참여한 정규 앨범 [Sun And Moon]으로 확장된 프로듀싱 역량을 발휘하며 보다 확고해진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냈다. 가장 샘김다운, 웰메이드 트랙들로 가득한 정규 앨범 발매 이후 샘김은 꾸준히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현재 OST, 피쳐링, 프로듀서로서의 활발한 활동 또한 이어오고 있다.

6월 11일(금)



공연

요조

16:00 무주등나무운동장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조의 음색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었던 싱어송라이터 허세과와 최근 발표한 요조의 신곡 '모과나무', 그리고 '작은 사람'을 함께 작업한 싱어송라이터 사공이 함께해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다정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권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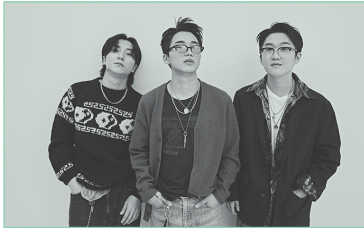
19:00 무주등나무운동장

청아한 음색과 깊은 감성, 호소력 짙은 보컬로 정평이 나 있는 권진아는 2016년 첫 정규 앨범 [웃긴 밤]으로 공식 데뷔했다. 이후 2019년 두 번째 정규 앨범 [나의 모양]을 발표하며 한층 더 성숙해진 가창력, 깊어진 감성과 감각적인 송라이팅으로 사랑받았고, 이어 올해 초에는 EP [우리의 방식]을 전국 자작곡으로 발매했다. 고유의 음악적 색채들을 최근 앨범 전반에 녹여내며 완성형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그는, 정통 발라드를 중심으로 R&B,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도 매번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보컬과 짙은 감성이 담긴 송라이팅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memo section.

6월 12일(토)



공연

웨이브 투 어스

13:00 무주등나무운동장

웨이브 투 어스는 재즈 드러밍을 기반으로 한 로파이 사운드의 인디 팝을 지향하고 있다. 보컬의 김다니엘과 드럼의 신동규 2인 체제로 밴드를 시작하였으며 데뷔 싱글인 'wave'와 'light' 발매 이후 첫 번째 EP 앨범 [wave0.01]부터는 새로운 멤버인 베이스리스트 차순종과 함께 하게 되었다. All Self-made를 기본 모토로 삼으며 음악뿐 아니라 앨범 아트, 영상, 패션과 같은 예술 전반에도 발을 뻗고 있다. 영상 및 아트웍 작업은 밴드 비주얼 디렉터 홍승기를 주축으로 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정 객원 멤버, 색소포니스트 전민과 키보디스트 조종근도 함께 하면서 풍성한 풀밴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

김수영

17:00 무주등나무운동장

중저음의 감미로운 음색 단 하나로 리스너들을 매료시킨 화제의 싱어송라이터이다. 96년생의 실력 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걸출한 기타 연주와 뛰어난 송라이팅의 내공, 그리고 깊고 매력적인 보컬, 이 모두를 겸비하며 음악 팬들은 물론 어느새 여러 관계자의 입에도 오르내리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Sting의 'Englishman in New York',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아이유의 '좋은 날' 등 대중의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그녀만의 산뜻한 편곡과 우아한 가창으로 재해석한 라이브 콘텐츠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2017년 데뷔 앨범 [Behind]에 이은 꾸준한 신곡 발표, 크고 작은 공연들과 다수의 라이브 영상들을 통해 가감 없는 매력과 실력을 보여주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공연

아도이

19:00 무주등나무운동장

신스팝을 기반으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밴드이다. 이들의 음악이 연상시키는 것은 무척 단순하고 직관적인 것들이다. 여름, 바다, 파도, 공원, 달리기, 밤공기, 수다처럼 잠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 아도이의 음악에 담겨있다. 2017년 첫 EP를 발매하며, 국내외 크고 작은 무대들을 통해 그들만의 색깔이 확실한 라이브를 선보여왔고, 2018년 두 번째 EP를 발매한 후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인디펜던트씬을 넘어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의 무대를 오랜만의 대면 공연을 통해 만나 볼 기회이다.

6월 13일(일)



공연

뮤직 라이크 무주 Music like Muju with 배순탁

16:00 무주등나무운동장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배순탁 음악평론가와 함께 새롭게 선보인 특별 기획공연 프로그램 '뮤직 라이크 무주'가 올해도 여러분을 기다린다. 배순탁 음악평론가가 추천하여 초청된 라이징 뮤지션들과 함께 그들의 음악과 각자의 음악세계를 관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배순탁 음악평론가,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배순탁의 B사이드 진행자. 저서로는 「배철수의 음악캠프 20년 그리고 100장」, 「청춘을 달리다」가 있고, 「모던팝스토리」를 번역했다.

김제형

김제형씨의 음악을 듣고 단번에 반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의 음악을 알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저는 제가 신뢰하는 취향을 지닌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음악을 추천하면 빼놓지 않고 체크해봤다가 들으러 애쓰는 편입니다. 아마 그래서 알게 됐게 거예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대중음악상에서도 김제형씨는 후보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포크 음반', '포크 노래' 부문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이 뛰어난 뮤지션과 그의 음악이 아직 합당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로 일하고 있는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소개하고, 진행하고 있는 배순탁의 B사이드에서도 여러 번 선곡했죠. 그때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딱 한 곡만 꼽으라면 역시 '실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곡의 매력은 특별합니다. 무덤덤한 듯 툭툭 내뱉는 보컬 톤과 섬세하게 짜여진 기타 연주, 구성미 등, 흠잡을 곳이 없는 노래죠. 이 곡을 방송에서 틈 뒤로 또 선곡해달라는 요청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왜 그렇게 앵콜 요청이 들어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강아솔

강아솔씨의 음악을 처음 접한 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였을 겁니다. 2012년이었고요. '그대에게'라는 곡의 라이브 버전이었어요. 만약 아직 강아솔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 영상부터 보길 권합니다. 유튜브에 '강아솔 그대에게'라고 치면 아마 맨 위에 뜰 거예요. 조회수도 꽤 됩니다. 30만회에 거의 근접했네요. 영상을 보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별 게 없는 노랩니다. 기타 연주하고 강아솔씨 목소리가 전부예요. 그 외에 있는 소리라고는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뿐인데 이걸 그대로 담아냈어요.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물론 이런 류의 곡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섬' 같은 노래가 대표적이죠. 풍성한 결을 지닌 편곡으로 부드럽게 듣는 이를 설득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제가 강아솔씨 음악 듣고 음악 좋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동진씨가 진행한 푸른밤 애청자들이 강아솔씨가 "정말 재미있는 분이다. 음악이랑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진행한 라이브들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강아솔씨가 최은씨랑 함께 출연했던 날을 항상 꼽습니다. 진짜예요.



글. 배순탁

6월 13일(일)

공연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14:00 무주등나무운동장

꿈의 오케스트라는 엘 시스테마 철학과 교육 방법론을 바탕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본, 트럼펫,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64명의 단원과 음악감독 1명, 강사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 교육보다는 음악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바른 인성과 감성 교육에 힘쓰고 있다.



공연

영화 <소리꾼> 공연팀 (이봉근, 조정래)

20:00 영화 <소리꾼> 상영 후 무주등나무운동장

'락' 섹션 상영작 <소리꾼>의 주연배우이자 국악인 이봉근과 <소리꾼>을 연출한 조정래 영화감독이 함께 무주산골영화를 위해 특별한 공연을 펼친다.



MEMO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notes.

작품 색인

한국작품

- 그대 너머에 32
내언니전지현과 나 42
다시 만난 날들 73
달이 지는 밤 28
등글고 등글게 33
라임크라임 42
말아 42
메모리즈 45
메이드 인 루프탑 43
모르는 여자 45
별 시(別時) 45
봉명주공 34
삼진그룹영어토익반 74
선데이리그 43
성적표의 김민영 35
셀프-포트레이트 2020 36
소공녀 60
소리꾼 78
송해 1927 74
슬픈신 60
쓰리 43
아무도 없는 곳 44
야구소녀 71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60
유품 45
자산어보 77
조제 73
족구왕 59
중착역 37
좋은 사람 38
청산, 유수 44
최선의 삶 39

- 플라로이드 작동법 45
하코다테에서 안녕 45
혼자 사는 사람들 44
휴가 40

해외작품

- 3개의 얼굴들 46
경극소년 리턴즈 70
그랑블루 80
나는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 46
나의 작은 동무 46
낙엽귀근 75
내 형제가 가르쳐준 노래 47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85
네이버링 사운드즈 64
뉴 오더 47
더 파더 47
라스트 레터 85
래시 컴 홈 71
러브 레터 85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48
레 미제라블 48
레미: 집 없는 아이 71
레이니 데이 인 뉴욕 77
마운틴 콘체르토 80
마틴 에덴 48
멋진 세계 49
모굴 모굴리 49
모험가 75
무대 뒤에서 75
미나리 76
바쿠라우 68

- 베이비티스 49
부에노스아이레스 제로디그리 83
분화구의 두 사람 50
비츠 50
비홀드 마이 하트 50
사운드 오브 메탈 84
세이프 오브 뮤직 :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84
소년시절의 너 51
슈퍼노바 82
스파이의 아내 51
썸머 85 51
아비정전 81
아이카 52
아쿠아렐라 80
아쿠아리우스 66
어느 소녀 이야기 52
운디네 52
자메이카의 소울: 이나 데 야드 84
잘리카투 53
전혀아니다.별로아니다.가끔그렇다.항상그렇다 53
중경삼림 리마스터링 81
진파 53
쿠오바디스, 아이다 54
키드 76
타인의 친절 54
트루 마더스 54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83
페어웰 82
폭력의 그림자 55
피넛 버터 팔콘 55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 83
화양연화 리마스터링 81
화해의 조건 82

감독 색인

한국감독

곽민승 42
 권민표 37
 김기성 34
 김조광수 43
 김종관 28, 44, 45, 73
 박루슬란 43
 박윤진 42
 박홍민 32
 서한솔 37
 신동일 44
 심찬양 73
 안재홍 60
 우문기 59, 60
 유재욱 42
 윤재호 74
 이동우 36
 이란희 40
 이성일 43
 이승환 42
 이우정 39
 이재은 35
 이종필 74
 이준익 77
 임지선 35
 장건재 28
 장민승 33
 전고운 60
 정욱 38
 조정래 78
 최윤태 71
 홍성은 44

외국감독

가와세 나오미 54
 관본량 83
 구로사와 기요시 51
 니시카와 미와 49
 닉 로우랜드 55
 다리एस 마더 84
 래드 리 48
 레이몬드 탄 70
 론 웨르픽 54
 룰루 왕 82
 릭 베송 80
 리조 조세 펠리세리 53
 마이크 슈왈츠 55
 무니카 시멧츠 46
 미셸 프랑코 47
 바삼 타리크 49
 박루슬란 43
 브라이언 웰쉬 50
 빅토르 코사코프스키 80
 빙 리우 82
 사라 개브론 52
 새넌 머피 49
 세르게이 드보르체보이 52
 시에 페이루 46
 아라이 하루히코 50
 앙트완 블로시에르 71
 야스밀라 즈바니치 54
 엠마누엘 뤼레 48
 울더디센 하노 71
 완마 차이단 53
 왕가위 81, 83
 우디 앨런 77

유아사 마사아키 85
 이와이 슌지 85
 일라이자 히트먼 53
 자파르 파나히 46
 장양 75
 정이삭 76
 제니퍼 피덤 80
 조슈아 레오나드 50
 줄리아누 도르넬리스 68
 증국상 51
 찰리 채플린 75, 76
 천카이거 83
 크리스티안 페츨트 52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64, 66, 68
 클로이 자오 47
 타일러 닐슨 55
 파스칼 쇠노 84
 프랑소와 오종 51
 플로리안 젤러 47
 피에트로 마르첼로 48
 피터 웨버 84
 해리 맥퀸 82

만든 사람들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황인홍

조직위원

김정미
 이해연
 임동식
 장영진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유기하

부집행위원장

박현주
 조지훈

집행위원

박병선
 박종관
 윤양택
 이주봉

자문위원회

김 건
 김동원
 민병록
 정상진
 표종록

스태프

프로그래머

조지훈

사무국장

신동환

사업마케팅실

황해성
 김용희

기획운영팀

고영웅
 김혜린
 채상훈

프로그램팀

김태이
 한지영

미술감독

서하나

회계팀

최현희

코디네이터

김형준
 이혜주
 임민혁
 정하경
 최성우

공식 홈페이지 | www.mjff.or.kr
 인스타그램 | @mujufilmfest
 네이버tv | tv.naver.com/mjff
 유튜브 | www.youtube.com/mujufilmfestival
 페이스북 | www.facebook.com/mujufilmfestival
 트위터 | @mujufilmfest
 포스트 | post.naver.com/mujufilmfest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 발행일 2021년 5월 10일
 발행인 유기하 | 책임편집 조지훈 | 편집 한지영 | 글쓴이 조지훈, 최성우, 한지영
 디자인 구민재page9 | 인쇄·제작 다온피앤피
 주소 54918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0, 201호 무주산골영화제
 전화번호 063-245-6400~1 | 팩스 063-245-6405

HUMMINGROSE

SHOP & STUDIO

허밍로즈 플라워스튜디오


플로리스트전문가과정
 플라워샵창업반 수업 | 기업출강

웨딩장식 | 공간스타일링
 기업행사 꽃장식



Florist since 2004,
 hummingrose since 2014
 Catherine Muller Flower School
 (프랑스 까뜨린렐러 수료)



 hummingrose |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작품사진을 만나보세요.

전주시 완산구 산월1길 29 | 063.224.4319



온 가족을 위한 워터파크 오션플레이 변산

Ocean PLAY

입장객 전원 물에서 쓰는 오션 안심 마스크 제공

다른 탄산은 단 1%도 넣지 않은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



본 광고는 주류 판매업, 기밀정보 유출, 기타 법령 위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 테라 | 에이전트: 소노호텔리조트

FOR PICNIC
FOR WORK
FOR PLEASURE

人77天
3.14planet.com



순간의 쌉싸름이 가져올 더 나은 삶

비리베터

(주)건보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1길 19-6

Make Happy Life :) CHARN

물맛이 좋다!

세계 3대 광천지역의 하나인
충북청원군 소백산맥 줄기에서
취수하는 200m 천연 지하 암반수

물·한빙



차오른 물한빙 Q 을 검색해보세요!

NATURAL UNDERGROUND
MINERAL WATER



SIGG+



MERIDIAN

NO PLASTIC*

스위스 지그 한국 공식수입원 (주)하이드로웍스

T. 02)733-8848 | E. master@hydroworks.co.kr

www.siggkorea.com

BARRL



milmo 캠핑리조트
빨강치마

한 쪽의 치마, 한 쪽의 그립, 그리고
한 쪽의 추억



카라반 Caravan

글램핑 Glamping

가족호텔 Family Hotel

무주 적상산

빨강치마로 오세요!

예약문의 (주)일모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 235 TEL : 063-322-7000 / FAX : 063-322-7800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하루 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 받고,
지난해 최소 42명의 아이들이 죽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 2020



LIVE YOUR LIFE.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요구합니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 전국 229개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서명 참여하기

당신의 이름이 정책을 바꾸고 아이를 살립니다.
참여해주신 서명은 아동학대 정책개선 촉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HIBROW

HIBROW



WWW.HIBROW.CO.KR
HIBROWMARKET.COM

HEADQUARTERS

HIBROWTOWN, JIJEONG-RO 801, JIJEONG-MYEON, WONJU-SI, GANGWON-DO, KOREA

SNS

INSTAGRAM @HIBROW_OFFICIAL / FACEBOOK @HIBROW.PAGE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무주▲산골영화제**

“함께 실천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필수!

영화 관람 중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
해주세요.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좌석 간 거리두기

주변 좌석과의 안전거리를 유지 해주시
고 영화 상영 중에 좌석 간 이동은 삼가
해주세요.



손세정
언제나 청결!

흐르는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어
주시고 행사공간 출입 시 입구에 비치
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주세요.



기침예절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때는 마스크와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전자출입명부 작성

티켓부스, 각 행사공간 입구에서 각각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주세요.
(QR / 안심콜)



기타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의 안내 및
진행에 협조해주세요.